한국전력공사 공인협약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 식당, 병원, 목욕탕, 숙박업소, 관공서,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쌀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4월 2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19 호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실종된 자자와 포살

동안거의 마지막 날 안거중 자신이 범한 죄과를 대중에게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을 자자(自恣)라 한다. 또 동일지역 내의 스님들이 보름마다 모여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죄가 있으면 고백 참회하는 의식을 포살(布薩)이라 한다.

불자로서 계율을 지키고자 서약하는 수계법회는 전국 사찰에서 수없이 열리고 있으나, 반성과 참회를 하는 포살법회는 수계법회만큼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불자들에게 계율을 지키는 일이 생활화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수계받은 이후의 신행생활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미흡해 수계는 많아도 지계는 드문현상이다.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96년 2월부터 98년 8월까지 2년6개월동안 매달 포살법회를 실시해 왔다. 이 법회에는 직할교구 소속 사찰 주지스님과 중앙종무기관에서 소임을 맡은 스님 등이 참여했다. 처음엔 50명 이상이 참석해 '새로운 총무원'의 모습을 보이다가 차츰 참가하는 스님들이 줄어들었다. 급기야 포살법회는 자취를 감췄다.

"정기적 포살법회로 지계 생활화 정착을"

"새 총무원체제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포교·교육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총무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누가들어도 설득력이 없다.

스님이든 재가불자든 살아가면서 부처님전에 반성하고 참회할 일들은 수 없이 많다. 매일 자신의 행동과 언행을 살피는 참회의식은 보다 건강한 삶의 기본요건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중앙 종무기관부터 일장서 지계를 점검하는 법회 시스템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조계종 뿐만 아니라 여타 종단도 예외일 수는 없다. 현재 각 종단 종무기관에서 포살법회를 정기적으로 봉행하는 곳은 없다. 어느 종단이든지 모든 불자들의 의무인 수계와 지계를 생활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미래사회를 이끌어 가는 불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조계종 곧 대사면

부처님오신날…멸빈자 · 정화회의 관련자 제외

조계종이 5월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사면을 실시한다.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14일 종회의장단 및 분과위원장, 호계위원, 포교원장, 교육원장, 해종특위 위원장, 집행부 부·실장 등 3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전 총무원장(원주, 의현) 시절 제작 또는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은 스님들을 초파일을 기해 종정스님께서 사면하도록 청하겠다"고 밝혔다.

고산스님은 참석자들에게 "본인의 무차화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으며, 참석자들은 대체로 사면 실시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면에서 멸빈자와 정화회의 관련 징계자는 제외된다.

간담회에서는 또 초파일 전 사면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늦어도 5월 중순 입시종회를 열어 사면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련기사 3면>

간담회 직후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이날 간담회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원장스님은 멸빈자도 구제하겠다는 마음이다. 정화회의 관계자에 대해서도 적당한 시기에 사면을 실시할 의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사면대상자는 55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의 정도(경감 또는 소멸)와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집행부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의 초파일 전 사면 실시는 고산스님이 강조해온 '무차화합'을 실현키 위한 첫 번째 가시적인 조치이다. 지난 해 종단사태 관련자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지만, 사면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예비스님들 장기기증 "참회와 성찰로써 깨끗이 갈고 닦아 청정함을 이룰 그날까지 부처님의 계법과 살아있는 수행정신으로 정진 또 정진하겠습니다." 15일 직지사에서 열린 조계종 제16기 행자교육원 회향식에서 녹원스님을 계사로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264명은 '부처 이루기'를 다짐했다. 이날 회향식 후 계를 수지한 사미·사미니 1백9명이 장기기증, 1백19명이 화장유언을 서약했다. <관련기사 23면>

도난성보 자진신고
조계종, 5월9일까지

조계종총무원 문화부(부장 양산)는 도난당한 성보문화재 실태조사를 위해 '도난성보문화재 자진신고기간'을 마련했다.

신고대상은 85년 이후 도난당한 성보이며, 기간은 5월9일까지. (02)725-1674

또 도난당한 성보문화재를 회수할 수 있도록 문화재관리국 등과 긴밀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조-태 분규 특위' 구성

총무원장 직속기구로…상시 대화창구 운영

조계종총무원(원장 고산)이 '조계-태고종 분규해결 특별추진위원회'를 총무원장 직속기구로 구성했다.

총무원은 3일 24일 종무회의에서 조-태특위를 구성키로 하고, 종회부의장 청화, 종회법제분과위원장 정휴, 종회사무처장 영배,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 재무부장 일창스님등 5인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당장은 조-태분규 해결을 위한 조계종의 방안을 태고종에 제안하기보다는 분규사항을 풀어나가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상시적인 대화창구 개설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원택스님은 또 "부처님오신날 이후 태고종과 본격적인 접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5월1일 경주서 불교예술대전

종단협주최…6월5일까지 불교문화 홍보
불교역사전 · 의식 사진전 · 영상관등 준비

한국불교예술대전이 5월1일부터 6월5일까지 36일간 경주 엑스포 행사장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와 각 정당불자회 등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1천6백년 불교예술 문화를 집대성하는 축제의 자리를 통해 새 천년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다.

행사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전시장은 5코너로 설치된다. △주제관은 예불 등 불교의식을 행할 수 있는 법당과 한국불교역사전, 사진전, 영상관으로 꾸며진다. △예술관은 불교미술 전시관과 유물관, 건축관으로 설치된다. △용품관에서는 예불용품을 비롯 일반 생활용품들을 전시판매한다. △체험관은 인간문화재관과 무술관으로 나뉘져 불교예술과 무술도 한 수씩 배울 수 있다. △전통사찰 음식관은 현대인들의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찰음식을 맛보고 조리법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경주 엑스포 행사장을 사방으로 나눠 꾸며지는 자비의 광장과 중도, 진리, 나눔의 광장에서도 독특한 행사가 연일 이어진다. 10만연등걸기, 불교사진무대, 민속놀이 마당, 이야기 불교여행 등 기획행사도 진행된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종지봉대 '공감'…명칭 '이견'

조계종-선학원 연석회의

조계종 법인대책특위(위원장 영담)와 선학원 종단현안실무위원회(위원장 성문)는 13일 조계종 종회사무처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양측간의 관계정립을 논의했다.

조계종측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의 명칭에 '대한불교조계종'을 삽입해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으로 하고, 목적조항에 조계종의 종지 종통을 봉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선학원측은 명칭변경은 대다수 본원장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조계종 종지 종통 봉대는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계종에서 법인대책위 위원장 영담스님과 종회의원 지홍, 운담, 법성스님, 선학원측에서는 종단현안 실무대책위원장 성문스님과 운성, 오철, 성우스님 등 4명씩 참석했다. 다음 회의는 선학원측이 일정을 잡아 조계종에 알려주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태고종 승정 운제스님 열반



태고종 승정 운제스님이 16일 구리 한양대병원에서 입적했다. 법랍 62세, 세수 78세.

운제스님은 37년 함경남도 석왕사에서 재순스님을 은사로, 찬종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42년 석왕사 강원 대교과와 50년 동국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60~67년 조선대 역사학과 교수와 68~87년 건국대 사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88~91년 태고종 총무원장과 92년 태고종 선암사 승가대학장을 지냈다.

91년 태고종 승정에 오른 운제스님은 96년 원효연구원을 설립, 원효학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지금까지 〈원효사상〉 〈한국의 불교사상〉 등과 '원효의 인물과 사상' '한국불교사상에 있어서 태고 보우국사의 위치' 등 상당수의 저서와 논문을 남겼다.

특히 운제스님은 조선대와 건국대 교수시절 불교학생회를 지도하고 지성인 불자들을 양성, 불교인재불사에 큰 공로를 세웠다. 서울시 교육상, 뇌허학술상, 대한교련상, 국민훈장 목련장 등을 수상한 바 있다. 18일 영결 다비식을 가졌다. <차주상보>

한명우 기자

구산선문 참선 기행

4월 : 가지산문(보림사)-운주사 · 쌍봉사

본사는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불교의 선맥을 따라 '구산선문 참선기행'을 떠납니다.

4월 첫 기행은 가지산문의 중심도량인 보림사와 와불로 유명한 운주사, 국보 철감선사부도탑이 있는 쌍봉사를 참배합니다.

구산선문에 대한 이해는 독자 여러분의 신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발: 4월 24일(토) 밤10시 · 조계사 앞
◇안내: 황호균(전남대 박물관 학예연구사)
◇회비: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후원: 한국불교연구원
협찬: 일양약품 · 대한불교제과인회



연등의 미학 장엄 팔각등

장엄 팔각등은 전통적 미와 현대적 감각을 함께 갖춘 산뜻한 색상과 편리한 사용, 견고함을 자랑하는 연등 입니다.

• 연등이 변하고 있습니다.•

장엄팔각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에 찢어지거나 장대비 속에서도 결코 찢지않고 본래의 모양을 유지합니다.●장엄 팔각등은 기존의 팔각등과는 달리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 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이 어우러진 장엄 팔각등은 선명하고 밝은 색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존 팔각등에서 볼 수 없는 특징으로 장기간 사용후 물세척으로 새 것처럼 깨끗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2/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 매 원 : 물 · 부다피아
● 납품방법 : 신청하신 곳으로 직배 · 택배 발송
※ 촛대, 등걸이, 이름표 포함

접등과 조립등은 물 · 부다피아에서만 구입 가능 합니다.

접 등

장엄팔각접등은 풀칠과 조립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한번의 동작으로 펴서 사용하고, 접어서 보관하는 팔각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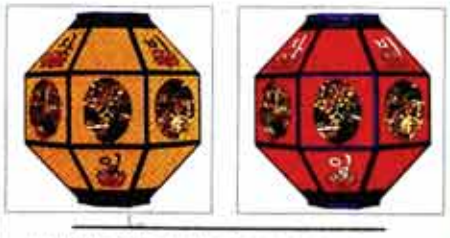
■ 팔상성도 (八相成道)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부터 열반까지의 여덟가지 중요한 중생제도를 위한 모습

①도솔래의상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모습
②비람강생상 룸비니동산에서 탄생하는 모습
③사문유관상 사방의 문으로 나가서 중생들의 고통을 관찰하 는 모습
④유성출가상 성을 넘어 출가하는 모습
⑤설산수도상 설산에서 수도하는 모습
⑥수하항마상 보리수 아래에서 마군들을 항복시키는 모습
⑦녹원전법상 녹야원에서 최초로 불법을 설하시는 모습
⑧쌍림열반상 사라쌍수 아래에서 마지막 설법을 마치시고 열반에 드시는 모습

이 연등은 기술 특허 출원 중 입니다.

· 팔상성도 장엄 팔각등(자비충만 일체법계)



· 반야심경 장엄 팔각등(만법일여 일체법계)



◆규격 : 표준 11cm
◆가격 : 2,200원

조 립 등

조립등은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보관되며 사용시 펴서 흠에 맞추어 넣는 간단한 방식으로 뛰어난 색감을 자랑합니다.

◐ 봉축 장엄팔각등



◐ 만다라 장엄 팔각등



◆규격 : 표준 11cm ◆가격 : 1,840원

사 설

화합승단으로 가는 길

조계종이 고산스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 집행부를 출범시킨지 100일이 지났지만 분규책임자에 대한 징계문제로 아직도 여진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징계대상자에 대한 폭이나 수위에 대해 졸처럼 종론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 문제는 이미 재심호계위원회에서 확정판결이 나서 법률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인구에 회자되는 것은 법률적 문제와는 관계없이 인간적인 동정과 새 집행부가 추구하는 화합과 안정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른바 정화개혁회의측 인사들에 대한 종단의 징계는 명분이나 감정상 어쩔수 없는 일일 것이다. 만천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처님 얼굴에 오물을 끼얹는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종법이 정하는 바 최고의 중형으로 징치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초심과 재심 호계위원회가 내린 징계결정은 이와 같은 불교대중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진다.

하지만 막상 징계를 결정하고 나자 "그런다고 대상자들이 스스로 가사를 벗지 않을 바에야 다른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동정론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는 어제까지 절친한 도반이었건 사람들을 내치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고민도 작용하는 것 같다. 더욱이 멸빈이라는 최고의 중징계는 수행자의 목숨줄을 끊어놓은 것이어서 안타까움은 더욱 커 보인다.

이미 징계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에서도 이 문제가 거듭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강경기류에 대한 온건기류의 의견도 만만치 않게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즈음 주목되는 움직임의 하나는 마침 새로 종정을 선출하고 그 취임을 앞둔 시점에서 이를 기회로 징계를 경감하자는 여론이다. 이는 고산 총무원장 스님이 끊임없이 '무차화합'을 강조해온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14일 있었던 총무원장이 초청한 간담회는 이런 분위기를 수면 위로 거듭 표출시킨 계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어디까지나 한가지 선결조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아무리 일불제자요 평생을 함께 해온 도반이라 하더라도 흑백이 너무나 명백한 것이므로 당사자들의 진정한 참회와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토록 엄청난 일을 벌이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상황에서 '대사면'을 논의한다는 것은 종법질서 원칙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동일 사안에 대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살인자였던 앙굴리말라도 승단에 받아들였지만 이는 그가 진정으로 참회했기 때문이었다.

허물에 대한 참회는 수행자의 도리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개전(改悛)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정화개혁회의측에 가담했던 인사들의 처신에 달려 있다. 지난해 사태에 대한 도의적, 법률적 최종책임을 지고 무조건적이며 공개적인 사과와 참회부터 먼저 해야 한다. 이것이 요즘 불교계를 관통하는 정서요, 여론이다.

정화개혁회의측 가담인사들이 조금이라도 수행자적 양심과 애종심이 있다면 이 요구를 따르는 것이 옳다. 그래야만 선처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입론(立論)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화합의 길로 나서야 할 때다.

'주제가 있는 강좌' 참여 열기

조계사 '새 천년 여는 희망의 조계사'

정토회 '현대인 위한 깨달음의 강좌'

선우도량 '근현대 불교사 바로보기 강좌'

"새로운 포교대안" 긍정적 반응



◇ 10일 열린 조계사의 '열린 강좌' 장면.

"20년 감옥살이를 하면서 사람의 모든 능력과 지혜, 자신을 지탱하는 힘도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10일 오후 2시 새 천년을 여는 희망의 조계사 첫번째 강좌 '신영복(성공회대 교수)이 들려주는 상생하는 삶 이야기' 현장. 조계사(주지 고산) 문화교육관을 가득 메운 3백여명의 불자들은 신씨의 진솔한 이야기에 연신 머리를 끄덕였다. 그 흔한 불교용어 한마디 사용하지 않았지만 가장 불교적인 내용으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조계사 열린강좌를 비롯 최근 불교사 바로보기 강좌,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 등 주제가 있는 특별강좌들이 도심 사찰과 신행 연구단체를 중심으로 속속 개설돼 변화하는 시대 새로운 포교대안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강좌들은 법회형식을 벗어나 자유롭게 진행됨과 동시에 신세대에서 청장년층에 이르는 불자들을 하나로 묶어내며 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정토회(회주 법륜)는 3월 20일부터 백일법문, 일요특별법회와 함께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종교·인류공동체·평화·문명·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를 진행중이다.

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회장 혜탐)도 9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불교사바로보기 강좌를 시작했다. 일반불자와 재가종무원, 불교사 전공자 등이 함께 모여 근현대불교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또 최근 서울법화정사(주지 도림)와 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불선원(원장 이은윤)에서는 외국인 현각스님(화계사)의 지도로 영어로 배우는 선불교 강좌를 개설, 선불교에 대한 이해와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는 영어실력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꾀하고 있다. 이밖에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20분 신영훈씨와 함께하는 인도의 사원 강좌를 열고 있으며, 중앙승가대 부설 불전국역연구원도 매주 월요일 오후 5시40분 범어인도고전신화 특별강좌를 개설했다.

이같은 다양한 주제의 강좌는 불자들이 새시대에 대비하는 전문지식과 불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이끌어 주고, 사찰의 문을 일반에까지 개방하는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지 기자 (ejlee@buddhapia.com)

기초선원 입방정원 100명으로 제한

조계종 교육원 확정

기초선원운영위원회(위원장 무여)는 10일 동화사에서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기초선원 교육생 입방정원을 1기수당 12명, 총정원 100명으로 확정했다.

또 기초선원 청규안을 마련하는 한편 입방자들의 이행서약서, 서류심사, 은사스님 추천서 등 입방심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기초선원운영위원회는 교육원과 공동으로 올 가을 교과과목 개선을 위한 공청회도 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수행을 통한 소수정예 발심납자를 집중 양성할 것을 결의했다. 이은자 기자

정영스님 멸빈 확정

조계종 재심호계원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월서)은 14일 13차 심판부를 열어 해종특위의 제소로 초심호계원에서 멸빈의 징계를 받은 정영스님(정화회의 총무원장)에 대해 멸빈의 징계를 확정했다. 재심호계원은 또 각운, 현수, 상덕, 대우, 도각, 덕륜, 법열, 덕수스님에 대해서는 제적을 결정했다. 혜총스님과 혜인스님에 대해서는 판결보류 및 심리연기했다. 정성운 기자

신도증 소지자 공원 무료입장 조계종-관리공단 다시 마찰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의 국립공원 관람료 사찰 무료 입장 범위를 둘러싸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조계종간에 다시 마찰이 일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9일 각 지소장에게 보낸 '신도증 소지자 관리방안 시달' 제하의 업무연락문을 통해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15조 4항 제8호)에 따라 신도증 소지자의 관람료 사찰 무료입장은 당해 사찰을 출입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측은 "신도증 소지자의 관람료 사찰 무료입장은 입법 취지상 당해 사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모든 관람료 사찰에 적용돼야 한다"며 "공단측의 입장은 잘못된 유권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조계종 총무원과 각 사찰의 항의가 계속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공단의 한 관계자는 "조계종이 신도증 소지자의 무료입장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올 경우 환경부 법무담당관실에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5월중 8개교구 보궐선거

조계종 중앙선관위

조계종 중앙선관위(위원장 덕운)는 12일 회의를 열고 종회의원이 보궐상태인 법주사 등 8개 교구의 보궐선거를 5월 [illegible]일 이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교구선관위에 권고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27일 동시 실시가 어려울 경우 교구에 따라 17~27일 사이 실시를 권유하기로 하고 해당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정화개혁회의 관련 종회의원의 사표수리로 공석이 돼 보궐선거를 실시할 8개 교구는 5교구 법주사, 7교구 수덕사, 9교구 동화사, 11교구 불국사, 14교구 범어사, 15교구 통도사, 17교구 금산사, 23교구 관음사 등이다. 정성운 기자

'수행방법론' 공개 토론

강원연합, 7월경 개최

전국전통강원연합(의장 덕암)은 16일 조계종 불교회관 1층에서 제1기 제2차 대의원 상견례 및 회의를 열고 오는 7월경 '수행방법론'에 대한 특강 형식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강원연합은 교육부장, 교육국장과의 대담을 통해 강원 인원 제한문제와 사미·사미니 의제문제, 강원 재정 지원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강원인원 제한문제에 대해 교육원은 "전국 강원에 학인이 고루 입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강원을 1개소 정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필선 기자

'개중들' 표현한 시인 교계 신문사에 사과

〈조선일보 워싱턴〉에 '개중들'이란 제목의 시를 게재해 교포불자들의 항의를 받은 시인 김선현씨가 최근 교계 신문사에 사과문을 보내왔다.

김씨는 사과문에서 "비록 제목의 뜻(가짜라는 의미의 '개')이 우리 사회에서 쓰는 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불자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 잘못을 사죄한다"며 "불교의 거듭남을 독촉하고 발전을 기원하면서 쓴 시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재경 기자

'인가 불교대학 관리세칙' 마련

조계종 포교원, 불교대 대표자회의서 공개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15일 포교원 2층 강당에서 열린 종단등록 불교대학 대표자회의에서 〈인가 불교대학 관리에 관한 세칙〉(제정안)을 공개했다.

신도교육체계 정립에 따른 불교대학의 위상과 단계(6개월미만, 1년, 2년과정)를 구분, 불교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 규정은 올 상반기안에 신도교육법 제정과 연관해 불교대학의 성격과 세부사항을 최종적으로 보완·확정할 계획이다.

이 안에 따르면 '인가 불교대학'이란 종단에 등록된 불교대학(현재 55개) 중 등록후 2년이 경과하고 인가 신청기준에 적합한 학제 2년이상의 전문(신도)교육기관을 말한다.

인가기준은 △2년 이상(240시간)의 학제 △기초 및 필수 교과목(불교교학, 불교사, 불교응용학, 수행 및 의식) 총 120시간 이상 △스님 3인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2인 이상 △입학정원 70명 이상 △30평 이상의 강의실 △조계종 소속 스님이 대표자일 것 등이다.

김재경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봉 불기 2543('99)년 부처님 오신날 주요일정 축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집행처
중요행사	1.연등축제	2543('99)5.16(일)오전 10시~10시	우정국로, 동대문운동장→종로→조계사	봉축위원회
	2.봉축 법요식	2543('99)5.22(토)오전 10시	조계사	봉축위원회/조계사
	3.시청앞 점등식	2543('99)5.12(수)오후 7시	시청앞 광장	봉축위원회
	4.애기봉 OP 점등식	2543('99)4.22(목)오후 6시 30분	애기봉 OP	봉축위원회/해병청룡사
	5.발심정진주간	2543('99)5.16~5.22	각 사찰, 단체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집행처	비고
경축행사	1.꽃꽂이 전시회	4.22 ~ 4.23	로얄호텔2층 에메랄드룸	한국불교꽃예술회	771-4500
	2.부모은중송	4.30 ~ 5.1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관현악단	2273-0237
	3.봉축 '수행목공예품전'	5.2 ~ 5.11	응진갤러리	육환장연구원	0584-653-6788
	4.제11회 연꽃노래잔치	4.18(예선) 5.2(본선)	불교문화교육관 동국대중강당	서울불교청년회	730-9108
	5.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	5.5(수) 10:00	봉은사	월간 '불광' 목아불교박물관	420-3300
	6.봉축 기념 연주회	5.6(목) 19:00	국립극장 소극장	대한불교 어린이합창단	725-7527
	7.동국문화 예술제	5.6(목)19:00~21:00	동국대 문화예술극장	동국대 문화예술대학	2260-3606
	8.불학연구소 학술세미나	5.7(금)10:00~17:00	중앙승가대학정진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732-4923~4
	9.재가불자 심포지움	5.7(금)18:00	조계사 문화교육관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	725-6231
	10.우리 옷 바자회	5.8~5.16	조계사내	조계사	732-2183
	11.전국 청소년 사경공모전	5.9(일)14:00	조계사내	파라미타/전국교법사단	723-6165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집행처	비고
경축행사	12.참나를 찾는 청소년·어린이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	5.9.(일) 10:00	노원구 서천사	수덕사서울포교원 서천사	682-5055
	13.제3회 불교사경대회	5.9~5.10	미정(서울·지방)	동방연서회	733-0131
	14.봉축 기념 사진전	5.15~5.22	조계사내	대한민국 불교사진연합회	2266-0302
	15.제1회 인권문화제	5.19(수)19:00	조계사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725-4277
	16.열기구 축제	5.21~5.22	여의도 고수부지	중앙신도회	733-7277
	17.봉축기념 토론회	5.20(목)15:00	조계사 문화교육관	민족화합 불교추진위	733-2557
	18.안숙선판소리 '부처님 일대기'	5.2(일)	도 안 사	도안사	0334-676-8700
	19.봉축기념 학술대회	5.31(월)	불교회관 1층	한국교수 불자 연합회	720-6618
	20.제12회 청소년 종합예술경연대회	5.30(일)14:00~18:00	동국대 중강당	청소년 교화 연합회	735-8165
	21.불교무용단 창단 공연 '넋의 소리'	6.3~6.4	동국대 문화예술극장	손재현 무용단	2260-3420
	22.전통등 전시회	5.7~5.16/5.17~5.22	인천신세계백화점 서울시내사찰	전통등연구회	723-0306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집행처	비고
자비의 손길	1.제1회 장애인 불교성지순례	4.14	여주 신륵사	사회복지재단	723-5101
	2.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4.18	서울랜드	원심회	720-4528
	3.자비의 헌혈운동	5.1~5.31	조계사내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723-6165
	4.노인재소자 위안잔치	5.7 11:00	청송교도소	백련장학회	322-3526
	5.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등을 밝히는 작은 마당	5.9	서울역	대학생불교연합	732-0239
	6.자비의 등 밝히기	5.3~5.22	장충공원	우리는 선우	2278-8672
	7.군장병불자 위문품보내기	5.15 전후	각 군부대	군불교진흥회	749-5135
	8.화장유언서약 및 생명나눔캠페인	5.16	제등행렬구간	생명나눔실천회	734-8050
	9.무차연등회 및 영산대제	5.17~5.22	탑골공원	불교자원 봉사자연합회	723-6258
	10.결식아동돕기 작은음악회	5.17~5.22	탑골공원	불교자원 봉사자연합회	723-6258
	11.장애인 나들이	5.30(일)	장충공원	우리는 선우	2278-8672
	12.수화 찬불가발표회	5.30(일)	불교방송 3층법당	광림사 연화복지학원	2202-583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장 고 산

매각은 파산…"묘안찾자"

부도위기 불교TV 어찌되나

새 경영자 3명 물망…부채 70억 해결 '주목'

조계종, 國銀에 성업공사 이관 연기 요청

불교TV(사장 신허스님)가 3월부터 주주총회, 이사회, 조계종 중앙종회 btn 특위 활동 등 부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불교TV의 금융 채권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은행측이 늦어도 20일까지는 채무와 관련된 서류를 성업공사로 이관시킬 예정이어서 부도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불교TV는 15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제26회 임시 이사회를 열고 새 경영자를 선임키로 한 가운데 3명이 새롭게 거론되고 있어 회생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또 13일 사의를 표명한 대표이사 신허스님의 사표는 상법상의 절차를 밟을 때까지 유보키로 했다.

■경영권의 향방

13일 대표이사 신허스님이 공식 사퇴의사를 밝힌 가운데 15일 현재 새 경영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사람은 스님 1명과 재가불자 실업인 2명. 15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영숙이사의 추천으로 대표이사 후보에 올라 있는 모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불교TV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부산의 모 실업인은 70억원의 부채 해결은 물론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영에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 청주의 모 실업인은 70억원의 부채 해결과 함께 3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계종과의 관계 모색

불교TV 회장 태응스님은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종단이 불교TV를 인수한다면 현재 갖고 있는 통도사 지분을 양도할 생각도 있다고 밝혀 종단의 지원만이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은 두차례에 걸쳐 방문한 신허스님을 통해 예산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자본 지원은 어렵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해 종단의 인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불교TV 이사들은 17일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을 방문해 새 경영진 추천을 요구하기로 했다.

■조계종 btn특위 활동

7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조계종 중앙종회 btn 특위는 세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불교TV의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14일에는 특위 위원스님들이 불교TV를 방문해 실사에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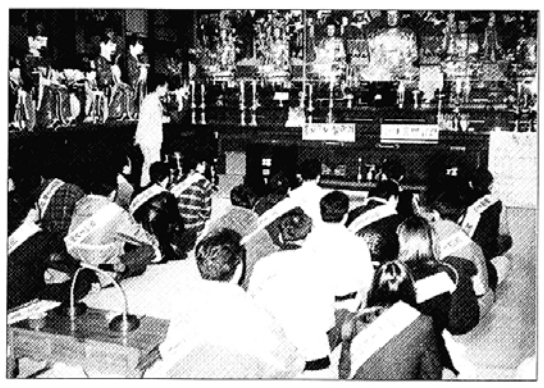
또 이날에는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을 찾아가 성업공사의 금융부채 인수 시기 등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효과를 얻지 못했다. 현재 불교TV의 상황은 급박하다.

20일까지 21억원의 금융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성업공사로 이관돼 공개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최악의 경우 파산의 상황까지도 예상된다. 이런 현실에서 대안 제시는 하지 못한채 단순히 현황보고를 듣는 것만 되풀이 하기에는 불교TV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한편 불교TV 노조는 14일 조계사 덕왕전에서 불교TV를 살리기 위한 각계의 노력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국민은행이 20일 이전에 채무관련 서류를 성업공사로 넘길 예정이어서 불교TV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7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새 경영자가 나올 경우 극적인 위기 탈출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15일 열린 이사회(사진 위)에서는 새 경영자 영입 가능성을 밝혔다. 불교TV노조는 14일부터 불교TV를 살리기 위한 각계의 노력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사진 아래)

조계종 사면 절차

90년대 세차례 실시

총무원장 제청→종회동의→종정재가

사면은 종헌·종법상 종정이 실시한다. 그러나 사면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총무원장이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종정에게 품신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

사면과 관련된 종헌·종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종정은 종헌·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과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할 수 있다.(종헌 23조) △총무원장은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 및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을 종정에게 품신할 수 있다.(종헌 54조 ⑨) △중앙종회는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동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중앙종회법 2조 15)

사면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행했다. 94년 5월 개혁회의 3차 회의에서 공권정지 중에 있던 초우, 밀운스님을 사면했고, 제적됐던 송원스님을 공권정지 6개월로 경감했다.

95년 6월에는 사면 17, 복권 1, 경감 15명 등 33명의 스님에게 사면조치를 취했다. 96년 4월에도 13명의 스님을 사면했다.

84년에는 80년 10·27법난에 관련돼 초심호계원에서 멸빈 및 제적의 징계를 받은 14명에 대해 사면을 실시했다. 정성운 기자

"종단불사 원만회향"

조계종 분담금특위 첫모임

조계종의 '분담금 조정을 위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분담금특위, 위원장 지명)가 첫 번째 모임에서 세입원 확보 방안 마련에 논의를 집중시켰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종단의 중요 시설 건립의 원만한 회향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실태조사를 통해 분담금 책정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높이자는 것도 특위의 중요 사안이다.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가 함께 참여하는 분담금특위는 13일 간담회를 갖고 중앙종무기관의 새로운 세입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 본사 소속 산내 암자와 유명기도사찰 등을 대상으로 실사작업을 거쳐 분담금을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분담금 특별위원회의 이같은 입장은 승가대 김포학사 신축 자금과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비등 종단의 대형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올해와 내년에 새로 항목을 설정해 지출해야 할 액수만도 올해 예산을 넘는다. 우선 중앙승가대에 2백50억원이 들어가야 한다. 또 올해 착공해 2001년 완공 목표인 청사 신축에도 1백80억원이 들어가야 한다.

기도사찰 분담금 등 세입원 확보안 골몰

분담금 특별위원회는 또 실태파악 대상 사찰을 24개 교구 본사를 비롯해 관람료 사찰과 특별분담금 사찰, 직영사찰, 직할사찰로 정하고 해당 사찰에 대한 의견수렴과 지난 2년간의 결산내용을 근거로 분담금 비율을 정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실사를 통해 조정작업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계종 분담금 특별위원회는 이와 함께 특위 간사에 총무원 재무부장 일철스님과 종회 재정분과위 간사 종삼스님을 잠정 선출하고 다음 전체회의에서 추인받기로 하는 한편 차기 회의는 위원장단에 일임했다.

분담금특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성원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하고 간담회로 진행했다. 위원 25명 가운데 12명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남북 최고위급 만남…결실 기대

북경 남·북·일 종교인평화모임 의의

고산스님 KCRP 회장자격 참석

동북아 평화실천 계획-선언문 나올듯

25~27일 북경에서 열리는 남·북·일 종교인 평화모임에서 남북종교인을 대표하는 최고위 인사의 회동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후 남북종교인 교류가 한단계 진전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가 공동주최하는 종교인 북경 평화모임(25~27일)에서 남북한 종교를 대표하는 최고위급 회동이 이뤄진다.〈북경 평화모임 본지 216호 1면 참조〉

조계종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14일 "종교인 북경 평화모임에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KCRP회장 자격으로 참석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모임에 북한종교 협의체인 조선종교인협의회 장재언 회장이 참석하게 됨에 따라 남북한의 종교계를 대표하는 종교인의 만남이 이뤄진다. 북한불교 대표로 조선불교도연맹의 위원장급 인사가 참석한다. KCRP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6개 종교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 고산스님과 장재언회장은 남북한 종교인을 대표해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실천계획'과 '북경선언문'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더구나 남북종교인 협의체 대표들의 합의가 성사될 경우 협의체 가입 교단에 규정력을 미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북경 평화모임은 세미나와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실천계획'과 '북경선언문'을 발표한다는 일정이 잡혀 있어 단순한 회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실천계획과 북경선언문 발표를 위해 이미 남·북·일 실무자들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3자 실무자들은 북경모임 이틀째를 '실천계획' 도출을 위한 일정으로 잡았다. 두 차례의 토론과 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가 열린다.

실천계획과 선언문 내용은 합의에 이르기까지 발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KCRP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매우 진전된 내용이 담길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 모임에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이 참석함으로써 남북불교교류와 관련, 이후 조계종 중심으로 힘의 균형이 잡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고침 본지 218호 3면 '봉축 주요 행사' 가운데 일부 행사의 장소는 다음과 같기에 바로잡습니다. 봉축기념 토론회(민족화합불교추진위 주최)-조계사 문화교육관, 안숙선 판소리 '부처님 일대기'-도안사, 봉축기념 학술대회(교수불자연합회)-불교회관 1층, 청소년 종합예술경연대회(청교련)-동국대 중강당, 불교무용단 '넋의 소리'(손재현 무용단)-동국대 문화예술극장.

목어

방송인 서세원

우리는 지금 다채널방송사회에 살고 있어서 시청자의 선택권을 한껏 보장받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를 못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종교방송이 아닌 공영방송이 특정 종교방송처럼 프로를 편성하거나 진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공영방송에서의 이러한 태도는 시청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독선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4월 10일에 방영된 서울방송의 '서세원의 즐은 세상 만들기'가 그런 예라 하겠다. 서씨는 프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 '할렐루야'를 연발하였고 심지어는 방청객들까지도 '아멘'을 연발토록 유도하고 있어서 마치 기독교방송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사실 그날의 서씨의 프로진행태도는 어쩌다 있는 실수가 아니라 실수를 가장한 고도의 전술이라 생각된다.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이었으니 거기에는 진행자, 연출가, 카메라맨이 합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사실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들의 지나친 종교 편향적인 태도는 과거에서부터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뿐이다.

저들은 평범한 사람 백명을 선교하는 것보다 유명인사 한 사람을 선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해 왔는데,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의 방송에서의 말 한마디는 그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이따금 방송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그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보면 그들의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 자체가 불교인으로서 못난 소리일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도 하면 그만일 터이니 말이다.

하지만 불교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과연 저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 아마도 불교신자가 노골적으로 불교 편향적인 진행을 하였다면 벌써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불교인들은 그 점에 대하여 크게 개의치 않고 있으니 그 점 역시 문제인 것이다.

불자들의 무관심한 태도를 넓고 넓은 자비심에서 나온 관용이라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무감각해진 탓이라 할 것인가?

성열(본지논설위원·강남포교원장)

참배움 참실천

불교복지보건대학 신입생 모집

·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함께하는 세상을 향한 불교의 참된 사회적 회향은 전문적인 교육이수와 아낌없는 실천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한 건강기법과 이웃에게 봉사하는 진정한 보살행을 통해 삶의 가치와 행복의 길을 찾으십시오.

♣ 개강일 : 1999년 4월 30일 ♣ 원서마감일 : 1999년 5월 4일

개설과정	과 목	교 육 내 용	학사일정	강의시간	특 전
복지자비 포교사과정 (호스피스) (1년) 150시간 강의	필 수 (포교사 기본)	불교기본교리(초발심) / 불교문화사 / 불교예절 / 비교종교론 / 현대포교론	1학기 4월 30일 ~ 7월 23일(3개월) 2학기 9월 7일 ~ 12월 7일(3개월)	매주 화·금 저녁 6시 50분 ~ 9시 40분	▶ 수료증 및 단원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시험 추천 ▶ 불교호스피스 및 자원봉사팀장 자격부여 ▶ 복지, 보건, 상담, 염불 : 포교활동 지원 ▶ 복지시설, 건강관련 업종 취업 및 강사활동 지원 ▶ 포교원 개설, 운영시 관련분야 지원 ▶ 본교 특강 개설시 특별우대
	전 공 (복지)	불교정신보건실천론 / 자원봉사론 / 복지실천론 / 불교사회복지론			
	전 공 (호스피스)	상담심리이론 / 상담기법 / 인간관계 훈련 I / 심신이완요법(발반사요법) / 스트레스 관리 / 신경선질환관리 / 인간관계 훈련 II / 심성개발 및 마음 관리 / 임종관리 / 영적관리			
	특 강 I	불교의식(장엄봉사) : 32시간	5월 12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50분~8시 40분	
	특 강 II	고려수지침(염파요법) / 생활기공 및 대체요법(마음다스리기) / 정신세계 문화강좌	99년 7월·8월·12월 2000년 1월		
불교 간병 봉사자과정 (간병인) (2개월) 51시간 강의	개강식 / 건강과 질병 / 만성질환과 간호 / 노인간호 / 건강증진법 / 환자식사와 영양 / 누워있는 환자간호 / 운동요법 / 말기환자 및 통증관리 / 한방간호 및 각종 대체요법 / 경락이론 / 응급처치 / 산모간호 및 AIDS / 임종간호 및 영적간호 / 자원봉사자 정신교육 / 수료식		1999년 1차 5월 4일~6월 29일 (2개월) 1999년 2차 9월 7일~11월 9일 (2개월)	매주 화·금 오후 2시~5시	▶ 수료증 및 단원증 수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과정 수료증 수여 (대한적십자사) ▶ 유급·무급 간병봉사자 활동 지원(유료 활동 가능) ▶ 각종 건강정보 및 복지 정보 제공 ▶ 본교 특강 개설시 특별우대

불교복지보건대학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47-18 건축사협회 B/D 6F
■문의 : 051)647-6556, 7 ■팩스 : 051)647-6554

명예학장 성오스님(범어사 주지·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회장)
학 장 혜도스님(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본교 임원 및 교수진(무순)

	성 명	비 고
1	성오스님	본교명예학장,범어사주지, 조계종 부산, 경남포교지단장
2	혜도스님	본교학장,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3	정여스님	보현선원 선원장
4	능행스님	지장정사, 충북자원봉사교육원장
5	김 기 태	부산대교수 : 한국사회복지학회회장
6	류 기 형	부산대교수 : 사회복지학과장
7	최 송 식	경성대교수 : 사회복지학과장
8	강 동 균	동아대학교 교수
9	곽 만 연	동아대학교 교수
10	안 창 범	동의대학교수 : 한의과대학학장
11	오 양 효	부산의대표수 : 부산불교의사회고문
12	백 승 완	부산의대교수·부산대학병원 불자의사회회장
13	이 회 백	춘해대학교수·상담심리학 과장
14	유 태 우	고려수지침요법학회 회장
15	박 욱 규	동아대학교병원 : 건강증진센타과장, 연불회회장
16	진 성 태	진신경정신과의원장·부산불교의사회회장
17	선과법사	조계종 법사
18	박 규 일	해동고등학교 교사, 조계종 포교사
19	배 석 주	대한적십자사수석사범
20	권 봉 숙	대동대학 간호학교수
21	김 향 미	춘해대학 간호학교수
22	최 송 실	춘해대학 간호학교수
23	홍 순 탁	동의한방병원 간호감독, 춘해대학겸임교수
24	김 정 자	본교교무과장 : 전임강사(전, 부산대학병원)
25	천 순 기	본교교학과장 : 전임강사(전, 부산대학병원)
26	황보 선	본교부학장 : 전, 부산의대간호대학교수 현, 명예교수



◇신흥사 회주 오현스님(사진 오른쪽)은 지난 10일 속초 청호동성당에서 열린 7개성당 연합미사에서 설법을 했다. 설법에 앞서 지흥스님(낙산사 주지)이 약력소개를 하고 있다.

아름다운 종교의 만남

신흥사 오현스님 속초 성당서 설법

가톨릭 신자 불교노인 요양원 후원

가톨릭 신자들이 불교계서 운영하는 노인 요양원의 후원자가 되어주고, 또 스님이 성당 강론시간에 설법을 해주는 아름답고 성스러운 종교만남이 강원도 속초에서 이루어졌다.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4월10일 토요일 저녁 7시30분, 속초 청호동성당 입구에는 "대한불교조계종 3교구 신흥사 회주 무산 오현 큰스님 초청 설법"이라는 현수막이 신자들을 맞이했다.

이날은 영북지역사제단이 특별히 오현스님을 초청해 이지역 7개성당의 연합미사였고 3백여 신도들이 성당안을 꽉 메웠다.

시조시인으로 또 만해사상선양을 위해 애쓰는 스님으로 더 잘알려진 오현스님은 숨죽이고 시선을 집중하는 이교도 대중들을 향해 "나는 큰스님도 아니고 설법을 잘 하지도 않는 그저 평범한 수행자입니다. 그런데 이곳 시내에 와서 이렇게 설법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화가나서 왔습니다"고 말문을 열어 어리둥절하게 했다.

이어 스님은 "1달전 반야요양원을 하고 있는 홍구스님이 왔길래 운영은 잘되느냐고 물었더니, 뜻밖에도 불자들보다 천주교인들이 더많이 후원하고 있다는 답을 하는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거 내가 불자들을 잘못 교화했구나. 즉 내가 중노릇을 잘못했구나'하는 생각이든 것입니다. 그러니 화가난 것은 불자탓도 신부님탓도 여러분탓도 아니라 내가 잘못살았다는 그것입니다"고 말했다.

이날 법문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효도를 잘하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주제로 불자가정과 가톨릭가정의 일상생활속에서 일어난 일을 예로 들면서 비결까지 제시했다.

특히 "불교적 사상으로 보면 잘난사람 못난사람이 없이 다 똑같고, 크고 작은 것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닌데 괜스레 스스로 비교하다보니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다만 성자와 보통사람의 차이는 실천하는 삶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잘 듣고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그런 바탕입니다"는 사람차별 말라는 대목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1시간여 설법이 끝나고, 강성구 청호동 성당주임신부는 "세속의 삶으로 부족한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다"며 오현스님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증정했다. 〈속초=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도시·농촌·자연 함께 살아야죠"

불교 도농 공동체 준비위장 원혜스님



"물질문명 팽배와 도시산업화로 소비지양적 삶이 계속되다보니 환경과 식량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불교의 가르침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9일 도시와 농촌을 잇는 '불교 도농공동체' 준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위원장을 맡은 원혜스님(봉은사 주지)은 생명존중사상과 친환경적 세계관을 지닌 불교의 가르침을 통한 '도농공동체 운동'이 활발히 펼쳐질 수 있도록 밑거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7월 중순경 창립대회를 가질 예정인 '불교 도농공동체'는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불교귀농학교'와 올 3월 첫 발을 디딘 '불교생협학교'를 함께 아우르는 생명과 농업을 살리자는 운동.

사찰을 중심으로 한 생태마을이 형성된다면 포교에도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원혜스님은 무엇보다도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교차로

길상시서 알뜰시장 열어



법정 길상사 회주는 18일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맑고 향기롭게 알뜰시장을 열고, 일요법회에서 법문했다.



26일부터 7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실직자를 위한 참사람 수행결사'를 진행한다.

(0685)92-75-02

7포병여단 군법당 기공



밀운 '7포병여단 군법당 불사추진위원장' 스님(봉선사 주지)은 14일 육군 3사단 7포병여단에서 조립식 군법당 표준모델 1호인 호국월문사 법당 기공식을 거행했다. 사무실과 다용도실을 갖춘 건평 80여평의 이 법당은 2백여명 수용 규모의 여단 및 대대급 군법당으로 사용된다.

강북복지관 개관 1돌 법회



혜창 서울 강북장애인복지관은 17일 복지관 개관 1주년 기념법회 및 주민잔치를 개최했다.

'백양사서 실직자 수행결사

다정 장성 백양사 주지는



원행 등 해 삼화사 주지는 24일 오전 10시 비로전·극락전 신축준공식 및 법당후불탱화 점안식을 가진 후 제2회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화합 기원 대법회를 봉행한다.

청소년 수련시설 협회장에

선진규 봉화산청소년수련원



장(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은 9일 서울 한일관에서 열린 '한국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자 협회' 임시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됐다.

경주 서천서 호국영령천도



김재웅 금강경독송회 지도법사는 18일 임진왜란 의병 발원지인 경주시 서천지역에서 1천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호국영령천도 대법회를 봉행했다.

3사관학교 군승후보생 입교식



이희용 군승단장은 24일 영천 3사관학교에서 군승후보생 교육 입교식을 갖는다.

'먹거리와 건강' 주제 특강



김경제 동국대 교수(식물자원학)는 28일 동국대 90주년 기념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먹거리와 건강'을 주제로 특강(사회교육원 주최)한다.

동국대 인사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는 최근 전자계산원장에 송재운 교수(윤리문화학과·사진 왼쪽), 한의학연구소장에 최달영 교수(한의학과), 신설된 매장문화재연구소장에 한병삼 교수(사학과 석좌교수·사진 오른쪽), 매장문화재연구소 부소장에 안재호 교수(고고미술사학과)를 각각 임명했다.



고산스님 이회창 총재와 환담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은 15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이날 고산스님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에 앞서 자기를 비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하심(下心)과 초발심의 정신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도록 스님들의 충언을 겸허히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생명 나눔실천회 창립 5돌 행사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13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창립 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자광(김용사 주지) 성운(삼천사 주지) 광우(전국비구니회 회장) 진관(진관사 주지)스님 등 생명나눔실천회 부이사장 및 이사진과 원택(조계종 총무부장)스님, 김성호(同회 후원회장) 이은윤(중앙일보 기자)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원효, 그 위대한 생애' 출판기념회

원효사상전집 전7권 제1권 〈원효, 그 위대한 생애〉(불교춘추사 刊) 출판기념회가 10일 서울 마포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법회에는 법흥스님(원효종 종정), 석주스님(조계종 원로의원), 홍파스님(관음종 총무원장), 원택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을 비롯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공종원 前 조선일보 논설위원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 축하했다.



조계종 전국신도회 사무실 현판

조계종 전국신도회(회장 선진규)는 10일 오후 서울 안국동 웅전갤러리 빌딩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선진규 회장을 비롯 정인악 김성호 황석동 권영창 배관성 한재영 임선교 이순덕 김대중 한리우 손안식 배조웅 문윤숙 원숙경 전병오 이선희 부회장과 김재일 사무총장 등 전국신도회 임원진이 참석했다.

"대학인 자기변화 대학발전 열쇠"

'대학과 대학인' 펴낸

위덕대 손제석 총장



"대학 변화는 대학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대학인의 자기변화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각종립 위덕대학교 손제석 총장의 대학론이다.

고등교육에 남다른 원력을 갖고 있는 손 총장이 한국 대학교육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 〈대학과 대학인〉(위덕대학교 출판부)을 펴냈다. 평생 대학강단에 선 식견과 교육행정 최고책임자(27대 문교부장관)을 역임한 경륜을 토대로 손 총장은 위덕대학교 개교와 경영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모든 대학인들의 참여와 협조없이 좋은 대학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책에 담긴 철학은 바로 이러한 모든 대학인들의 자기쇄신과 상호의존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손 총장은 대학총장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책 중 하나"라고 꼬집는다. 교직원들에게는 좋은 동료, 대학생들에게는 친한 친구, 졸업생들에게는 좋은 동문이 되어야 하고 대중들에게는 뛰어난 웅변가, 정부에게는 훌륭한 협상가, 모금에는 걸출한 외교가, 지역사회에는 훌륭한 봉사자, 전공분야에서는 반반한 학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과 대학인〉은 위덕대학교라는 '창(窓)'을 통해 한국 대학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논하고 21세기를 지향하는 대학 일반의 이상과 현실을 담아내고 있다.

김종근 기자

'99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40명 ■야간40명 ■통신40명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40명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30명 ■통신40명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20명		
중국어과	2년	■주간40명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통신20명		

2.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1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 야간 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 1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 1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32명 취득
94.11 본교학생 183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분교체결
95.11 본교학생 1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 18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0명 자격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2명 자격취득(위탁교육 수료후)
99.2 제 8회 졸업생 배출예정
99.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22명 자격취득 예정

3.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4.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9년 4월 28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5.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홈페이지:WWW.Buddhapia.Co.Kr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만 60세까지)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졸업 후 중앙승가대학 입학 가능 방송대학 입학 가능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1999년 4월 28일까지
■ 문의처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02)511-2026~8, FAX : 02)511-1080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중국최고국립한학대학 ◈

남경중의약대학 학생모집

1.모집학과 (석사·박사과정 약간명 모집)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외 예 과	5년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양생강복학과	5년	◇전문대,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약 학 과	4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제약학과	4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약리학과	5년	◇ 건강진단서 1통
침구학과	5년	◇ 보증서 1통
추나학과	3년	◇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
간호학과	2년	◇ 여권용사진 3매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0, 제약약연구소 등 완비
▶ 외국인을 위한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 주 소:中國 南京 韓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 화 : 25-6798171 팩스 : 25-6798168

한국상담처 ☎ (02)511-2026~8

직장불자회 소식지로 포교

10여곳서 발행…친목교류·회원확보 큰 도움

한전반야회 홈페이지 운영

직장직능 불자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들이 당회 홍보는 물론 회원 배가에 톡톡히 한몫 하고 있다.

현재 소식지를 펴내고 있는 직장직능불자회는 부산불교청년산악회, 부산경남연등회,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등 10여곳. 한전반야회는 홈페이지로 소식지를 대신하고 있다.

소식지는 대부분 활동보고 및 회원근황, 큰스님 법어, 부처님말씀 등과 사진을 곁들여 불자회를 소개하고 있다. 작게는 8쪽에서 소설집 1권 분량에 달하는 300쪽 안팎까지 다양하다.

이같은 소식지는 불자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회원 수를 배가하는 효과가 뛰어나 불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있다. 회원간 친목교류는 물론 회원간 업종 광고 및 영업전략에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지난해 10월 창립한 부산불교청년산악회(회장 김정관)는 〈청산에 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소식지 발간이래 회원 수가 60여명에서 1백1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따라 부산불교청년산악회는 '청산에 드는 사람들'을 계간지로 정례화하고 A4크기 8면으로 발행하던 것을 수첩크기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직장직능불자회 소식지.

사내(社內)에 홈페이지를 개설, LAN을 통해 900여개 전국사업소에 불자회를 홍보하고 있는 한전반야회(회장 김영창)는 홈페이지 개설이후 2백여명의 회원이 추가가입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 한전반야회 홈페이지는 반야회 안내, 알림방, 불교공부방, 자료방, 대화방 등 5개 영역으로 운영된다.

한전반야회 이순형 사무국장(원자력건설처 계측제어팀 부장)은 "하루 평균 20~30여명이 방문하는 반야회홈페이지는 반야회 활동을 대외적으로 알려 '심증적 불자'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젊은 불자직원들의 포교전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전반야회는 동화상 법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경남연등회(회장 사상호)도 지난해 11월부터 〈새 연등〉을 발간, 실직자 쉼터운영 및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활동을 알리고 의원불자들의 신행활동을 이끌어 회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10년전부터 1년에 두번 기관지 〈실상문학〉을 발간하고 있는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최낙현)는 불자문인들에 한정하지 않고 타종교 문인들의 작품을 〈실상문학〉에 실어 정서적 교감을 갖는등 타종교 문인들까지 회원으로 등록하고 있다.

이밖에도 붓다제주중앙클럽, 금강메아리산악회, 충북예비역불자회 등이 소식지를 홍보와 회원배가에 활용하고 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해제날 길 떠나며 "성불하십시오"

지허스님의 선방일기 ⑮·〈끝〉

〈지난 호에 이어〉

"물론이지요. 인간은 초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성될 수 있고 인간의 조건은 조화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인간의 완성을 위해 선(禪)을 내세웠고 인간은 선을 통하여 완성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선은 신비가 아니고 절대자의 조종을 받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인간완성을 위한 길입니다. 즉 열반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인간완성을 열반에 귀결시키는데 그렇다면 열반은 현실태(現實態)입니까? 가능태(可能態)입니까?"

"실존주의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현실태(現實態)로 있는 것이지 가능태(可能態)로 있는 것은 없다' 즉 일원론적인 현상인 현실 밖에 없다고 하면서 현상 뒤의 어떤 실재, 어떤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것은 잠꼬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인간이 완성될 수 있는 길을 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의 함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생명이 단절된 죽음의 저편에 따로 존재하는 세계를 말함이 아니고 부조리하고 무분별한 실재(백팔번뇌)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조화시킨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無)의 인식에서 반야를 밝히는 힘이 열반인 것입니다. 이 무여열반(無餘涅槃)은 아집의 색상(色相)에서 해방된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제(眞諦)는 열반이고 속제(俗諦)는 유무(有無)입니다. 유무에 얽매임은 현실적인 생사이나, 열반에 들어옴은 영겁에 의해 해탈된 것입니다. '열반이란 신(神)없는 신의 세계이며 시여(施與)함이 없는 신의 시여'라고 하일러는 말했습니다. 신없는 세계의 신, 이것은 곧 완성된 인간을 의미함이요, 주는 자 없이 주어지는 것은 완성된 인간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완성된 인간이 곧 신이 아닐까요.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 가능했던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신이 창조되고 군림했던 게 아닐까요?"

"전지전능하다는 신을 동경하고 메시아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시일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인간은 자유없는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절대자의 괴뢰, 신의 노예, 그러한 천국이 있다면 나는 차라리 고통스러워도 자유로운 지옥을 택하겠습니다. 그러한 극락이 있다면 나는 차라리 도망쳐 나와 끝없는 업고의 길을 배회하렵니다."

"극히 인간적이군요."

"불교인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衆生)으로 시작해서 인간(道人)으로 끝납니다. 부조리한 백팔번뇌의 인간이 조화된 열반에 이르기 까지의 길을 닦아놓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불교니까요."

"좀 더 화두에 충실해야 하겠군요."

"그렇지요. 순간의 생명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어찌 순간인들 화두를 놓을 수가 있습니까. 화두를 놓으면 중생이요, 화두를 잡고 있는 한 열반의 길에 서 있는데…."

저녁 공양을 알리는 목탁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일어섰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다. 천천히 걸어가지만 선객은 내심 그렇게도 무서운 절박감 속에서 살아간다.

■1월15일 회자정리

해제날이다. 새벽 두시다. 모두들 들뜬 기분이어서 벌써들 일어났다. 도량석을 하는 지전스님의 염불소리가 무척이나 청아하다. 산울림도 청아하다. 신라 대종이 울린다. 무겁고도 은은하다. 산울림도 은은하다.

아침 공양이 끝나자 곧 조실스님의 해제법문이 시작되었다. 법상에 앉아 주장자를 짚은 조실스님은 언제나처럼 자비롭다.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은 불교의 중도를 표현한 극치다. 중도란 가치의 변증법적인 종합이요 통일이다. 대소(大小)와 고저(高低)의 가치를 분간하여 자타(自他)를 넘어서 크고 높은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다. 여기에 대승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 양극에 부딪쳐 상극분리(相剋分離)에 그치지 않고 더 높고 큰 가치에로 지양종합(止揚綜合)하여 나아간다. 중도란 단순한 중간이나 중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궁무진한 불교의 정신에서 다즉일(多卽一)의 진리를 선양하는데 그 본의가 있다. 일즉다(一卽多)이다."

법문의 요지다. 불교의 중도는 역(易)의 태극(太極)이나 자사(子思)의 중용(中庸)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에도 상통한다. 상극의 초극이야 말로 진실로 인간의 가장 긴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비로소 인간의 순화, 지상의 정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개개인의 마음에 달려있을 뿐이다. 개인의 순정한 마음없이 사회의 복지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점심 공양을 일찍 마친 스님들은 가사와 발우를 바랑 속에 넣고 꾸렸다. 사중에서 떠나는 스님들에게 여비조로 천원씩 주었다.

회자정리(會者定離)다. 그러나 이자정회(離者定會)를 기약한 이별이기도 하다. 선객은 어느 선방에서든지 또 만나게 된다. 선객으로 있는 한.

나도 바랑을 걸머졌다. 황금색 낙엽길을 밟고 올라 왔었는데 은색의 눈길을 밟으며 내려 걸었다. 지객스님과 나란히. 갈 곳이 무척이나 멀어서일까. 갈 길이 무척이나 바빠서일까. 반가이 맞이해 줄 사람도, 곳도 없는데 대부분의 스님들이 걸음발을 빨리하여 우리들을 앞질러 갔다.

지객스님이 물어왔다.

"스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설악산으로 가렵니다. 그리고 토굴생활을 하렵니다. 권태와 나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입니다. 나태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나태의 온상같은 토굴로 들어가서 권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권태의 표본같은 기계적인 생활을 하렵니다. 견성은 대중처소에서보다 토굴 쪽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도 지객스님에게 물었다.

"스님은 어디로 가시렵니까?"

"저는 남방으로 가렵니다. 그리고 선방으로 가렵니다. 내가 나태해질 때마다 탁마(琢磨)가 필요했고 권태로울 때는 뒷방이 필요했습니다. 뒷방을 들여다 볼 때마다 공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월정사 층층계 밑에서 헤어졌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남방행인 그 스님은 월정사로 들어갔고 나는 월정사를 뒤로 한 채 강릉을 향해 계속 걸어 나아갔다.


그림·이준석

열반은 신없는 세계의 神 '완성된 인간' 불교는 중생으로 시작 도인으로 끝나

"국민화합·불국토 건설" 다짐

부·경연등회 1둘…사부대중 1천여명 참석

새정치국민회의 부산경남연등회(회장 사상호)는 9일 국제신문사 대강당에서 창립 1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국민대화합'을 주제로 마련된 이날 법회에는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 성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다정 백양사 주지를 비롯해 박상규 연등회 회장, 안상영 부산시장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했다.

사상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역간, 계층간 화합을 통해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고 꾸준한 보살행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산스님은 법어를 통해 "모든 중생들이 곧 부처인 것을 깊이 깨달아 하나로 화합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국토"라며 대중들의 정진을 당부했다.

부산경남연등회는 이날 불광사 주지 종학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신라대 임귀선, 파라미타 황은미 추재현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실직자 쉼터인 연등회생활관 관장에 쌍계사 총무 법광스님을 임명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직장직능 대표자회의 6월19~20일 서울서 개최

직장직능 신행단체 대표자대회 준비실무위원회는 1차 회의를 9일 열고 '직장직능 신행단체 대표자 대회'를 6월19일~20일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 단체 회장 및 임원진 20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대표자 대회는 큰스님 법문, 모범사례 발표, 직장직능법회 활성화 방안 토론, 토론 결과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직장·직능별 불자회 현황을 26일까지 1차 파악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조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감사원불자회 안홍부 김동연 감사관, 서울시청불자회 조정봉 지도법사, 대한가수불자회 남강수 회장, 포교원 관계자 등의 실무위원이 참석했다. 도필선 기자

우리 모임에선

산악인련 단합대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손현수)는 10~11일 안동 흥은사에서 '전국 단위 산악회 회장단 및 중앙회 이사단 합동 춘계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번 단합대회에서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1차 면담 내용을 근거로 종단관계 제언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총무원에 재차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또 연등행사에 1천5백~2천여명의 단위 산악회 회원들이 참여해 산악회 위상을 제고하기로 했다. 여성산악인의 참여와 조직관리를 위한 여성부회장단 결성을 추진, 빠른 시일내에 여성부 회장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전동차정비창 성지순례

전동차정비창법우회(회장 이일성)는 24일 해인사 성지순례를 떠난다.

문화예술인 청계산 산행

한국문화예술인법회(회장 김흥우 동국대교수)는 25일 청계산 산행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산행에서는 청계산 내 사찰을 참배하고 기훈련, 마술 등을 배울 예정이다.

직원 모집 공고

삼천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은 〈상구보리,하화중생〉하라 하신 부처님의 뜻을 받들
사회복지를 통한 복지포교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서울시로부터 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을 수탁하게 되어 뜨거운 열정으로
노인복지불사에 동참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 집 부 분	인원	자 격 요 건
부 장	1	경력8년이상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소지자
선임 사회복지사(과장)	1	경력5년이상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소지자
사회복지사	6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소지자, PC가능자, 운전면허증소지자
총무과장	1	유경력자
간호사	1	간호사 및 조무사 자격증소지자, 운전면허증소지자
영양사	1	영양사 자격증소지자
경 리	1	경리유경험자, PC가능자
사무원	2	PC가능자, 운전면허증소지자
보일러기사	1	열관리자격증소지자
생활보조원	1	PC가능자, 보육교사, 간호조무사자격증 소유자
조리사	1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취사보조원	1	취사경력자
건물관리 및 미화원	1	유경력자

1. 제출서류 : ① 이력서 (사진첨부) 1매 ② 자기소개서 1매 (A4 2장이내)
③ 주민등록등본 1통 ④ 졸업증명서 1통
⑤ 자격증사본 1매 ⑥ 경력증명서 1매
2. 접수기간 : 1999. 4. 12 - 1999. 4. 24 〈09:00 - 17:00〉
직접제출 및 우편시 24일 17시까지 도착
3.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면접일시는 서류심사후 추후 통보, 접수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4. 근무처 :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산 140 시립은평노인 종합복지관
5. 서류제출 및 문의처 :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인덕노인복지회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488
전화 : 02-385-8205/6 전송 385-8207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전국 대리점 모집
02)757-1780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냐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이렇게 들었다

지계(持戒)

"善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니…"

"계율은 도에 들어가는 기초요, 번뇌를 없애는 묘한 길이며, 열반의 안락한 곳에 이르는 평탄한 길이니라. 그러므로 계율을 가지는 이에게 큰 공덕이 있느니라."

계율을 지키는 것은 모든 수행자의 기본덕목이다. 비단 출가 수행자 뿐만 아니라 재가 신도들에게도 계율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실천 덕목이다. 성직자, 종교인이 일반사회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유도 계율에 따라 도덕적으로 청정한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계종 사태 이후 펼쳐지고 있는 초발심 회복운동도 지계를 가장 근본적인 실천 수행으로 꼽고 있다. 계율을 바로 세울때만이 화합승단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지계 정신을 되새겨 본다. 〈편집자 주〉

▨"계를 지키지 않으면 다섯가지 손해가 있다. 첫째, 재물을 구하려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 둘째, 설사 재물이 있더라도 점점 줄어든다. 셋째, 사람들의 공경을 받지 못한다. 넷째, 나쁜 이름이 세상에 퍼진다. 다섯째,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나 계를 잘 받들어 섬기면 그 반대의 공덕을 얻게 되느니라." 〈장아함경〉

▨지계(持戒)는 여덟가지의 것을 갖추어야 청정해진다. 여덟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몸으로 행하는 행위가 곧음이다. 둘째는 모든 행위가 청정함이다. 셋째는 마음에 험과 더러움이 없음이다. 넷째는 뜻을 높이 가져 굳고 바름이다. 다섯째는 바른 생활방법에 의해 스스로 살아감이다. 여섯째는 두타(頭陀)에 만족할 줄 앎이다. 일곱째는 온갖 거짓되고 진실치 않은 모습을 떠남이다. 여덟째는 언제나 보리심을 잃지 않음이다. 〈무수불경계경〉

▨차라리 목숨을 버려 죽음으로 달려갈지언정, 마음을 방종히 가져서 그 계율을 어기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만약 사람이 목숨을 버리는 경우에는 다만 일생을 파괴하는데 그치거니와 계를 깰 때에는 백만생(百萬生)에 걸쳐 악도(惡道)에 잠길 것이기 때문이다. 〈대승계경〉

▨세존께서 존자 대목건련에게 이르셨다. "만약 비구, 비구니가 미혹해서 계를 어기든가, 무참 무괴해서 율의(律儀)를 업신여겨 악한 일을 행하는 경우, 그런 사람은 죽어 지옥에 태어나느니라. 〈목련소문경〉

▨믿음과 재물과 청정한 행실은 얻기 어려우나, 계율을 지키는 이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느니라. 이 세가지에 밝게 눈 뜬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따라 수시로 남에게 베푸니, 모든 하늘도 항상 지키고 보호하여, 그는 언제나 평온을 얻고 법의 기쁨을 스스로 누리면서 세상의 오욕락(五欲樂)에 빠져들지 않으리라. 〈증일아함경〉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날 아란존자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계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난아, 계를 지키게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후회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만약 계를 잘 지키면 후회할 일이 없느니라." "세존이시여, 후회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난아, 후회함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니라." 〈중아함경〉

▨계는 온갖 선법(善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요, 온갖 선법이 생겨나는 근본이니, 땅이 온갖 수목의 생겨나는 원인 것과 같다. 〈열반경〉

▨계를 손상하는 사람은 당연히 모든 악도(惡道)의 문으로 가게되고, 계를 받들어 실천하는 사람은 당연히 온갖 선처(善處)의 문으로 가게된다. 〈문수사리정율경〉

하회마을의 팬지꽃

제언



윤범모
미술평론가
경원대 교수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주차장에 도착하니 여지껏의 호젓하던 시골길 분위기와는 달리 번잡했다. 전국 각지에서 운집한 버스들의 행렬을 보고 우리는 내심 놀랐다. 안동 하회마을.

그러나 우리들은 하회에 와서 실망을 안기 시작했다. 부석사 무량수전과 봉정사 극락전을 보며 고려건축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려는 우리들의 답사여행길은 하회에 와서 어그러졌다.

마을은 인파로 어수선할 따름이었다. 영국여왕의 방문지 가운데 하나로 하회마을이 포함되었다는 보도 이후의 새로운 현상이라 했다. 초등학생으로부터 할머니 관광단에 이르기까지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냄비현상의 또다른 반영인가. 매스컴에서 누가 무엇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이내 들끓었다가 또 이내 식는 습성 말이다. 언제부터 문화유산 답사가 보편화된 민족이란 말인가.

하회마을의 시장바닥화에 비하여 이웃 병산서원은 한가했다. 한나절을 소요해도 찾아오는 이 하나 없었다. 우리들은 병산의 풍취를 만끽했다. 그러면서 비포장 진입로에 대하여 감사를 했다. 하회마을 방문객들은 병산서원까지 찾는 것이 마땅하다. 병산서원은 하회마을 출신인 유성룡의 사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회마을의 인파는 병산서원을 외면하고 그냥 되돌아간다. 여행의 부실함을 확인케 해주는 단면이다.

하회마을은 이제 보호받는 민속마을이기에 앞서 저자거리와 같았다. 골목마다 식당과 기념품가게 그리고 민박 업소 등으로 가득찼다. 우리다움의 정취가 푸대접받고 있었다. 특히 간판의 그 유치함이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게 했다. 디자인 감각의 결여가 주 원인이다. 마을은 깨지고 있었다.

특히 나의 눈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골목 어귀마다의 화단이었다. 여왕을 맞이하기 위한 치장치고는 번지수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봄비에 젖고 있는 꽃들은 팬지 같은 서양꽃이었다. 아니, 민속마을에 웬 서양꽃이란 말인가. 나는 부끄러웠다. 여왕이 하회마을을 방문하는 것은 한국의 정취를 보고자 하는 것이지 서양꽃으로 장식된 엉터리 민속마을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나는 한 여학생의 푸념을 잊을 수가 없다. "두번 다시 하회마을에 오지 않겠다." 그 여학생은 조금전에 이런 말을 한 장본인이었다. "신혼여행은 병산서원으로 오겠다."

하회마을의 팬지꽃, 마냥 나를 우울하게 했다. 나는 고개를 떨구고 하회마을을 빠져 나왔다.

실천승가회 '조계종사태 반성과 교훈' 토론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는 종단개혁 '4·10' 5주년을 맞아 13일 조계종 포교원 회의실에서 '98 조계종 사태의 반성과 교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홍사성씨(불교시대사 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조계종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와 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대중공의-상하위계 조화이뤄야"
"세속적 종무 재가자에 이양을"

발제 청화〈실천승가회 의장〉=94년 개혁종단은 성과물을 제대로 호지하지 못하고 중장기적인 개혁과제를 실천할 의지와 역량의 한계를 노출했다. 종단의 제도적인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종도대중들의 의사와 정서를 파악하여 종단개혁의 주인으로 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단집행부는 인적, 제도적, 정신적 개혁을 주도할 수 없었고 중앙신도회 구성등의 문제가 축적되어 말기에는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종단사태를 극복하고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결정이나 지시가 있을 경우 대중공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대중공의와 상하위계의 합리적 조화'라는 승단의 전통적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도대중을 종단운영의 주인으로 세워야 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종회등은 스님의 수행을 보좌하고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항상 대중의 의견을 구하는 종무행정풍토를 만들고 공명정대한 인사행정의 확립과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종단을 만들기위해 종단지도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토론 일철〈조계종 재무부장〉=참신한 사람들이 종단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종단이 정치적인 개념보다는 수행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 종단운영에 대한 정치적 개념인 집단주의가 깨져야 한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명한 인사와 지속적인 개혁이 이뤄지기 어렵다.

법안〈조계종 중앙종회의원〉=사찰운영의 투명성에 대해 총무원집행부가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님들부터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또한 종무운영에 사부대중이 같이 참여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법장〈무진법장사 주지〉=주지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얻고 주지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풍토에 문제가 있다. 또한 주지가 사찰을 건립했다 하더라도 결코 사유화해서는 안된다. 신도들 역시 주인되는 자세로 자신의 역할에 투철하게 나서야 한다.

정웅정〈재가연대회의 사무처장〉=인사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 철저히 검증된 사람들이 종단의 소임을 맡아야 한다. 그리고 중앙종회에는 재가불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공동책임운영으로 이제는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스님들은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해야한다. 나머지는 재가신도들에게 맡겨야 한다.

독자의 소리

초파일 이전에 화합불교 되찾길

천육백년의 찬란한 역사를 지닌 불교가 어찌하여 온늘날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본시 불교란 무상의 진리를 증득하고 또 한편으로 자비발현으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대 명제가 주어진 무상의 길이라 할 것이다.

오늘의 불교계 실상을 바라볼 때 이같은 명제가 과연 실현이 되고 있는 것인지 불자들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바새 우바이들은 스님들의 감로법음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스님들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는 커녕 출가본연의 정신인 무소유에서도 멀어지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걱정스럽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지난 조계종의 분쟁은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없는 폭거요, 만행이요, 망동 망착이었다. 이같은 만행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로써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처사이다. 따라서 분쟁 당사자들을 비롯 모든 불자들은 깊이 참회하여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화합종단을 이뤄 대승보살도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박갑철〈원각사·사리탑복원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

아직도 '기독교 군대' 오명 못벗다니

불자 장군 김태복 소장 재판과 관련해 개신교계의 의도적인 '불자 장군 죽이기'가 아니냐는 최근의 잇단 보도는 대한민국 국군이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기독교 군대'가 아니냐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장로였던 김영삼 前대통령 당시 군의 수뇌부가 대부분 개신교 장성으로 채워졌으며, 현재 전체 장성의 65% 이상이 개신교 장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20%이상의 천주교 장성 역시 크리스천 이어서 전 장성의 85% 이상이 기독교인 장성이라는 사실은 국민의 군대가 기독교 군대가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현 대통령과 국방장관 역시 천주교인이어서 군수뇌부는 물론 장성이 되려면 기독교로 개종해야 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한 사실이 될 정도다.

김태복 장군 기소건은 개신교인 군인들의 '불자 장군 옷 벗기기' 의도가 분명한 만큼 군기 회복 차원에서 이에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 정부 역시 '기독교 군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군 장성 진급심사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영철〈서울 종로구 삼청동〉

보리수마을의 노인들

목탁소리

한 명 우
〈취재1부 기자〉

지난 96년 10월 국내 최대 노인복지시설로 출발한 사회복지법인 세웅실버 보리수마을(대표 김영주)이 30개월만에 200억원이 넘는 부채로 경영난에 봉착했다. 식사조차 제공하지 못해 지난 1일부터 입주자들이 식당에서 사먹거나 직접 해먹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 대표이사인 김영주씨와 상임이사 명신스님 등 운영관계자들은 종적을 감추었고, 20여명의 직원들은 모두 사표를 내고 자리를 떠난 상태다.

보리수마을은 출발 당시 조계종이 불교계가 운영하는 실버타운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노인복지시설. 그러나 실제로는 전 조계종 문사부장 시현스님이 개인자격으로 대표이사를 맡았었고, 시현스님이 입적한 뒤인 97년 동생 명신스님이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받아 운영해 왔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보리수마을은 어디까지나 시현스님 개인에서 출발했고 법적으로 종단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명의를 도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까지 발송해 종단과의 관계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보리수마을 주민자치회장 장이상씨는 "이곳에 입주한 123세대 157명의 노인들은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 90%가 넘는데 어째서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고 항변한다.

현 시점에서 보면 조계종 관계자나 자치회장의 말은 둘 다 일리가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조계종은 종단 명의의 무단사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막지못했다는 책임은 면할 수 없다.

또한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책임소재를 논하기 보다는 불교를, 조계종을 믿고 입주한 노인들에게 지금의 어려운 처지를 하루빨리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자비종단으로서의 모습을 내보이는 일일 것이다.

노인복지는 이제 범지구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명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불교야말로 노인복지사상을 구현할 수 있는 종교임을 보여주기 바란다.

(mwhan@buddhapia.com)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 본사 생산제품 ·
솔선식(2개월 ₩500,000), 솔효소정액(2월 ₩500,000)
익수영진고 (2개월 ₩1,000,000), 치신왕기환(3개월 ₩500,000)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논」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논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불교유적 조사 '봄기지개'

경기도박물관 526개 유적정리 '불적자료집' 발간
광주박물관 전남 폐사지 · 선종계 사찰 조사
전주박물관 완주 · 진안등 불교유적 실태조사
중앙박물관 은해사 소장문화재 등 집중 연구

국립 · 지방 · 대학박물관에서 불교미술, 폐사지등 불교유적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사성과물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경기도박물관은 경기도 일대 불교 유적 및 이와 관련된 문헌사료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 불적 자료집〉을 발간한다. 이 자료집은 문헌으로만 전해지고 있는 불교유적과 발굴 · 지표조사로 새롭게 알려진 불교유적을 시 · 군별로 나눠 총체적으로 정리했다.

박물관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낸 경기도 불교유적은 526개. 이중 현존하는 유적은 155개, 문헌으로만 확인된 유적은 175개,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찰터 유적은 196개로 조사됐다.

이 자료집에는 △유적의 명칭 △문헌의 원문 · 번역문 △발굴유물 등이 소개되어 있다. 또 △발굴유물의 소재지 △문화재 등록번호 △제작 연대 및 이유 등도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동국여지승람〉등 주요 문헌자료 외에도 19~20세기 초에 기록된 〈사찰기(寺刹記)〉와 〈중수기(重修記)〉를 함께 게재, 방대한 불교자료를 집약한 최초의 성과물이란 평을 받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5월부터 전남지역 폐사지와 선종계 사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광주 · 전남지역 14개 시 · 군에서 발견된 폐사지는 총 7개. 그러나 이에 대한 조사 · 연구가 병행되지 않아 폐사지의 이름조차 규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박물관측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선종계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상 · 석탑등 불교미술품 목록 색인을 만들고, 폐사지 이름을 밝히기 위해 문헌연구 및 재발굴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밝혀진 유물들은 박물관에 신설될 불교미술실에 전시된다.

'불교유적 및 유물 조사'를 연차 사업으로 실시해 온 국립중앙 · 전주박물관에서도 9 · 11월중 실태조사에 나선다.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조사활동을 벌여온 중앙박물관은 올해 영천 은해사 소장 문화재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중앙박물관은 93년부터 지금까지 선암사, 내소사, 송광사, 흥국사, 선운사, 개암사등 6개 사찰의 석탑, 불상, 탱화등 소장 문화재를 조사했다.

전주박물관은 전주 · 완주 · 진안 · 무주 · 임실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전북지역 불교유적조사'를 실시한다. 박물관은 지난 2년간 남원 선원사 철불좌상(보물 제422호)등 78건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마쳐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불교유적에 대한 발굴작업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박물관의 안성 봉업사지 발굴 모습.

전북대학 박물관은 5월31일까지 전북 임실군에 소재한 '임실용암리사지' 3차 발굴을 실시한다. 이 사지는 지금까지 신라시대 창건된 중기사 터로 알려졌지만, 박물관이 지난 2차 발굴에서 '진구사' 명문을 발견해 새롭게 주목받는 절터. 따라서 3차 발굴은 〈삼국유사〉등 문헌연구와 추가발굴을 통해 진구사지임을 재확인하는 시간.

현재 발굴팀을 이끌고 있는 윤덕향교수(전북대 고고학)는 "이번 발굴에서 찾아낸 유물 역시 7세기에 창건된 '진구사'였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대학 박물관측은 이번 발굴을 계기로 사지이름을 진구사지로 바꾸고, 초석 · 기단 · 석불등이 보존될 수 있도록 임실군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최선주학예연구사는 "박물관에서 불교유적 · 유물을 체계적으로 조사 · 연구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전통문화의 근간인 불교문화를 향유하고, 학자들이 풍부한 기초자료를 이용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4회 현대불교문학상
고은시인 선정
시 '묘향산' 수상작



현대불교문인협회(회장 수완)가 시상하는 제4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로 고은 시인이 선정됐다.

현대불교문인협회 문학상운영위원회가 추대한 심사위원회(위원장 최동호)는 고은 시인이 98년 〈창작과비평〉 겨울호에 발표한 시 '묘향산'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5월1일 대한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다.

현대불교문인협회는 이날 시상식과 아울러 봉축시낭송회도 연다. 시낭송회에는 청화, 혜관 스님등 승려시인과 나태주씨 등 불자 시인들이 나와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는 신작들을 낭송한다.

한편 현대불교문협은 〈불교문예〉 봄호를 최근 발간했다. 회원들의 신작들과 제20회 만해백일장 입상작들을 묶었으며 '한국의 종교철학'을 특집으로 실었다.

임연태 기자



◇북녘어린이를 돕기위한 삼소음악회가 5월8일 열린다. 사진은 리허설 장면.

北 어린이돕기 삼소음악회 연다

불교 원불교 천주교 여성수도자들의 모임인 삼소회(三笑會)가 북한 어린이 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삼소음악회를 연다.

'한겨레 한생명, 북녘 아린이에게 희망을"이란 주제로 5월8일 오후 3시와 7시 여의도 KBS홀. 120명의 비구니, 교무, 수녀들로 구성된 합창단의 '예불가' 등 합창과 이해인 수녀의 자작시 낭송, 비구스님등 각 종교 남성 수도지들의 찬조출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02)723-2996

계룡산 도자예술촌 젊은 도예인 18명 수행하듯 '물레삼매'

충남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계룡산 도자예술촌(촌장 이재황). 5천여평의 이 마을은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한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젊은 도예인 18명이 뜻과 힘을 모아 형성한 공동체 마을. 93년 입촌 이후 여름마다 도자기 캠프를 운영하는 등 계룡산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대부분이 불자들로 구성된 도예촌은 백제시대 사찰로 추정되고 있는 구룡사지(충청남도 기념물 제39호)와 인접해 있어 불자들에게 더욱 관심을 끈다. 부도골이라는 지명과 함께 당간지주(충남 유형문화재 제94호)와 주춧돌 부도석이 남아 있는 구룡사지는 이곳 도예인들에게 정신적 귀의처다.

계룡산 도자예술촌의 작가들에게는 공동의 화두가 있다. 계룡산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철화분청사기의 기법을 재현해 내는 것이다. 회흑색의 저질태토에 귀얄로 백토분장을 하고 그 위에 철회로 자유분방한 문양을 빠른 운필을 구사하는 것이 계룡산철화분청사기의 특징. 동학사로 이르는 길목인 학봉리에 계룡산 분청사기 도요지(사적 제333호)가 있어 이곳에 산재한 도자기 파편들을 모아 재질과 문양 등을 연구하고 있다.

계룡산 도예촌은 7월 초부터 전국의 각급 학교와 단체를 대상으로 도예캠프를 열 계획이다. 사찰이나 신도단체의 경우 도예 실습과 수련법회를 겸할 수 있다.

임연태 기자



◇계룡산철화분청사기 기법 재현을 위해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 왕성윤(사진 왼쪽) 길준성씨.

불교전통수행목공예품전 여는 학림스님
육환장 108개 한정제작 전시



"부처님은 나무아래서 태어나 나무아래서 깨달음을 얻었으며 나무아래서 열반했습니다. 교화 안거의 장소도 나무아래였습니다. 부처님의 일생이 나무 아래서 이어졌듯 수행자들은 나무와 밀접한 생활을 해 왔습니다."

육환장과 주장자를 비롯 수행자들의 생활에 널리 쓰인 목공예품들을 손수 제작해 온 학림스님(예천 법화암주지)이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불교전통수행목공예품 전시회를 연다.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안국동 로타리 웅전갤러리.

'무우수의 세존, 그 지혜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고려불화를 재현한 육환장이 선보인다. 나무로 몸체를 만들고 청동재료로 머리부분의 문양을 만든 육환장은 장엄미가 돋보이며 움직일 때마다 맑은 소리가 난다. 스님은 육환장을 108개만 만들었다.

육환장과 함께 선보일 석장과 주장자는 소백산에서 채취된 나무의 원형을 자연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3년간의 건조과정을 거쳐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수행목공예품이란 예술성과 편의성을 함께 만족해야 합니다. 그냥 두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생활에서 사용해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불법을 상징하는 교리적 의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학림스님은 이번 전시에 연화촛대와 향꽂이, 엄나무 호신불, 목침, 찻상, 찻잔, 종망치 등 소품도 다수 내놓을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신복선사지 고려때 조성"
하남향토사학자들 고서 토대 주장

하남시 금암산 기슭에서 사지가 발견된 신복선사는 백제시대에 조성된 것(본지 218호 7면 참조)이 아니라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하남시 향토사학자들에 따르면 신복선사를 언급하고 있는 〈신증동국여지승람-한산조〉와 이곡의 〈가정집-신복선사 중흥기〉를 토대로 신복선사 창건 연대를 분석하면 고려 태종 23년(940년) 이후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

〈신증동국여지승람-한산조〉에는 "신복선사, 봉수사와 약정사는 함께 있다"고 기록돼 있다. 〈가정집-신복선사 중흥기〉에는 "신복선사는 광주에 있고, 신복선사 창건은 광주와 함께 일어났다"며 창건 시기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신복선사의 창건 연대도 940년 이후로 보아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세종대학교 박물관은 "기초조사가 끝나는대로 발굴을 통해 신복선사의 역사를 정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문화 단신

부처님 생애 판소리 공연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는 '판소리 불타전'을 5월 2일 오전 10시30분 경내에서 공연한다. 부처님의 생애를 안숙선 명창이 직접 공연한다. (033)676-8700

찬불가경연 참가자 접수

조계종 대구광역시신도회는 제6회 찬불가 경연대회를 5월 20일 오후 3시 남구 대덕문화전당에서 봉행한다.

참가접수는 5월 3일까지 받으며 개인, 불자가족, 사찰신도회, 중창, 합창등 분야에 도전할 수 있다. 참가 곡목은 찬불가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독창 중창 합창으로 경연한다. 찬불가 경연대회의 대상자(팀)에게는 1백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053)253-2886

신입생을 위한 음악회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악과는 99년 신입생을 위한 음악회를 21일 오후 5시30분 교내 원효관 소강당에서 갖는다.

설장고 합주로 막을 올려 해금 독주 범패 민요 판소리 등이 공연된다. 일반인 관람도 가능하다. (0561)770-2202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주머니 속 대장경 303 - 선(禪)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오늘의 언어로 열어 보이는 本地風光

언어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선(禪)의 세계

● 최근 출판가엔 가히 한국판 선의 황금시대라 할 만큼 관련 서적이 다투어 출판됐지만, 이처럼 원문의 맛을 살리는 것에 더해 탁월한 문학적 향취까지 풍기는 책은 흔치 않다. (문화일보 김종락 기자)

●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선을 언어를 통해 그 본질을 소개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나 자신까지 해체해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광표 기자)

● 선(禪)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뿐 아니라 궁극적인 물음, '너는 누구냐'는 데 답하기 위한 준비에 충분히 감당할 책이다. (한국일보 장병욱 기자)

● 선불교의 진면목을 간단명료하게 보여 주는 화두집인 『무문관(無門關)』을 번역 해제한 이 책은, 동양적 혹은 불교적 세계관에서의 자아찾기 과정을 제시한다. (세계일보 이준수 기자)

● 이 책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 현대인들을 선의 세계로 초대한다. …… 달마라는 페르시아 승려에게서 출범한 선(禪)이 6조 혜능에 이르러 기반과 동력을 얻기까지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고 있다. (시사저널 성우제 기자)

한형조 지음/ B6 변형 334쪽 /값 6000원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새로나온 책



▲관무량수경 강설=무량수불 즉 아미타불과 그 국토를 사념의 대상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밝힌 경이 관무량수경이다. 혜경스님이 펴낸 이 책은 무량수경의 전반적 내용을 해설하고 있다. 본문 역문을 실었으며 이에대한 뜻과 저자 특유의 해설이 곁들여져 있다. 또한 난해한 한자와 용어에 대해서는 주(注)까지 표기해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했다. 〈집문당, 8천원〉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사게=우리나라 고승들의 삶과 사상을 재미있는 일화를 중심으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엮은 고승열전 23번째 보덕스님.

이 책은 숨가쁘게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에게 종교와 시대를 초월해 '가장 따뜻하고도 쉬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윤청광 지음 〈언어문화사, 값 8천원〉



▲우리나라의 석탑=불교문화의 한 축을 이루는 탑의 실체와 의미, 그리고 역사상은 무엇인가. 단국대 사학과 박경식교수가 펴낸 〈우리나라의 석탑〉은 탑 전반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특히 국보·보물급 1백30기 석탑을 전체 사진과 함께 시대별 국가별로 분류해 특성과 의미 등을 알기쉽게 사전적으로 정리했다.〈역민사, 값1만5천원〉



▲한권으로 읽는 동의보감=소수의 한의학 종사자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이 책에 담긴 각종 신체 부위, 그곳에 생긴 질병,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과 약물들은 17세기 조선시대의 체취를 느낄 수 있다. 마지막에는 10문10답을 구성해 동의보감과 관련된 핵심적인 논점을 정리하여 그릇된 편견과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았다.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 지음. 〈들녘, 3만5천원〉

宋代 81선승의 깨달음 소식

원철스님 번역 '선림승보전 上'

행장-기연-법문등 각범스님 정리
하권 올말 나와…선종사 연구 한몫



◇원철스님

중국 조사선의 활화산기였던 송대(宋代)를 살다간 선사들의 숨소리를 오롯이 들을 수 있게 됐다. 각범 혜홍스님(1071-1128)이 발과 귀로 찾아낸 81명의 조사탑이며 송대 불교사로 일컬어지는 〈선림승보전〉이 최초로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선사들의 생각과 말, 행동 가운데 지엽들은 모두 버리고 정설만을 모아 놓은 선종사서로 원철스님(실상사 화엄학림 강사)이 번역했다.

각범스님은 강서(江西)의 선맥에 뜨거운 시선을 보내면서 임제(臨濟)의 법맥을 중흥시킨 지연과 법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어느곳을 가든지 조사의 탑을 참배하였고, 노고(老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30년 이상이나 마음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다가 만년(1121)에 상서의 남대사에 머물면서 필생의 역작으로 〈선림승보전〉 30권을 완성했다.

이 책은 당말(唐末)부터 북송(北宋)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선승인 조산 본적(840-901), 운문 문언(846-949), 풍혈 연소(896-973)스님 등 81명을 가려뽑아 전기와 기연 등을 기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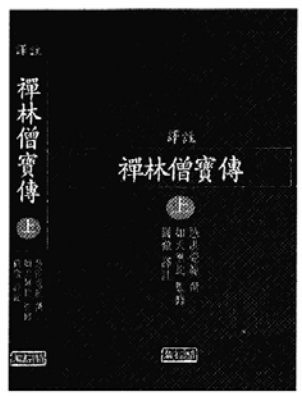
이처럼 〈선림승보전〉은 〈경덕전등록〉, 〈조당집〉 등을 계승한 보다 정확하고 정선된 비중 높은 선종사서로 평가되고 있다.

도서출판 장경각에서 펴낸 〈선림승보전 上〉에는 15권까지 42명의 선사들의 행장, 기연, 법문, 찬 등이 읽기 쉽게 수록돼 있으며 금년말까지 30권까지 번역, 하권을 출간한다는 계획이다.

종래의 선종사서는 전등(傳燈)의 발상으로부터 교외별전(敎外別傳)·정법안장(正法眼藏)이라 불려지는 법보의 전수를 축으로 했다. 그런데 각범스님이 굳이 승보(僧寶)를 말하는 것에서 그의 새로운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수행자 개인의 말과 행동을 제외하고 정법안장이란 있을 수 없다. 결국 사람이 도를 넓혀가기 때문이란 것이 각범스님의 지론이었기 때문이다. 개개의 승보를 빼놓고는 송대의 불교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선림승보전〉에 수록된 선사들의 주옥같은 법문들을 읽다보면 가슴이 텅 비어 버린 듯한 시원함을 느끼게 한다. 안팎으로 화택과 같은 상황들을 몸으로 부딪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답답하기이를 데 없는 요즘, 걸출한 선사들의 깨달음 말씀은 청량한 정신을 되찾게 해주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무비스님은 서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의 화두가 풀리고 모두가 깨달음의 삶을 추구하는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은 물론 선종사서 연구에도 큰 몫을 할 것이다"고 평했다.



역자 원철스님은 "〈경덕전등록〉, 〈조당집〉 이후의 선사들에 대한 구체적 행적을 알 수 있는 선종사서 번역이 별로 없다는 점에 착안해 번역을 하게 됐다"며 "기존의 〈전등록〉류의 한글번역 성과를 집대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발간의 이유를 밝혔다. 〈값 1만8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황수영 전집 넷째권 '금석유문'

470여 금석문 자료-논문 19편 수록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금석문 자료가 책으로 나왔다.

황수영전집 제4권으로 출간된 〈금석유문〉은 금석유문, 한국의 금석문등 2부로 나눠져 있다.

1부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금석문으로서 한국금석유문에 실린 내용과 그밖에 97년 황수영 박사가 발견한 9세기 말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삼화사 철불좌상배각명기를 비롯하여 포항 오어사동종, 만일사 금동관음보살입상 등 최근 수집된 것까지 총망라됐다. 4백70개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비명(碑銘), 탑(塔)·등명(燈銘), 조상명(造像銘), 종명(鐘銘) 등이 차례대로 배열하고 각각 시대별 연대별로 다시 배열하였다.

2부에서는 한국금석문 및 개별 금석자료와 관련, 저자가 발표한 삼국의 금석문 자료 등 19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또 이 책에는 87개의 선명한 도판을 실어 본래 금석자료를 확인 대조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혜안 刊, 값 4만원〉

'산에는 꽃이피네' 오디오 북 출간

교계에서 처음으로 '오디오 북'이 출간돼 화제다. 활자로 된 책의 행간 의미를 읽는 재미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저자의 목소리로 직접 듣는 감동 또한 그에 못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인생의 지혜를 일깨워 주는 책일 경우는 더욱 가슴속 깊이 다가올 것이다.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산에는 꽃이 피네〉(동쪽나라 刊)가 오디오 북으로 출간됐다. 오디오 북이란 말 그대로 '읽어 주는 책'이다. 이 책의 절반은 저자 법정스님이 직접 읽었고, 나머지 절반은 스님과 오랜 교분이 있는 이계진 아나운서와 KBS FM방송의 이미선 아나운서가 읽었다. 스님의 소박한 목소리로 전해지는 인생의 지혜들은 독자들에게 책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감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손색이 없다. 〈값 8천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영역 찰스 뮐러

"한국불교 우수성 알리려고"

우리시대 최고의 기행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영어로 출판된다. 한국인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이 책을 번역해 낸 사람은 벽안의 불자 찰스 뮐러(38)라는 미국인이다. 영역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전 3권 가운데 경주 관련 내용만 모았다.

찰스 뮐러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영역하게 된 것은 한국불교의 본모습이 수록돼 있어 세계에 전하는데 손색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3년간 이 책을 번역하면서 그는 한국불교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다고 말한다. 그 중에서 불국사는 가장 큰 축매 역할을 했다. 그는 "몇번 가보기는 했지만 절묘한 가람의 배치와 건물 하나하나에 붙여진 심오한 철학적 명칭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불국사를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번역에 고심했기 때문이다. 그가 비록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86년 송광사로 출가해 1년 6개월동안 수행생활을 했지만 사찰의 속살까지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뮐러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찰 당우들의 상징적인 의미와 한국인만이 느낄 수 있는 단어들이 번역하기 가장 어려웠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번역할 때마다 불교용어를 영어로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다. 지금까지 1천매정도 정리했다. 앞으로 수정 보완을 통해 〈한국불교사전〉을 발간할 계획이다.



찰스 뮐러씨는 "영역본들이 번역자들마다 표기하는 방법이 달라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불교사전〉 발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83년 미군 통역병으로 우리나라에 와 한국불교에 심취해 출가를 하고,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위해 서울대와 한림대에서 철학학사와 석사학위를 받는 뮐러씨는 "불교철학자가 되어 세계에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중근 기자

묵사람과 만남 적은 자전에세이

인연이야기 1·2 삼중스님 지음



"내가 만난 모든 분들이 내게는 인생의 스승이었고 깨달음을 주신 분들입니다. 이 나이에 이르러 깨달으니 미혹한 내 자신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형수의 대부로 알려진 삼중스님의 자전 고백 에세이 〈인연이야기〉(전 2권)가 출간됐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삼중스님의 젊은 날의 방황, 숨기도 싫었던 여인들과의 애틋한 사랑과 이별, 출가 이후 사형수의 대부가 되기까지 알려지지 않은 만남과 진실을 고백형식으로 낱낱이 밝힌 라이프 스토리이다. 저자가 수행자 이전 한 인간으로서 느껴야 했던 갈등과 고뇌를 진솔하게 적고 있으며, 인생 전반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문학수첩, 각권 값 7천5백원〉

화제의 책

경험으로 살핀 마음공부 중요성

거문고 줄 고르듯 효산스님 지음



출세간은 세간의 영역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사례가 많다. 출세간의 공부 또한 처음으로 마음낼 때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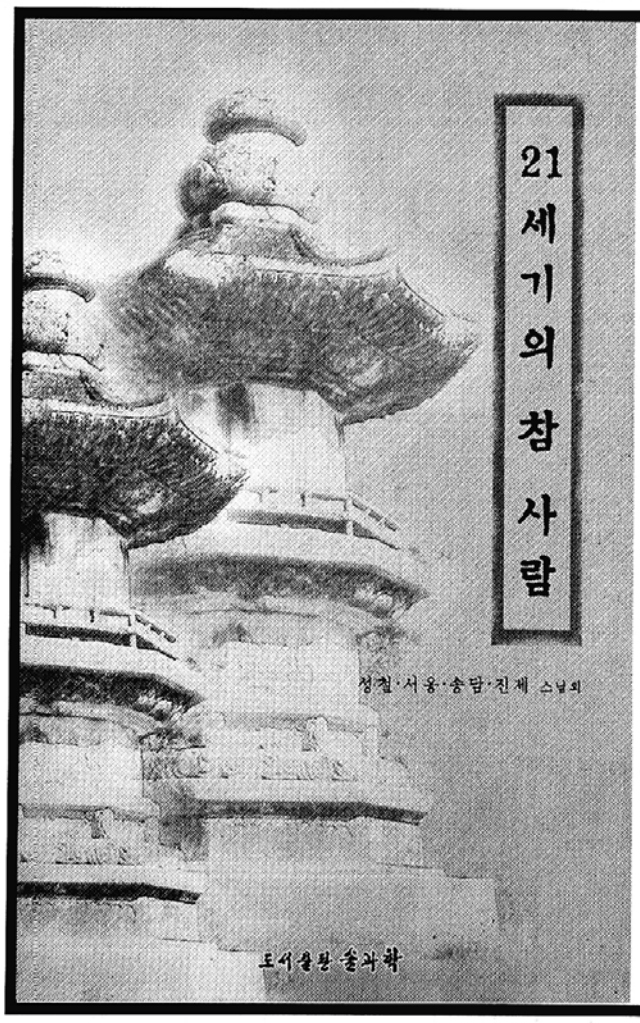
효산스님이 '구도의 길 30년, 그 뒤안길'이란 부제로 펴낸 〈거문고 줄 고르듯〉은 생활속의 단상들을 불교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불교의 교리는 일반적으로 난해하다고 인식되어 있지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많다"며 "수행을 통해 얻은 지혜를 세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비중을 뒀다"고 말했다. 이 책의 곳곳에는 중생과 부처의 세계가 동일함을 밝힌 화엄경에 대한 내용이 녹아 있을 뿐 아니라 22편의 게송이 곁들여져 재미를 더한다. 또 불법이 세속화 되고 있는 교계의 당면한 문제에 대한 질타도 아끼지 않는다. 〈초롱, 값 9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2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 형 조	여시아문
3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4	불교 선수행의 핵심	송 위 지	시 공 사
5	기도	일 타	효 림
6	보살의 마음 중생의 마음	일 타	민 족 사
7	가슴을 적시는…	성우·지현	민 족 사
8	있는 그대로	마하리쉬	한 문 화
9	신심명 증도가 강설	백련선서간행회	장 경 각
10	입산	재 연	문학동네

구입문의:(02)737-0695



혼돈의 시대를 헤쳐가는 지혜는 성자들의 예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은 묵언(默言)하는 일이니, 아는 이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이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옛 사람의 말에,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가는 곳마다 걸린다 하였으니, 이 어찌 믿지 않을 것인가.

- 효 봉 스님
「허망한 생각이 갑자기 일어나거든 한 칼로 두 동강을 내어 버려라」중에서

중도문이라는 것은 일체만물, 일체만법이 서로 융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모순과 대립을 완전히 초월하여 전부 융화해 버리는 것, 즉 대립적인 존재로 보았던 질량과 에너지가 융화되어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중도'라 하면 중도는 중간이다' 하는데 그것은 불교를 꿈에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 성 철 스님
불생불멸(佛生不滅)과 중도(中道)」중에서

참사람은 세계를 형성하고 역사를 창조하는 작용을 합니다. 능동적 주체로서 참사람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합니다.
우리가 이 참사람으로 살 때에 이 참사람은 현대과학문명의 노예로 전락한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 서 옹 스님
「참사룡 結社文」중에서

경허, 만공, 성철, 서옹, 송담, 진제스님 外

도서출판 솔과 학 (02)929-9787 直

佛教大辭典

불교사전의 금자탑! 불교대사전 출간!

最多語彙·最新譯解·最善編輯

제작기간 10년, 기존의 불교사전과 전혀 다른, 고대에서 현대까지 불교의 **핵심적인 용어 6만3천여개**를 선정하여 문장을 간결하고 평이하게 현대적 어휘로 표현하였다.

최고급양장/크라운판 上·下 3,600면/정가220,000원

불교를 바로 알고 싶습니까!

절에 10년을 다녀도,
날마다 법문을 들어도,
부처님의 정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불교 대사전』을 보십시오.
부처님의 세상이 보입니다.

불교대사전 정가 220,000원
밀교사전 70,000원 (주문가230,000원)

♣. 신한은행:324-12-407937
♣. 농 협:053-01-102503 (예금주:김정길)

도서출판 홍법원 · 서울 종로구 견지동 55-2 TEL(02)734-7614, 739-8745, 팩스735-2344

"중관사상 허무론적 이해 잘못"

이종철교수, 종교학회 발표회서 주장

'비어있음'은 아무것도 없음 아니다
연기·공성 실체아닌 언어적 존재

중관사상에 있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오해는 허무론적인 이해, 즉 '비어있음'을 '텅 비어 아무것도 없음'(허무)으로 파악하는 해석이다.

10일 열린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 월례발표회에서 이종철 교수(정신문화연구원)는 "실체론적 사고에 젖어있는, 언어 개념에 존재론적 본질을 상정해버리는 사고 패턴이 '연기(緣起)'나 '공성(空性)'을 실체개념으로 오인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기'나 '공성'은 어떤 실체나 존재론적 본질이 없는 '언어적 존재'(假有)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공사상은 존재론적 본질이 없는 현상이 상호인과관계로 얽혀 생성소멸하고 있는 세계를 우리 삶의 실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상에 있어 논쟁거리였던 유무(有無)에 대해서는 유(有)의 경우 '그저 있음'(唯有)과 '존재론적 본질이 있음'(有自性)으로, 무(無)의 경우 '존재론적 본질이 없음'(無自性)과 '허무'(畢竟無)의 두가지 의미를 띠고 있다고 제시했다. 공사상에서 말하는 '유'는 '그저 있음'을, '무'는 '존재론적 본질이 없음'을 가리키고 있고 비유비무(非有非無)로 묘사되는 중도(中道)에서 부정의 대상이 되는 '유'는 '존재론적 본질이 있음(有自性)'이고 '무'는 '허무'(虛無)이다.

이런 의미를 띠고 있는 유무의 사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공사상은 '모순대립의 초월'이니 '모순대립의 변증법적 지양'이니 하는 모호한 신비주의적 연막술로 전락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중관사상의 핵심으로 설해지는 '쌍차쌍조(雙遮雙照)'를 '유무를 막으면서(遮) 동시에 유무를 견주어본다(照)'는 식의 모호한 해석이 아닌 '존재론적 본질이 있음'(有自性)과 '허무'(虛無)의 부정, '그저 있음'(唯有)과 '존재론적 본질이 없음'(無自性)의 긍정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무의 의미 분석으로 이 교수가 제시한 중관사상이 취하는 입장은 현상의 존재론적 본질은 '없다'는 것이고, 존재론적 본질이 없는 현상 자체는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공을 허무로 이해하는 것 외에 널리 퍼져있는 대표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가 '중관사상에는 아무런 주장이나 부정도 없다'는 오해라고 지적했다.

이 오해에 대해 나가르주나의 뒤를 잇는 중관론자 짠드라끼르띠는 〈회쟁론(廻諍論)〉에서 본질주의자와의 논쟁을 통해 '모든 현상에는 존재론적 본질이 없다'는 것이 바로 공사상가의 주장명제라는 것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이 명제에 대해 '현상에 존재론적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본질주의자의 견해'는 공사상가가 부정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내게는 주장이 없다"는 〈회쟁론〉의 주장을 이해가능한 말로 재구성하는 두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하나는 "제법무자성이라는 내 주장에는 자성(自性) 곧 존재론적 본질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게는 본질주의자와 같이 존재론적 본질을 전제로 한 주장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 두가지 해석방식은 문헌을 통해 검증해보아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종교학회 불교분과 월례발표회에서 이종철 교수는 중론에서 주장하는 공사상은 존재론적 본질이 없음을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학술단신

'인도철학' 8집 펴내

인도철학회(회장 정태혁)가 〈인도철학〉 8집을 펴냈다.

8집에는 △요가의 발전과 불교에의 수용-정태혁 교수(동국대) △부파불교에 있어서 존재문제:실유(實有)와 가유(假有)-서성원 교수(동국대) △빠딴잘리 〈요가수뜨라〉 '삼매품'의 사상-이지수 교수(동국대) △라마누자의 요가에 대한 고찰-주명철 교수(고려대) 등 9편의 논문이 실렸다.

'불교와 문화' 봄호

〈불교와 문화〉 봄호가 나왔다.

봄호에는 특집 희망의 상징 이시대의 미륵신앙 △한국 미륵신앙의 역사적 전개와 특성-김상영 교수(중앙승가대) △불교경전에 나타난 미륵사상-故 이기영 박사 △미륵의 세상 꿈의 나라-김성동씨(소설가) △기행-천년의 꿈, 미륵성지를 찾아서-주강현 소장(민족문화유산연구소)을 비롯해 불교계(승/재가)인재양성 불사의 현주소를 진단한 △불교에는 왜 사람이 없는가-홍사성 주간(불교시대사) △승가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지운스님(송광사 강원 강주) △불교의 개혁과 재가 불자의 역할-전영평 교수(대구대) 등이 실려있다. 또 인각사 보각국사비 복원기 등을 담았다.

보조사상硏 월례발표

보조사상연구원 월례발표회가 24일 오후2시30분 법련사 2층 불일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발표회에는 이필원씨(동국대)가 '초기불전에 나타난 무기설 연구'로 발표를 한다.

9회 백련불교아카데미

성철선사상연구원은 제9회 백련불교아카데미를 24일 오후2시에 대학문화원 교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주제는 '〈금강삼매경론〉에서의 선정과 지혜'로 원영스님(성철연구원 운영위원)이 발표를 맡았다.

"세계가 티벳 아끼는 까닭 찬란한 불교유산 있기때문"

'동아연구' 36집 티벳조명 특집

"세계가 티벳을 아끼는 것은 억압받는 약소민족에 대한 동정만은 아니다. 티벳이 산출하고 전수해온 찬란한 불교 유산이 있기 때문이다. 티벳 민족주의에 정당성을 더해주고 보편적 가치를 더해주는 것은 바로 불교다. 불교를 통해 티벳은 세계와 만나고 불교로 인해 세계는 티벳에 관심을 가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티벳불교는 달라이 라마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서강대 동아연구소(소장 정인재)가 최근 발간한 〈동아연구〉 제36집에서 길희성 교수(서강대)는 '티벳불교 민족주주의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티벳에서 불교의 위치와 외래세력과의 관계 등을 조명했다. 길 교수는 세계 문명사적 관점에서 볼 때 티벳 사회를 티벳답게 만드는 것은 티벳 문화이며 이의에 '티벳불교와 판첸라마의 환생', 이민자 박사(서강대)의 '티벳 독입운동의 경제적 배경' 등 7편의 티벳연구 논문이 실렸다. 이의에 정인재 교수(서강대)의 '티벳불교와 판첸라마의 환생' 등 7편의 티벳 연구논문이 실렸다.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 고려초기 조성 불상"

박홍국씨 연호명문 '太平' 해석

경주 남산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은 고려 초기에 조성된 불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홍국 연구원(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은 〈경주사학〉 17집에 실린 '경주 남산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의 명문과 조성연대'를 통해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의 신광 오른쪽에 새겨진 명문의 연호가 '태평(太平)'이며 이는 고려초기에 해당하는 977년 또는 1022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문명대 교수 등 기존 학계에서 조성연대를 8세기 이후라고 추정한 것과 2백여년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명문은 이미 1984년 동국대 미술사학과 조사팀에 의해 처음 존재가 밝혀졌지만 지난 15년 동안 관련 논문이 한편도 나오지 않았었다.

박 연구원은 시기와 양식에 있어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과 자주 비교되는 미륵곡 마애여래좌상과의 차이점와 원형광배와 보주형 거신광(擧身光)으로 다르다는 점 외에도 수인, 연화대좌의 구성, 얼굴표현, 육계의 표시 등으로 들었다.

캄보디아 불교유적 도굴 비상

반테아이치마르사원 석상등 무차별 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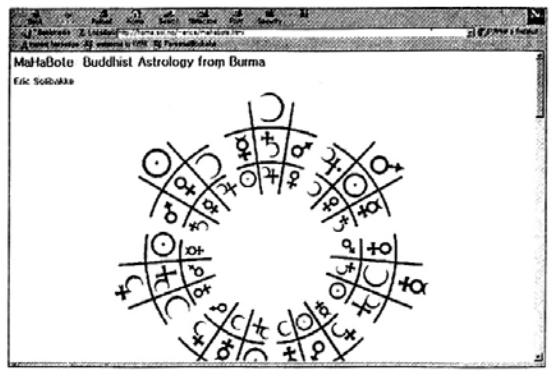
캄보디아와 타이 국경지대인 반테아이 치마르의 사원이 대규모로 약탈돼 사원 전체가 폐허에 가까이 파괴된 사실이 〈뉴욕타임스〉 최근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12세기 크메르 왕국시절 화려한 불교문화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했던 반테아이 치마르의 사원은 이제 정교하게 잘린 석벽과 드릴 구멍, 무너져 내린 벽, 부서진 돌조각 등으로 변했다. 고대 유적 연구가에 따르면 이 사원의 약탈은 24년 앙코르와트 유물약탈 사건 이후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세바스티안 카발리에 캄보디아 유네스코 대표는 "약탈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연구의 현장"이라고 개탄했다.

9㎢의 지역에 8개의 사원으로 이뤄진 반테아이 치마르 사원 약탈이 본격화 것은 크메르 루주가 완전히 궤멸된 98년부터다. 좀처럼 접근할 수 없었던 사원 등 고대 유적지가 도굴범들의 '안전한' 약탈 권역으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사원 주변 주민들과 현지 공무원들은 약탈 혐의를 현지에 배치된 정부군에 두고 있지만, 처벌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내전상황에서 갓 벗어난 캄보디아 정부가 고대유적 보호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기 어려워 갓 도래한 평화시대에 문화유산은 생존의 위기를 맞는 처지에 빠졌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와 점성술

최근 모 방송국에서 전남 화순 운주사의 와불, 탑, 칠성바위 등의 위치는 별자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방송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인터넷에서도 '불교와 점성술'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한 사이트가 있다.

'정치'-'깔치' 조합 예측

▲티벳불교 점성술

마이클 어레윈이 개설한 이 사이트에서는 티벳 점성술에 대한 개괄적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곳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은 어레윈이 1974년 초암 트렁파스님에게 배웠던 점성술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태음력을 기초로 발달한 티벳불교의 점성술은 중국으로부터 정치(Jung-Tsi)와 인도로부터 깔치(Kar-Tsi)를 수용하면서 급성장했다. '정치'란 쥐·소·말·호랑이등 12마리의 동물에게, 동·서·남·북등 각 방위에, 백·흑·녹·황·적등 각 색상에, 금속·물·나무·흙·불등 각 요소에 특정한 성격을 부여하는 것. 또 '깔치'는 고대 인도에서 사용된 천문력표를 토대로 달과 행성의 운동 주기를 추산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티벳불교의 점성술은 '정치'와 '깔치' 두 요소의 조합을 통해 인간사를 예견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티벳불교에서 점성술이 가장 발달한 문파는 14대 달라이 라마가 속해 있는 '겍규파'. 어레윈은 "달라이 라마가 중국의 침략을 피해 포탈라 궁을 빠져나올 때도 탈출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점성술'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또 태음력을 기준으로 한 달의 주기는 30일인데, 티벳불교에서 '스물 아홉번째의 날'을 '불법 수호의 날'로 정해놓고 대규모 의식을 치루고 있다. 티벳인들은 이 날이 '만월(滿月)'이 되기 직전, '절정의 순수'를 뜻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마음챙김·직관력 강조

▲버마불교 점성술

이 사이트에서는 '마하보테(MaHaBote)'라는 버마불교의 점성술을 소개하고 있다. 이 점성술을 수세기동안 사원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했는데, '마음챙김'과 '직관력'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양의 점성술은 '별자리중 양좌의 경우 화성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한 인간의 운세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반면 버마불교의 점성술은 '마음챙김'과 '직관력'을 기초로 의식의 영역을 넓히고서야 별자리를 읽는 기술을 습득했다. 단순한 대위법만을 추구하는 서양의 점성술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버마불교의 점성술을 지칭하는 '마하보테'는 원형의 천문력표, 크기가 서로 다른 원을 서로 겹쳐 사용하는 이 도구는 인간의 '길흉화복'을 예언해 왔던 스님들이 주로 사용했다. 이 곳에서는 '마하보테' 사용법을 개괄해 놓고 있다.

점성술 사용도구 열람

▲불교의 점성술

이 사이트에서는 티벳·중국·인도불교계에서 점성술에 사용되고 있는 도구들을 고화질 그래픽으로 열람할 수 있다. 또 이 도구를 사용해 올해 '4월의 운세'를 띠별로 제공하고 있어, 점성술에 관심있는 불자 네티즌에게 또다른 즐겨옴을 안겨준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티벳불교 점성술 http://www.thenewage.com/NA/tibet.htm
△버마불교 점성술 http://home.sol.no/~erics/mahabote.html
△불교의 점성술 http://anchor-web.com/Daka/monthly/this.html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영가천도의 중요성"과 "생활풍수의 실생활적용"에 대한 설명회

◎ 영가천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비법 및 효험사례와 풍수지리(음택·양택)의 미스테리한 작용 및 그 적용방법에 대한 혜천법사의 명쾌한 해법 설명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본회 법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2년여에 걸쳐 불자님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린 "영가천도의 중요성" 책자와 풍수에 관한 "12품팔상탑주" 책자를 받아보신 전국 6만여세대의 불자님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질문과 방문상담을 받고 그 궁금증을 직접 설명해 드리는 별도시간을 갖는 것이 시간절약상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매주 금요일로 일자를 정하여 영가천도와 풍수에 관한 개요설명과 책자에 나와있는 비밀스런 방편들의 조성동기 설명을 함께 드리고 참석하신 불자님들께서 현재 겪고 계시는 어려움과 문제점등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직접 들어보고 그 방법등을 제시해 드리는 상담시간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책자를 보셨던 안보셨던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거나 현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의 운세와 운명을 바꾸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로 삼고 싶으시면 아무런 부담없이 일단은 이 시간에 오셔서 직접 들어보시고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혜천법사님과 개별상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회내용

●영가천도에 대한 설명●
① 영가천도의 개념 및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 주어야만 하는가?
② 수없이 영가천도를 했어도 영가의 장애라고 생각되는 일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영가천도가 잘 안되는 원인은 무엇때문일까?
③ 영가천도가 잘되면 집안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은 어떠한 일들인가?
④ 현재의 어려운 형편과 여건이 영가천도가 확실하게 되면 실제로 좋은 여건으로 바뀌고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⑤ 현재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중에 어느부분이 영가들의 장애 때문인가?
⑥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물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도방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를 지낸 불자로서 본인이 느끼는 만족도는 어느정도 인가? 또한 효험을 체험한 불자는 100명 중에 몇%인가?
⑧ 기타사항

●풍수에 대한 설명●
① 풍수는 음택(산소)풍수와 양택(주택, 사무실, 가게등)풍수로 나누는데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쪽이 더 강한가?
② 현재 본인이 겪고있는 모든일들이 조상님의 산소나 살고있는 주택의 풍수적인 영향때문인가?
③ 집안에 풍수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개선시켰을때 실제로 효과를 보거나 효과를 본 사례는 어느정도인가?
④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은 주택풍수상 어느정도의 운기가 있는 집인가?
⑤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이 풀리지 않는다. 이것도 풍수적인 영향 때문인가?
⑥ 같은 업종이라해도 장소에 따라 틀리나게 돌건이 잘 팔리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온종일 파리날리는 자리도 있다. 길지와 흉지의 차이는?
⑦ 앉아있는 자리의 위치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잘못된 책상의 위치, 의자의 위치가 기의 흐름을 막아 일이 잘 풀리지 않을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무실, 가게, 공장, 회사에서 책상의 배치나, 사장, 중역, 경리, 직원들의 자리는 어느자리로 앉아야 되는가?
⑧ 사찰에서도 출입문의 방위에 따라 화장실의 위치가 잘못되었을때 불사가 잘 안되고 신도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 어느 방위가 좋은가?
⑨ 자녀의 교육과 대학진학이 걱정될때 자녀방의 위치와 책상의 방향, 잠자리의 방향은 어느쪽이 좋은가?
⑩ 성공한 남편, 화목한 가정을 원할때 집의 모양과 방향은?
⑪ 상업운이나 금전운, 부부금슬, 자녀운에 대한 풍수적인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⑫ 집안에서 식구들이 거주하는 방은 어느방위가 좋은가?
⑬ 잠잘때 각 식구가 어느방위에 머리를 두고 자야만 운기를 받을 수 있는가?
⑭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중에서 어느것이 산소영향이며 어느것이 주택의 영향인가?
⑮ 상기 모든 여건이 간단한 풍수적인 조치로서 어느정도 개선시킬 수 있는가?
⑯ 기타 제반 풍수적인 조치 등.

법회일시 ①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오후4시(2시간)
(정각에 시작되므로 가능한 2시까지는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오후 4시~오후 6시까지 개별 상담

❖금요일 법회에 오시기 어려운 불자님은 사전에 본회로 전화를 주시어 상담일자를 정하시도록 해주십시오.

관음포교원 부설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합장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경전 속의 禪 사상 15

금강경 ③ 〈끝〉

대립 분별 집착 버려야 참마음
禪은 일상속 반야실현 강조

글쓴이

정호영
〈충북대 철학과 교수〉

금강경에는 "여래께서는 마음의 흐름은 마음의 흐름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흐름이라고 한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앞서 언급한 즉비(卽非)의 논리가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금강경은 바로 이어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한 순간도 쉼 없이 흘러가는 마음을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가. 우리는 커다란 것을 단번에 파악할 수 없을 때, 작은 부분으로 쪼개어 하나 하나를 살펴보고 다시 이를 결합하여 전체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마음을 과거 · 현재 · 미래로 쪼갠다. 이 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어서 알 수 없는 것이며, 과거는 이미 가버린 것이어서 붙잡을 수 없다. 불가득이다.

그러면 현재는 어떤가. 올해는 내년과 작년 사이에 있어 제법 긴 시간인 것 같다. 그러나 이번 달은 지난달과 다음달 사이에 있으며, 오늘은 내일과 어제 사이에 있다. 우리는 하루를 시간으로, 시간을 분으로, 분을 초로 쪼갤 수 있으며, 이렇게 쪼개는 일은 즈금이라도 길이가 있다면 언제까지나 가능하다.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것은 영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이제 소위 '현재'는 미래와 과거의 경계에 지나지 않게 된다. 현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심도 불가득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현재이며,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현재이다. 결국 시간은 현재가 중첩된 것이며, 현재가 흘러가면서 남기는 궤적이다. 그런데 영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무리 겹쳐진다고 해도 길이를 갖게 되는가. 영에다 영을 아무리 더해도 영이다. 영에 지나지 않는 현재가 아무리 쌓여도 시간의 흐름을 구성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확실히 있으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분석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마음은 찾을 길이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석적 사고, 분별의식을 버려야 한다.

'말해도 30방, 말하지 않아도 30방'으로 유명한 덕산(德山, 780-865) 스님이 경에는 밝으나 아직 선의 세계를 알지 못했을 때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스님은 유식에 깊은 조예가 있으며 금강경도 깊이 연구하여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러던 중 남방에서 선종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그 본성을 알면 곧 성불한다'는 말을 듣고 이는 성불의 어려움을 모르는 마구니의 설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를 논파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풍주 땅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자 한 식당에 들렸다. 이 집을 운영하는 노파가 점심을 하기 전에 질문을 하였다. "등에 진 걸망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덕산이 금강경이라 대답하자, 노파는 다시 질문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과거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님은 점심을 하고자 하는데, 점찍고자 하는 그 마음(點心)은 과거심입니까, 미래심입니까, 현재심입니까." 이에 대해 덕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점심을 하지 못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간단히 요약하여 분별심은 버려져야 한다. 무심(無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심은 마음이 텅 비어버려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무심은 곧 일심(一心)이며, 이 일심이야말로 정심(正心)이다. 과거 · 현재 · 미래는 세 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시간 즉 절대적 현재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운문(雲門, 864-949) 스님의 '하루 하루가 좋은 날이다'(日日是好日)는 말은 영원이 현재에 응축되어 있음을 지극히 간단하게 그러나 아주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루는 어제, 오늘의 하루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eternal now)인 것이다.

금강경에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應無所住 而生其心)는 구절이 있다. 선종의 6조 혜능(慧能, 638-713) 스님이 바로 이 대목을 듣고 깨우쳤다고 하여 더욱 유명해진 구절이다. 금강경의 이 구절은 소박하게는 대립 · 분별 · 집착을 버린 참 마음을 가져야 함을 지적하고, 그럼으로써 너와 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보시를 행할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선에서는 깨달음의 요체가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 진술이 주체적 명제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나'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선이 일상성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일상성은 절대성에 다름 아니다.

금강경은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반야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절대적 반야를 일상화하고 또 일상에서 절대성을 발견하는 것은 선의 몫이다. 선종의 위대성은 여기에 있다.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14

반야바라밀다 문헌 ④

"색수상행식 바로 보라"

영원한 자아는 허구…개인의 경험 중요

"사문이여, 인간에게 있어서 말하고 경험하고 인식하며, 훌륭한 행위나 사악한 행위의 결과를 지금 여기저기서 겪고 있는 이러한 자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영속적으로 불변하며 영원의 토대 위에 확고하게 서 있는 그러한 자아이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견해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니라."〈아함경 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덕목은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그 어느 것도 끝없는 윤가미일 뿐이며 혼란상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감각으로 느끼는 모든 것을 형식화하고 개념화한다고 해도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중도'를 강조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중도는 산스크리트어 'madhyama pratipad'의 번역으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정(中正)의 도(道)이며, 모든 집착이나 분별을 초월한 무소득의 상태를 뜻한다.

우리는 경전을 배우고 익히기만 하면,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부처님은 배우고 익힌 것을 통해, 우리를 파멸과 불안 그리고 괴로움으로 이끌어가는 욕구와 갈망의 종식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부처님이 가르친 중도의 핵심은 편견이나 어떠한 종류의 개념적 선입견에 대해서도 애착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사물 그대로의 본질을 체험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힘인 지혜(prajna · 般若)를 얻는 데 있다.

부처님은 중생의 생명의 주체인 '자아(atman)'를 영원한 실체의 존재'로도, 또 '자아를 단순히 무(無)'로도 여기지 않았다. '영원한 실체론'은 집착과 애착과 갈망과 그로 인한 좌절이나 불안 · 괴로움 등으로 이끌어갈 뿐이며, '무의 개념'은 자발적인 도덕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연기법(pratiyasamutpada)은 이같은 '중도'를 설명하는 좋은 예이다. 당시 철학자들은 인과의 본질을 이론으로만 설명하고자 했지만, 부처님은 조건에 의하여 연결된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자아에 대한 관념뿐만 아니라 기능과 자유 사이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자아를 경험의 소유자로 간주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정신 · 물리적 흐름을 통제하는 영속적인 실체' 혹은 '대상을 인식하는 주관'이라고 생각하는 자아에 대한 통속적인 개념은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부처님이 우리의 경험을 신체적인 과정(rupa · 色), 감각이라고 하는 심적 과정(vedana · 受), 지각(samjna · 想)과 행위의 추진력(samskara · 行)과 의식(vijnana · 識) 등으로 구분하고, 정신 · 물리적 과정의 끊임없는 흐름으로 설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부처님은 자아라는 용어나 개념을 전면 부정하지 않고, 자아 즉, 우리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자발성과 노력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경험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자아가 영원하다고 하는 개념은 모두 기만일 뿐이며, 우리를 어리석음 · 집착 · 좌절 · 불안 · 괴로움 등으로 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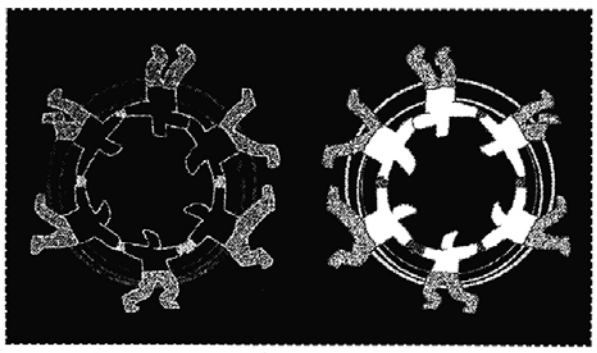
영국의 시인 쉘리의 시구는 우리에게 관념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그 본질과 실제에 관하여 제기되는 모든 논쟁을 일시에 제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을 수 있게 한다.

"삶이란 색유리로 된 집과도 같아서
죽음이 그를 산산이 부술 때까지
영원의 투명한 빛을 물들이고 있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과학산책 항생제와 세균 ②

항생제 남용 방지해야
병균의 저항 핵전쟁보다 심각
하루 8000명 결핵으로 사망



과거에는 항생제가 결핵균을 쉽게 격퇴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 현재 결핵균은 전세계적인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대한결핵협회가 세계 결핵의 날(3월 24일)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7년 한국의 결핵 사망자 수는 3천4백55명으로 인구 10만명당 7.4명꼴이고 매년 14만2천여명의 새로운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전세계 인구의 삼분의 일이 감염되었고 200에서 300만명이 매년 사망한다. 하루에 8000명이 결핵에 의해 사망하는 꼴이다. 전염성 질병분야에서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결핵이다. 결핵균은 의학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에이즈 환자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환자에게서 특히 심하다.

가장 불길한 것은 일련의 항생제에 저항력을 가진 결핵균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는 항생제를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졌다는 것이 곧바로 치료를 의미하던 시대는 지나 간 것이다. 특히 가난한 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약물로는 치료를 할 수 없는 항생제 저항성 결핵은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다. 항생제 저항성 결핵의 치료는 표준 치료에 비해 적어도 100배 이상 비싸다.

왜 한때 모습을 감추었던 결핵이 다시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된 것일까? 이는 결핵 치료 과정과 관련이 있다. 결핵 치료의 경우 6개월에서 2년 정도 끊이지 않고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 약을 복용하면 증세가 약해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들을 약의 복용을 중단하게 된다. 병균은 완전히 격퇴된 것이 아니고 잠복하는 것인데, 이 상태에서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이들 잔류 병균들이 치료 약물에 대해 저항성을 가져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미국 의학 협회도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결핵균만 문제가 아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항균성 약품에 저항하는 박테리아 종이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항균성 약품에 대한 병균의 저항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핵전쟁 보다 더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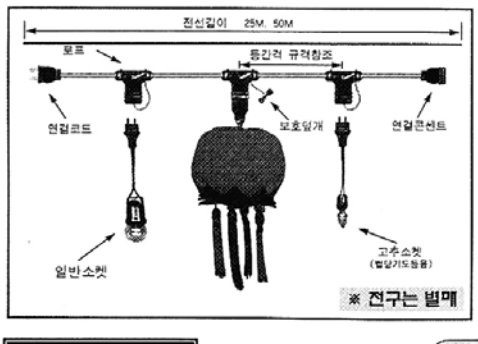
스위스의 한 병원에서는 11년간 암환자에 대한 연구를 했다. 1983년과 1990년 사이에는 항생제에 저항적인 박테리아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1991년과 1993년 사이에는 실험 참가자의 28%가 저항성을 코였다. 이 기간동안 환자들의 항생제 복용이 1.4%에서 45%로 늘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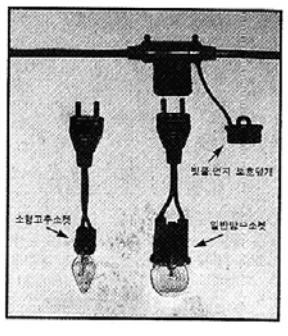
앞에서 이야기 한 대로, 박테리아가 항생제에 노출될 때마다 이들은 저항하여 살아남는 놈만이 자손을 남길 수 있다는 자연의 혹독한 시련 앞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저항성이 발전되는 것을 느리게 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애당초 박테리아가 항생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없는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무게로 따지면 전체 항생제의 반이 가축과 물고기에 병을 예방하려는 의도로 먹여지고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먹여진 항생제를 먹거리를 통해 먹게 된다. 항생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먹거리도 단속해야 할 지경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병원균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 저항성을 개발해야만 한다. 새로운 항생제를 만든다고 하면 병원균은 또다시 새로운 저항성을 개발할 것이다. 세균이 살려고 발버둥 거리는 모습이나 인간이 살려고 병원균을 죽이려는 모습이나 똑 같은 삶의 모습인 것이다. 우리 인간의 행동만이 절대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소중한 모든 생명이 같이 살리고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의증이 자기 안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한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불자기업에서 제작되는
봉축연등,사찰 · 법당기도용 T형 플러그식 안전 배선
(봉축연등 · 사찰 · 포교원 법당 기도등, 각종 연등전선 제조 · 납품)





규 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 주문제작
⊙ 모 델 : DW-101(2mm) DW-202(2mm)
DW-305(3.5mm)

※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특징 및 효과
⊙ 소켓이 분리되기 때문에 설치, 수거, 보관이 매우 편리합니다.
⊙ 조명이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 소켓이 파손되어도 교환이 가능해 반영구적입니다.
⊙ 일반 전구소켓은 물론 소형 고추소켓도 생산하므로 병행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원기업 代表 吳大權(光明) 合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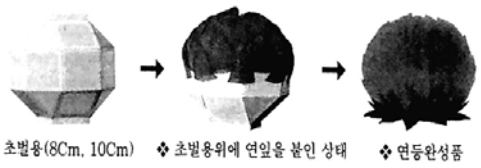
본사영업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FAX : (032)571-9470
A/S : (032)583-4023
서울영업소 : 서울시 중구 수표동 56-6 (대한지공빌딩 222호)
TEL : (02)2276-0235
H.P : 019-262-9830 · 017-259-4471
부산 · 김해대리점
경남 김해시 구산동 302-7
TEL : (0525)322-3929 휴대폰 : 011-833-8018
영 · 호 남 지 사
경남 진주시 칠암동 496-5(조일B/D 3층)
TEL : (0591)757-6411, 757-3331
FAX :(0591)757-3626 휴대폰 : 011-869-4854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초벌용(8Cm, 10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02)2277-1548 H:(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남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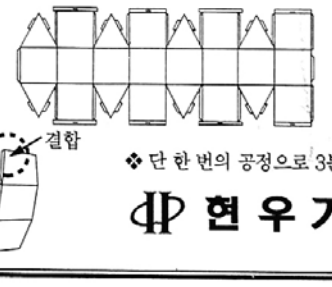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엄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통도사 성보박물관 개관

주제별 전시실 · 문화센터 갖춰
보물등 문화재 3만여점 소장

방마다 성보 가득…환희심 절로


◇금동아미타삼존상(통일신라).


◇금동보살입상(통일신라).


◇금동보탑(고려).

불보종찰 통도사. 날아갈 듯 세련된 팔작청기와지붕과 눈이 부시도록 하얀 화강암 석축이 조화를 이룬 성보박물관이 11일 문을 열어 통도사는 '성보사찰'이란 새 이름을 얻었다.

5년간의 공사 끝에 개관된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연건평 1,295평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학예연구실, 유물수장고, 자료실, 보존관리실, 문화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장엄한 외부의 건축양식과 내부의 최첨단 시스템이 결합된 성보박물관을 들어서면 방마다 가득찬 성보들이 소리 없이 전하는 법의 향기에 가슴이 벅차 오른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을 찬찬히 둘러보다 보면 불교예술품과 선대의 유물들이 전해주는 환희심에 젖어들게 된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이 소장한 성보 유물은 보물 11점, 지방유형문화재 34점을 포함한 약 3만여점. 통도사는 박물관 개관과 함께 〈통도사성보박물관명품도록〉과 〈월저 김진조선생기증유물도록〉도 발간했다.

괘불전시실 박물관 내부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높이 13미터의 괘불이 눈길을 붙잡는다. 석가여래가 보신불로 나툰 모습을 표현한 이 장엄한 여래독존탱(1767년 조성)이 상설 전시되는 이곳은 불화전문박물관의 특색을 살려 1, 2층 홀을 연결한 괘불전시실이다. 각 사찰 소재의 괘불을 교체 전시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괘불 전시실은 1년에 한번 친견이 가능하던 괘불을 상설 전시해 박물관이 단순한 관람의 장이 아니라 예경과 포교의 장이 되도록 하고 있다.

불교회화실 보물 1041호로 지정된 영산전팔상탱과 1402호인 대광명전삼신불탱을 비롯 불교회화작품들을 최적의 상태로 보존 전시하고 있다. 감로탱, 시왕탱 등 불화들이 알뜰요연하게 전시돼 있어 한 걸음에 불교회화의 다양성과 도상에 나타난 사상을 알 수 있다.

상설전시실 1층의 상설전시실에는 청동은입사향완, 감지금니묘법연화경 등 보물 11점, 지방유형문화재 34점을 포함한 통도사 전래의 유물을 중심으로 통도사의 역사와 사적은 물론 불교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게 구성됐다.

기획전시실 달마도, 서가도병풍 등 액자 족자 등의 회화를 중심으로 전시하는 기획전시실에서는 개관을 기념해 무형문화재 48호 단청장 故혜각스님의 기증 회화와 통도사 소장 명품이 선정 전시되고 있다. 달마도와 서가도병풍, 구룡6곡병풍등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기증유물실 선사시대 토기에서 조선시대 청화백자까지 도자기와 먹통, 촛대 등의 다양한 민속품과 청전 이상범 수화 김환기등 근현대화가의 대표작까지 월저 김진조 선생의 기증품을 중심으로 꾸며져 있다. 241점의 기증유물들이 분야별로 전시된 기증유물실은 18일 따로 개관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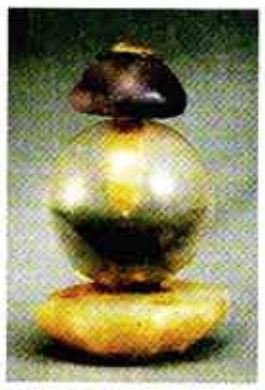
老天 유물관 기존의 박물관을 새롭게 단장한 노천(老天) 유물관은 월하스님의 친필 서화와 소장유물들을 한자리에 모은 곳이다. 월하스님의 친필 서화는 물론 공예품과 세계 각국의 불교사절단이 스님을 예방하고 봉헌한 기념품들을 모아 전시하고 있다.

첨단시스템 통도사성보박물관은 관리체계의 완전 자동화로 첨단 박물관의 면모를 더하고 있다. 중앙감시실에서 각층과 전시실의 현황을 파악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는 특수 액화가스로 유물의 손상을 최소화 하며 진화한다. 도난방지시스템도 위험 감지 5분내에 관계자와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장치됐다. 유물의 보존에 영향을 주는 공기조화와 습도, 온도조절도 컴퓨터 그래픽시스템에 의해 자동 조절되며 각 층과 실별 등화관제도 중앙관제소에서 할 수 있게 설치됐다. 무엇보다 박물관 전체가 첨단 시스템을 이용한 관리와 함께 자연풍과 채광을 이용하도록 특수하게 설계돼 있어 과학과 자연이 만나 성보를 안전하게 보관전시하는 바탕이 된다.

효율적 운영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박물관의 사회교육기능을 위해 문화센터를 마련하고 박물관대학 및 불화그리기, 사경반 등의 각종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필요에 따라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합창단, 꽃꽂이, 외국어반, 연구답사반 등으로 나눠 질 높은 봉사로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는 한편 재정적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후원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박물관장 범하스님은 "가상영상체험, 터치스크린, 시청각 자료제공 등 전문화되고 내실 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 스님은 "20여 곳에 달하는 전국 사찰 박물관 연합회를 본격 가동해 자료교환, 정보교환 등으로 효율적인 성보박물관의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우운당 부도사리구(조선, 수정).


◇높이 13미터의 여래독존탱괘불.


◇금신사 매향의식에 참여한 미륵향도들이 향나무를 이운하고 있다. 이운된 향나무는 미륵전에 6개월간 보관됐다가 10월 부안 격포에 매향된다.


◇스님과 동남동녀들이 향목 이운을 이끌고 있다.

금산사 6백년만에 미륵보살 하생염원
매향의식 재현

현실이 고통스런 사람들은 미래를 꿈꾸게 된다.

개산 1400주년을 맞는 미륵성지 김제 금산사. 천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맑고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하며 미륵보살의 하생(下生)을 염원하는 매향(埋香) 의식이 6백년만에 재현됐다.

10일 아침부터 꽃향기 가득한 천년고찰 금산사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불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오전 10시 법당에서는 향목의 도착을 알리는 소식이 들려오자 매향의례 입재식이 시작된다. 육법공양물중 하나인 향을 미륵부처님께 올리며 다음생에서는 미륵보살을 만나고 3회 3처에서 설법하는 용화회상에 참여하여 왕생하겠다는 굳은 서원을 세운 1천여 불자들의 염불소리는 높기만 하다.

이어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향목이운 의식이 일주문앞에서 결쳐진다. 전통의식을 재현하는 법주바라지 스님들이 법패와 바라춤을 시현하자 농악대의 경쾌한 화음이 어울려 매향 이운식이 시작된다.

인로왕번과 군악대, 장엄번, 빗자루를 든 소지가 길을 깨끗히 쓸고, 향탕수를 뿌리는 쇄수와 법주바라지들이 그뒤를 따른다. 오색연등을 든 동남동녀가 지나가면 선남선녀가 삼색의 꽃잎을 길에 뿌리고 연가비와 증명법사단의 순으로 행진했다. 목탁을 치는 인례스님이 앞장서고 향목을 실은 옛날 우차가 아람들이 향나무 일곱덩어리를 싣고가면 광목으로 연결된 미륵향도들이 머리에 향나무를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둘러메고 뒤를 따른다. 이날 이운된 향목은 전남 장흥에서 이송된 물레가 3m 70cm에 이르는 1천년 수령의 고사목이다.

금산사 개산 1400주년 기념관 앞을 지나자 군악대의 찬불가 연주가 우렁차다. 미륵향도들은 미륵전 앞에서 미륵부처님께 매향을 고하는 의식을 갖는다.

금산사주지 도영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중생들의 아픔을 불기위해 매향을 올리나니 자비로서 섭수하시고 모든업장이 소멸돼 일체중생이 미륵세계에 나투도록 해주십시요"라고 발원했다.

이날 동참한 미륵향도의 명단과 취지 및 매향 장소는 금산사 1400주년 대재때 제막하는 매향기념비에 새겨 후세에 남기게 된다. 이운된 향나무는 금산사 미륵전에서 6개월간 보관된 뒤 10월 계곡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인 부안 격포에 묻을 예정이다. 이렇게 묻은 향나무는 침수향이 되는데 물속에 담그면 가라앉고 태우면 그윽음이 없고 은은한 향이 된다.

매향은 고려말 조선초 미륵하생신앙에 기초하여 도탄에 빠진 민중들이 간절한 바램으로 행하였던 향을 묻고 물에 담그는 의식. 민중들은 매향의 복덕으로 하생한 미륵불을 만나 도솔천 내원궁에 들어갈 것을 기원했다.

조선초 이후에는 매향의식이 중단되고 숭유억불정책에 의해 침향은 모두 왕실의 희귀약재로 이용하여 본래의 용도는 사라지고 말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성 삼일포, 정주, 사천, 암태도, 세미등 5곳에 매향비가 있다. 그러나 침향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사천군 곤양면 흥사리에 있는 매향비는 높이1.6m, 너비1.2m, 두께 1.2m의 자연석비로 석각문에 고려시대 스님을 중심으로 1400여명이 결계하여 향을 묻고 불보살에게 내세에 행운과 축원을 기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연화문원와당(고신라).

문화재급 241점 기증 김진조翁 "많은 사람들과 감동 공유"



성보박물관에 241점의 귀한 유물들을 기증한 월저(月渚) 김진조(80세 부산 좌천동 감내과 원장)옹. "많은 사람들과 감동을 공유하고 싶었다"는 짧은 말로 유물의 기증 동기를 밝혔다.

그러나 그 짧은 대답의 이면에는 통도사와의 긴 인연이 서려있다. 김옹은 초등학교 5학년 때 통도사로 입산해 경하스님을 거쳐 구하스님의 시봉을 들며 학비를 충당해 공부를 했던 것이다. 구하스님과 교류하는 당대의 예술인들의 예술적 취향을 흠모했던 어린시절. 김옹은 그때부터 예술품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고 술회했다.

"기증한 유물들은 불화, 서화(동서양화 민화 서예등), 도완, 민속공예 등 다양합니다. 수집의 생활이 담긴 편린들이라고나 할까요. 귀한 것일수록 탐착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옹은 1920년 울산에서 태어나 경성의학전문학교와 서울대 대학원등을 나와 40여년전 김내과를 개원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고암 이응노의 '경주 금강역사상', 1949년작.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⑯

眞心妙用 隨感隨現 如谷應聲
진심묘용 수감수현 여곡응성
法燈云今
법등운금
古應無墜 分明在目前 片雲生晩谷
고응무추 분명재목전 편운생만곡
孤鶴下遙天 所以魏府元華嚴云
고학하요천 소이위부원화엄운
佛法在日用處 在行住坐臥處 喫茶
불법재일용처 재행주좌와처 끽다
喫飯處 語言相問處 所作所爲
끽반처 어언상문처 소작소위
擧心動念 又却不是也
거심동념 우각불시야
故知體則徧一切處 悉能起用
고지체즉변일체처 실능기용
但因緣有無不定故
단인연유무부정고
妙用不定耳 非無妙用也
묘용부정이 비무묘용야
修心之人 欲入無爲海 度諸生死
수심지인 욕입무위해 도제생사
莫迷眞心體用所在也
막미진심체용소재야

진심의 묘용은 감응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니 마치 산골짜기의 메아리와 같은 것이다. 법등스님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떨어지지 않고 분명히 눈 앞에 있나니, 조각 구름이 저녁 골짜기에서 나오고 외로운 학이 먼 하늘에 내린다"하였다. 그런 때문에 위부의 원화엄 법사는 "불법은 날마다 생활하는 곳에 있다.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누워 있는 곳,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는 곳, 말하고 서로 묻는 곳, 모든 행위 가운데에 있으나, 마음을 내어 생각을 굴리게 되면 도리어 옳지 못하다." 하였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진심의 본체는 모든 곳에 두루하여 모든 일에 작용을 일으키지만 단지 인연의 있고 없음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묘한 작용이 일정하지 않을 뿐이지 묘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닦는 사람이 무위의 바다에 들어가서 생사를 건너가고자 하거든 진심의 본체와 작용의 소재에 대해 어둡지 않아야 한다.

10. 진심은 생사를 초월한다(眞心出死)

或曰 嘗聞見性之人 出離生死
혹왈 상문견성지인 출리생사
然往昔諸祖 是見性人 皆有生有死
연왕석제조 시견성인 개유생유사
今現見世間修道之人 有生有死事
금현견세간수도지인 유생유사사
如 何云出生死耶
여 하운출생사야

물었다. "일찌기 들으니 견성한 사람은 생사를 초월한다 했습니다. 옛날의 모든 조사(祖師)들은 다 견성한 사람이지만 모두 생사가 있었고, 현재에도 세상의 수도하는 사람은 생사가 있는데, 어떻게 생사를 벗어났다 할 수 있습니까."

曰生死本無 妄計爲有 如人病眼
왈생사본무 망계위유 여인병안
見空中花 無病人 說無空花 病者不信
견공중화 무병인 설무공화 병자불신
目病若無 空花自滅 方信花無
목병약무 공화자멸 방신화무
只花未滅 其花亦空 但病者
지화미멸 기화역공 단병자
妄執爲花 非體實有也
망집위화 비체실유야

대답했다. "생사란 본래 없는 것이나 분별력으로 있게 된 것이다. 어떤 사람이 눈병으로 허공의 꽃(눈병 때문에 허공에 마치 꽃이 있는 것처럼 잘못 보는 일에 비유)을 볼 때, 눈병이 없는 사람이 허공에 꽃이 없다고 말해도 병자는 믿지 않다가 눈병이 다 나아서 허공의 꽃이 절로 없어져서야 비로소 꽃이 없다는 걸 믿게 된다. 그러나 그 꽃이 사라지기 전부터 그 꽃은 원래 없는 것이지만 단지 병자가 망령되이 집착하여 꽃이라 여긴 것일뿐 그 본체가 참으로 있은 것은 아니다.

如人 妄認生死爲有 或無生死人
여인 망인생사위유 혹무생사인
告云本無生死 彼人不信 一朝妄息
고운본무생사 피인불신 일조망식
生死自除 方知生死 本來是無
생사자제 방지생사 본래시무

마치 어떤 사람이 망령되이 생사가 있다고 할 때, 생사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 말하기를 "본래 생사는 없는 것이다."하고 일러주지만 그 사람은 믿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망심(妄心)이 쉬어서 생사가 절로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생사가 본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눈병난 사람이 '허공의 꽃' 잘못보듯 생사는 본래 없는데 있는줄 안다

큰스님 수행한담

"괴로움 벗어나려면

일우스님 〈마곡사 토굴암 주지〉



출가, 그런 거창한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불가에 인연이 있었기에 여든 네 살인 지금 마곡사 토굴암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꼭 줄을 서자면, 수덕사에서 계를 받았으니 지금 수덕사 어느 암자에 있어야 할 몸이지만 이곳 마곡사에 있는 것도 인연을 거슬리지 않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절에서 밥을 처음 보낸게 17살이었습니다. 고향 연암산에는 지장암이 있었는데, 만행 중이던 운수납자 한 분이 잠깐 머무신 것입니다. 그 만행승을 동네 어귀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 그 스님을 지장암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그게 출가한 계기입니다.

그 후로 지장암을 비롯해 몇몇 암자에서 백일기도 정진을 했습니다. 나중에 속가 근처에 갈일이 있어, 암자 몇 군데를 찾아가 보았는데 천장암을 제외하고 모두 터만 남아있더군요. 천장암은 대단한 암자입니다. 임제종의 선맥을 이었던 경허스님이 주석하셨던 곳이고, 내가 은사를 만나 머리를 깎을 수 있었던 암자였으니까요. 바로 그곳에서 처음으로 경허 · 만공스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정혜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나이 22살, 은사이신 벽초스님을 만났습니다.

벽초스님을 처음 친견했을 때 기억은 잊을 수 없습니다. 머리를 깎고 싶다는 제 말에 스님은 대뜸 "니 나무 아홉짐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키는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었지 '나무꾼 처사'가 되려고 정혜사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벽초스님은 단지 내 마음을 떠보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수행에는 나무 아홉짐을 지고 산행을 하는 것 만큼이나 인내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벽초스님은 '첫마디'에도 수행자가 평생 놓지 말아야 할 자세를 가르치셨던 참스승이십니다.

경허스님과 만공스님을 모신 불단이 있습니다. 나는 은사스님과 함께 두 스님을 영원한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0여년 동안 남북(南北)의 선방을 두루 돌아다녔지만 "불법은 절을 철거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불법이기 때문이다"는 만공스님의 가르침과 "내 마음이 깨끗하면 온 세계가 청정하다"는 벽초스님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만공스님의 영정을 자세히 보세요. 예사롭지 않죠. 이 영정을 친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상화라고 설명하면 다들 놀래요. 이 초상화는 원래 서울 망월사에서 모셨던 것인데, 내가 그 절 주지 춘성스님에게 평생 받들겠다는 다짐을 하고서 이곳으로 모셔온겁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서울의 유명한 화가가 그렸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만공스님 영정 만큼은 결코 잃지 않을 겁니다.

만공스님을 처음 뵌 것은 오대산 상원사였습니다. 그곳에서 선 수련대회가 있었죠. 이날 만공스님은 '무상'을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하였고, 〈열반경〉에 이르기를 '모든 행위는 무상하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라' 하셨으니 어찌 중생의 몸이 행업(行業)이 아니겠는가. 만약 이와같은 자세를 버리고 잘못됨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그르칠 뿐이다."

이날 만공스님은 젊은 스님들의 부족한 수행력을 크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이 법문을 제외하곤 만공스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의 가르침은 내 수행의 근본이 됐습니다. 나는 지금 마곡사 토굴암에서 아무것도 소유한 것 없는 노승에 불과하지만, 그저 평생동안 만공스님이 살아간 모습을 흉내냈다는 것으로도 만족할 따름입니다.

금강산 마하연을 비롯 장안사, 영은암, 표훈사, 유점사, 보현사 선방과 오대산 상원사를 비롯 통도사, 화엄사, 동학사, 해인사 선방을 전전했던 것도 경허스님과 만공스님께서 그렇게하셨던 것처럼 선지식을 찾아서 무조건 걸어다녔기 때문입니다.

두 스님은 본래부터 선승이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길을 되짚고 싶었다고 말하는 노승의 생각 한켠에는 사실 송구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질 못한 까닭입니다.

금강산 마하연, 선방에서 여름을 보낼 때 일입니다. 금강산은 높고 깊어서 여름에도 별로 덥지 않습니다. 한낮 3~5시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금강산은 온통 바위로 뒤덮인 산이 아닙니까. 이 시각에 유독 더웠던 것은 태양의 열기에 바위가 달궈졌고, 뜨거운 기운이 바위 정심(頂心)에 모였다가 일순 뿜어나오는 시각이기 때문이지요. 이를 가르켜 한 스님이 "점수에서 돈수로 변하는군"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하연에서는 자연의 조그마한 변화도 마음공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도반도 시자도 없는 이곳 토굴암 생활은 어떻게 보면 적막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눈을 밝게 해주는 도량입니다.

"적적하고 고요하게 혼자 앉아 있으니
오직 마음만 본래의 마음 자리로 돌아가 의지하네."

며칠 전 점심공양을 하려고 단지를 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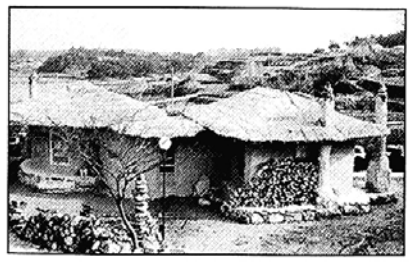
· 1916년 3월 충남 서산에서 출생
· 1932년 수덕사 벽초스님 계사로 사미계 수지
· 1937년 범어사 동산스님 계사로 비구계 수지
· 1940~53년 마하연, 장안사, 영은암, 표훈사, 유점사, 보현사 북한의 선방에서 수행
· 1960~69년 상원사, 통도사, 화엄사, 동학사, 해인사, 수덕사 등 선방에서 정진
· 현재 마곡사 토굴암에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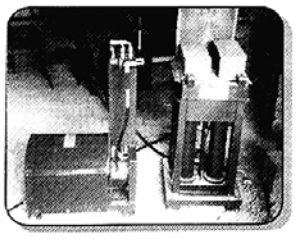
"가득차 있으면 소중함 모르다가 조금 모자라는듯 하면 그때야 고마움 깨닫게 되는 법이죠"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 관련 전문 회사 황토 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 화제의 신간 ·



불교성서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
THE LIFE AND HIS TEACHING OF BUDDHA GOTAMA SAKYA



中人 洪淳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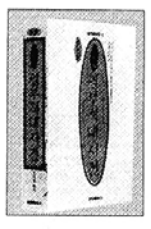
▪ 제 1 편 : 부처의 생애
▪ 제 2 편 : 부처의 가르침

불교의 창시자이신 석가모니 부처 (sakyamuni Buddh)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며, 불교교단이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되었는가를 그의 생애의 기록을 통하여 생생히 이해할 수 있다.

·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은 곧 진리의 말씀.
· 불교란 「삶의 바른길」의 실천을 통해 불교의 이상인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

♣ 관음역서 ♣
◆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양장 신국판 정가 40,000
◆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 정가 25,000
◆ 사주학 핵심비결 양장 신국판 정가 25,000
◆ 고전 풍수학 설심부 양장 신국판 정가 25,000
◆ 혜서 명리진평 양장 신국판 정가 30,000
◆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 정가 15,000
◆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 정가 15,000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김백만 편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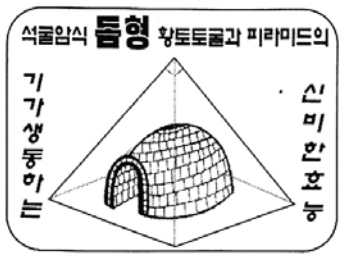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팔고 자식가정문제등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A5 신/ 양장본 /40,00원

관음출판사 ☎ 921-8434, 929-3740 FAX 929-3470

황토 집 (토굴)

생명의 친화성을 가진 흙중의 흙 - 황토!
황토 토굴은 오랫동안 한곳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맑은 정신과 편안함을 주며 생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황토집 (토굴)
원하시는 평수대로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현장 방문 환영!! 황토집

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FAX: 0551)283-6531
H.P : 017)585-6045/ 017)566-9969/ 017)582-7116

큰스님 수행한담

만족할줄 아세요”

팔만사천 법문 모두가 행복의 길 안내
절은 하심 공부…많이 할수록 좋아요



◇일우스님은 토굴암 앞마당에서 마곡사 군왕재를 바라보며 만공스님의 선기(禪氣)가 서린 비로봉을 생각한다. 군왕재 아래에는 마곡사 선방이 있다.

‘악한 일 짓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하라’ 욕심 때문에 실천 어렵죠

었다라면봉지만 하나 달랑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단지에 가득 있을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고마움이 그 순간 느껴졌습니다. 또 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고마운 것인지 쌀의 존재가 새삼 되새겨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행복입니다. 넘치듯 가득 차 있으면 소중한 것을 모르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조금 모자라는 듯 하면 그 존재의 소중함, 고마움을 깨닫게 되고 그 존재가 있으므로 해서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남보다 가진 것이 적어 사는데 불편하고 힘이 들더라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밝게 살아가는 이가 진짜 부자 아니겠습니까.

〈유마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만족할 줄 알라. 넉넉함을 아는 것은 부유하고 즐거우며 편안하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록 천상에 있을지라도 그 뜻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만족할 줄 아는 이가 행복도 누릴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자 다른 처지에 놓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그릇에, 제 처지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을 사는 지혜의 첫걸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령,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줄 아는 이들은 주위 사람들까지도 기분 좋게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자신은 물론 이웃까지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항상 불평불만에 가득 차서 사는 이들은 늘 얼굴을 찌푸리고, 신경질을 내다 보니 자기와는 상관 없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주위에는 점점 사람들이 멀어져 갈 것이고 그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좀체로 자신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8만4천의 법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괴로움을 떠나 즐거움을 얻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행자 뿐만 아니라 인류가 추구하는 영원불변의 행복입니다.

“온갖 나쁜 일 저지르지 말고 모든 착한 일을 두루 행하라. 스스로 마음을 깨끗히 하는 것,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고 하는 칠불통게에 부처님의 49년 법문의 내용이 가장 쉽게 담겨 있다고봅니다. 악한 일 짓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쉬운 가르침입니까? 다만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실천이 어려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본래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본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늘 절을 하십시오. 절을 하는 행위는 나를 꺾으라는 것입니다. 절은 하심을 내기 위한 공부가 되는데, 자기를 꺾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몸짓이 됩니다.

옛날엔 절을 한번만 해도 사람들이 온화함을 보였는데, 요새 사람들은 절만 꾸벅꾸벅 잘하지 속마음은 뻣뻣하지요. 세상사람 중에는 껍데기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와 너라는 구별을 버리고 참다운 인과를 알고 사리를 밝히는 공부를 꾸준히 지속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남에게 무언가 가르침을 받기만을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제 밥 그릇은 스스로 챙겨야 하듯이 남에게 의존하는 공부는 한계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합니다. 운수납자들도 좋은 도반을 사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마음공부는 혼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쌓아온 마음공부를 점검할 때 끅 도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할’ 한다고 해서, 또 부처님의 8만4천법문을 입으로 꿴다고 한들 그것이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의 경계 즉, 해오의 경계는 말과 글 그리고 행동 등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해오의 경계는 자유자재한 겁니다. 경허스님이 동학사에서 용맹정진하고 있을 때, 스님은 자신의 화두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경허스님에게 배우고 있었던 한 젊은 학승에게 “코 없는 소가 대체 무슨 뜻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고서 크게 깨친게 아닙니까. 경계를 보려는 스님의 정진과 그 말이 서로 통했던 것이죠. 부처님의 법문 하나 하나에는 진리가 들어있다면, 일상의 범부의 말 한마디에는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이 있습니다. ‘도에는 문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수행승 혹은 불자들의 깨침에는 오직 자신을 버린 용맹정진과 이심전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또 깨달음의 실체는 소박합니다. 말이나 행동보다 마음이 익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승들의 숱한 법문과 학자들의 수많은 논문을 읽었던 사람들도 깨달음 앞에서는 무미건조해지기 쉽습니다. ‘내명(內明)’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밝히지 않고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부처인 줄 모르고 다른데서 부처를 찾을려고 야단입니다. 헛된 일이지요. 부처님 시절과 지금은 사뭇 다릅니다. 특히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서도 그 배움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욕심을 끊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욕심 끊으면 전생의 일을 잘아는 신통력이 멀지 않고, 해탈이 멀지 않습니다. 드디어는 부처가 되는 경지에 이릅니다.

요즘 TV를 보니까 남쪽 사람들이 금강산을 자유롭게 다니더군요. 그래서인지 예전에 만공스님께서 비로봉을 보시고 선기를 떨치셨던 ‘비로봉에 올라’라는 게송이 자주 생각납니다.

“몸이 하늘에 올랐나니
발 아래에 비로봉이요
눈 속에 동해로다.
눈 씻고 발 씻기
이 괴로움이 아닌가.”

여기 토굴암에서 계룡산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면, 군왕재가 보입니다. 그 아래에 마곡사 선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비로봉을 보면서 선기를 떨치셨던 만공스님의 ‘마음공부’를 결코 따를 수는 없지만, 그나마 군왕재를 바라보며 수행자로서 죽는 순간까지 마음의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새벽 2시 50분에 옷을 챙겨입고, 토굴암 옆에 있는 관음전에 불을 밝힐 때가 가장 행복하고 평온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인연이 닿는다면 만공스님의 선기가 서려있는 금강산과 묘향산을 다시 오르고 싶습니다.

정리=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김건웅 〈해인실업 대표〉

초등생 아들의 질문 화두삼아 정진
외국인·신병교육대 전법 ‘큰기쁨’

94년 금정 불교대학에 입학했다. 이를 계기로 혼자서 경전을 보며 해 오던 불교공부를 신심이 두터운 여러 도반들과 함께 하게돼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 때 관음포교원에서 보명스님으로 부터 원전강독을 배운 경전공부가 포교는 물론 나의 수행 생활에 기본이 되었다.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것이 내 방식의 불교라고 생각했던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불교의 사회생활로 나서게 하는 출입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 지나 온 날들이 어느것 하나 부처님 가피 아닌 것이 없어 보다 더 튼튼한 행원을 다지게 됐다.

나의 불교입문은 평생을 부처님께 의지하며 기도로 생활하시는 어머님의 신앙에서 비롯됐다. 경기도 광릉에서 군 복무시절 봉선사 새벽예불에 참석하게 된 것은 불교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운허스님의 수상좌이시던 월운스님께서 출가를 권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관세음보살의 힘에 의지하려는 어머님의 지극한 관음신앙과 스스로 대비심을 일으키게 하려는 방편으로서 나의 기도가 때로는 함께 어루러지고 또 확연히 구분되면서 불교는 내 생활 그 자체로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환희로움 그 자체였다. 특히 서선대사의 〈선가귀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 그리고 〈금강경〉은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일러주는 삶의 지침서가 되었다. 이 때부터 나는 교학에 대한 올바른 이론을 갖춘뒤 진정한 포교의 장에 나선다는 원을 세웠다. 제1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부처님 일이라면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뛰어 다녔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아버님의 죽음으로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알았다. 태어남과 죽음도 모두 한조각 구름이라는 불교인생관을 인식하지 못한것이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던 아들이 “아빠 극락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요”라는 물음에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때 처음으로 내 자신을 되돌아 봤다. 8만4천 부처님 법을 배우고, 포교 하겠다고 나선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가족들에게조차 시원하게 대답을 할수 없으니 누구를 포교 한단 말인가. 나는 아들의 이 물음을 화두로 삼아 고민하고 있던 가운데 한 스님의 권유로 ‘자비도량참법 100일 기도’를 하게 되었다. 기도 후 얻은 소중한 교훈은 많이 아는것보다 하나라도 더 실천하는 것이었다.

통도사 부산포교원의 다라니기도에 동참하면서 뵙게 된 심산스님은 포교에 관한 한 어느누구보다도 앞선 생각을 갖고 계셨다. 도심 한가운데서 현대인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

96년에는 스님을 모시고 몽골 불교현황을 둘러보았다. 그 때 나와 동행인들은 국제포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포교원내에 국제포교부를 창립하고 외국인 포교를 시작했다.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 행사를 현재 19회까지 마쳤으며 매월 다양한 행사를 주관해 오고 있다.

우리 문화의 대부분이 불교문화이므로 타 종교를 믿는 이방인이 부담없이 우리문화를 접하는 사이 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불교를 이해하는 그들을 보며 새로운 포교의 한장을 연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또 한달에 한번씩 부산 53사단 신병 교육대에서 신병 3백여명을 대상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도 나에게는 큰 기쁨이다. 무상을 종으로 삼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묵묵히 실천할 뿐이다.

현대불교 ’98년도 합본 제4집 발간 안내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21세기 희망찬 내일 불교의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현대불교신문」에서 ’98년도 합본 제4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어느 해 보다 더욱 더 다사다난했던 ’98년도의 불교계 모든 소식들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쉽게 친견하기 어려운 큰스님들의 법문은 물론 불자들에게 유익한 생활의 정보와 지혜의 내용을 함께 모았습니다.

포교와 수행의 지침이 될 「현대불교신문」을 보관하시고자 하시는 여러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위해 ’98년 1월 1일자(157호)부터 12월 30일자(204호)까지 총 48호 1,172페이지로 불교를 쉽게 배우고자 하시는 불자님들께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3집(’97년판)과 제4집(’98년판)을 한정 판매하오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법보시 하실 분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자님 계신 곳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입안내

- 합본 제4집 : 1998년 1월 1일자(157호)~1998년 12월 30일자(204호) 총48호
  - ▶ 1,172페이지. 신문판형『크기: 40㎝×55㎝』
- 구입 가격 : 1권 6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제3.4집 : 11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우 체 국 010041-025524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문의 및 신청 : 경영관리국 기획관리부(담당자 이신정)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 신속한 발송을 위하여 입금 후 꼭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현실속의 불교를 지향하는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9년 봄 호

지상중계 혜거 스님과 떠나는 불교진리탐구 ❷
좌선(坐禪),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좌선의」를 교재로 좌선의 의미와 참선하는 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 좌선의에서 말하는 좌선하는 법

불교계진단 9 / 불교계 승 · 재가 인재양성불사의 현주소
흔히 말하는 불교의 인물부재. 결국 사람을 키우지 않은 업보라는 지적이다. 그 근본 원인과 승 · 재가의 인재양성불사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사진으로 보는 성보기행 9 / ’99건축문화의 해 특집
우리 옛 절의 건축체험 1
가보았어도 또다시 가보고싶은 절, 부석사
부석사는 자연을 닮아 호흡이 살아움직이는 듯 느껴지는 도량이다. 젊은 건축가 유경수 씨와 함께 새롭게 음미해보는 부석사의 건축체험.

문화시평 / 불교교리의 현대적 해석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이 불교의 중도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교리적 근거를 통해 소개한다
- 제3의 길과 불교의 中道

특집 / 희망의 상징, 이 시대의 미륵신앙
민중들의 삶의 희망으로 이 땅을 지켜온 우리의 민족신앙, 미륵.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소하고 어렵고 불안한 이 시대에 정신적인 희망을 가져다주는 미륵신앙을 재조명한다.

21세기 불교정보화를 위한 과제
인터넷 불교사이트 만드는 법과 운용하는 법

인물포커스 /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 · 학습편
근,현대 재가불자들 중 각 분야별로 불교확동의 현저한 업적을 남기고 타계한 선각자의 삶을 조명하여 재가불교운동의 당위성과 모범적인 불자상을 정립한다
- 화엄학과 심론연구의 대가 현곡 김잉석 박사
- 근대 한국불교학의 태두 포광 김영수 선생

우리시대의 匠人 / 불교문화를 빚는 사람들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젊은 장인들의 숨결을 느껴본다
- 전통 창호(창과 문) 장인, 심용식 씨

사찰과 자연생태 / 1 해우소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절집 화장실, 해우소(解憂所).
최근 환경미화를 이유로 사라져가는 해우소의 자연친화적인 구조와 형태를 소개한다

고전산책 / 백파 스님과 추사 김정희의 논쟁論 4
백파 스님의 뒤지 - 김참판 정희에게 답함

특별기고 / 인각사 보각국사비 복원기

서평 - 허운 스님의 『참선요지』

불교계 주요일지(1998.12 - 1999.3)

불교관계논저 총합색인(1998.12 - 1999.3)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

우주의 에너지…길상 행복 상징

월2회 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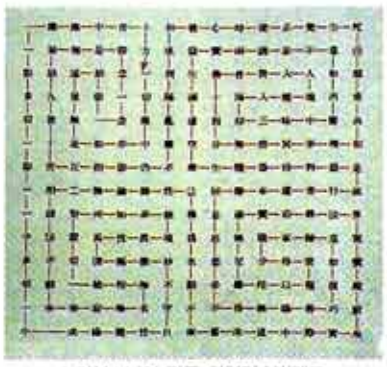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26



◇강화 보문사 마애관음상의 가슴에 새겨진 卍자.



◇卍자는 슈리밧사로 불리는 기본형 외에도 여러 형태로 변형되어 표현된다. 좌로부터 슈리밧사, 난디아비타라, 스바스티카, 푸르나가타 형상.



◇의상스님이 만든 화엄일승법계도.

서양에선 "생명·자비·광명·자유" 대승불교권 사용…남방엔 없어

부처님 성도당시 깔고앉은 길상초 잎모양서 유래

예로부터 卍자는 부처님의 성덕(聖德)과 길상(吉祥)을 뜻하는 표상으로 전해져왔고, 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글자로 여겨져 왔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도 卍자와 관련된 신화와 전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태양의 상징으로 보기도 하고, 흐르는 물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 둥글게 선회하는 모발의 형상이라고도 하며, 신령한 빛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동·서 고금을 통해 의견이 분분한 卍자는 산스크리트어로 Svastika 팔리어로 Svatthika라고 불리며, 길상·유락(有樂)·덕상·행복 등으로 풀이되어 왔다.

경전에서 卍자의 표상은 〈화엄경〉, 〈수행본기경〉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화엄경〉 권48권에는 "여래의 가슴에는 훌륭한 분의 특징인 卍자 모양이 있다. 이것을 길상해운(吉祥海雲)이라고 부른다. 조화가 자재로운 '마니보주'로 장엄되어 온갖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갖가지 공양을 둥글게 뿜어내면서 온 누리를 가득 채운다. 그리고 묘음을 내어서 온통 세계를 진리의 바다처럼 넘실거리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부처님의 97가지 훌륭한 모습 가운데 53번째의 특징으로 기록된 것이다.

인도의 경전을 중국으로 전파했던 역경승이나 주석가들을 통칭해 '만(卍)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卍자 표상을 최초로 언급한 스님은 중국 당나라 초기에 활동했던 화엄학의 대가 혜원스님이었다. 혜원스님은 〈화엄경〉의 범본과 한역본을 대조한 뒤, "卍자는 덕있는 사람의 상(像)이요 길상만덕(吉祥萬德)이 모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행본기경〉에서는도 이 표상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卍자가 부처님의 성도설화를 통해 불교와 최초의 관계를 맺는 과정이 나온다. 이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수행할 때 풀방석을 깔고 앉았는데, 방석 재료가 바로 앞의 모양새가 卍자인 길상초였다는 것이다. 이후 卍자는 불교를 상징하는 기호가 됐다.



◇법주사 수정교. 난간의 卍자문양이 세간과 출세간을 잇는 교량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또 卍을 팔길상인(八吉祥印)의 하나로 여겨왔던 대승불교 시대의 수행승과 불자들은 부처님의 머리·가슴·손·발 등에, 법종과 같은 장엄물에 즐겨 새겨왔다. 또 깃발과 난간 그리고 창문에도 卍자를 새기며, 그 속에 가없는 심신과 구법(求法)의 의지를 담았다.

그런데 동남아 남방불교권 사찰이나 불교용구에서는 卍자 표상을 찾아보기 힘드며, 대신 동근 법륜(法輪)을 불교의 상징 표시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卍자는 중국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대승불교권에서만 유행하고 있는 불교의 상징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서구의 불교학자들은 '원초적 에너지를 담은 신성(神性)'으로서 卍자를 풀이하고 있다. 생명과 운동으로 설명되는 이 신성은 회오리바람과 같은 卍자의 모습에서 연상할 수 있다. 卍자의 꺽임이 회오리바람을 닮아 있는 것은 우주적 에너지의 운동 법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卍자는 시원적이고 창조적인 힘을 상징한다.

또 서구의 불교학자들은 卍자의 가운데 교차점을 떼어내면 영어의 'L'자가 4개 나오는 것에 착안, 생명(Life), 광명(Light), 자비(Love), 자유(Liberty) 등을 뜻하는 머릿글자로 해석하고 있다.

■卍자의 유형

卍자는 그 변형을 포함해 네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가 길상해운을 뜻하는 일반형으로서의 슈리밧사(shrivatsa), 둘째는 오른쪽으로 선회하는 머리카락 모양을 한 난디아바타라(naadyavatara), 셋째는 행복이 있음을 상징하는 스바스티카(svastika), 넷째는 물병모양을 한 푸르나가타(purnaghtata)이다. 이들 중 마지막 푸르나가타를 제외한 세가지는 불경 중에 모든 부처님의 가슴 또는 머리에 나타난 모발처럼 기록되어 있다.이것은 불상의 미간에 표시되는 백호가 털을 의미했던 것과 함께 고대 인도인 또는 서역인이 지녔던 풍토적 사고방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불보살 가슴에 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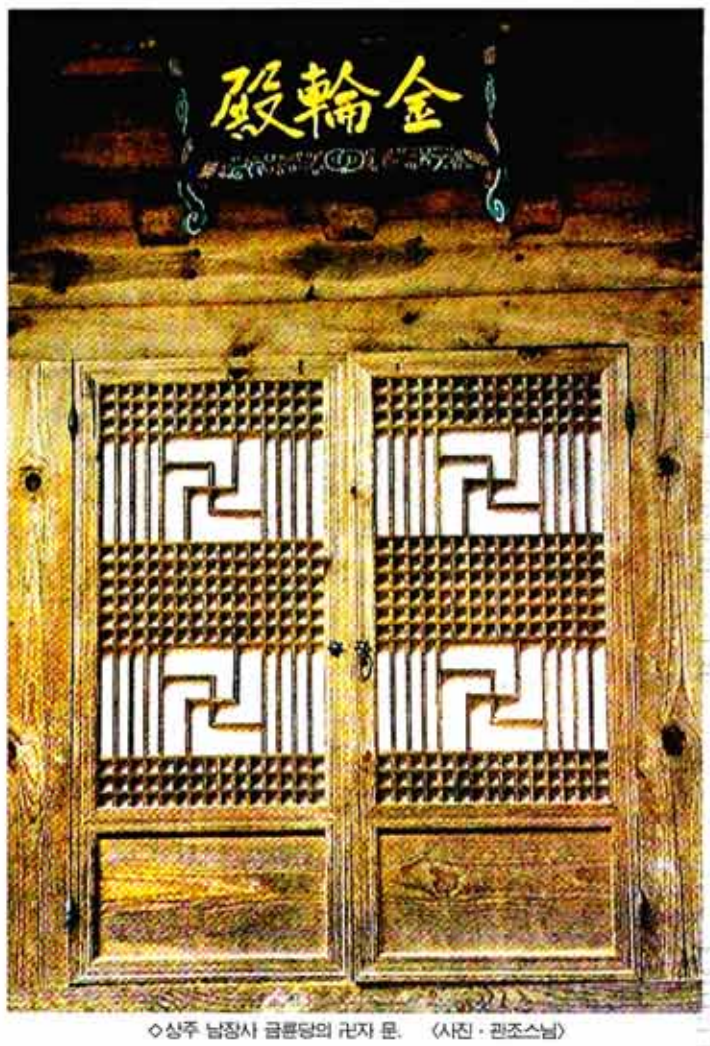
불상의 앞가슴에는 대부분 卍자가 음각되어 있다. 이것은 예로부터 석가모니 불상이나 보살상의 가슴에 부처님의 마음을 찍는 불교 도상에 유래된 불심인(佛心印)에서 비롯됐다. 즉, '부처님의 마음이 이 한 곳에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던 불자들의 신앙의 표상이다. 그 당시 불자의 신심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보물 329호 백제여래좌상의 가슴에도 어김없이 卍자가 그려져 있다. 군수리 폐사지에서 출토된 이 여래좌상은 백제기 부여로 천도하고 불교를 크게 일으켜 정치적·문화적 전성기를 이루었던 6세기 후반기에 제작된 것으로, 동근 맛에 정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백제 전형 양식의 불상이다.

■화엄일승법계도

신라 의상스님(625~702)은 중국 당의 지엄에게서 화엄학을 공부하고, 화엄사상의 요지를 210자의 7언 30구 시(詩)에 담아 '화엄일승법계도'를 발표했다. 화엄일승법계도란 '가지가지 꽃으로 장엄된 일승의 진리로운 세계의 모습'이라는 뜻.

법계도에 사용된 210자는 처음에 법(法)자로 시작하여 중간에 중(衆)자를 위쪽으로 올리고, 끝을 불(佛)자로 휘감았는데, 그 글자의 돌아감이 만(卍)의 형상으로 배열되며, 중중무진(重重無盡)한 화엄 법계를 상징하고 있다. 문자 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상주 남장사 금륜당의 卍자 문. 〈사진·관조스님〉

■만당(卍黨)

1930년 5월 결성된 청년불자들의 항일비밀결사 조직체. 20년대 결성된 조선불교청년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떠오른 '동지단결의 부재' '통일정신의 빈약' 등을 해소하기 위해 김법린, 이용조 등이 결성했다.

卍당의 활동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조선불교청년회를 조선불교청년동맹으로 전환한 것. 이것은 청년조직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성과를 낳았고, 이를 기점으로 '종헌지지·사법개정·사찰재산 통합' 등 당시 불교계 현안에 적극 참여한다. 또 산간에 은둔해 온 불교를 사회적, 대중적 불교로 되살리는 현대적 포교와 불교 교육운동에도 앞장섰다.

김광식박사는 〈한국근대불교사 연구〉에서 "卍당은 청년불자들이 청년운동 및 불교계 전반의 교정을 개혁하고 한국불교계가 나아가야 방향을 제시한 전위조직체"라고 지적했다.

■법명속의 卍자

법명에 卍자를 사용한 스님들은 흔하지 않다. 불교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스님은 조선 초 만우(卍雨·1357~?) 스님과 만해(卍海·1879~1944) 스님이다.

만우스님은 고려말 선승 구곡각운(龜谷覺雲)의 제자이다. 불교와 유교 경전에 남다른 깊이가 있어 조선 초에는 집현전 학사들이 찾아올 정도로 불교와 유교계의 사표가 됐다. 시와 글씨에도 능했던 스님은 〈천봉시집〉을 남겼다.

만해스님은 3·1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이자, 〈님의 침묵〉을 쓴 민족시인 한용운의 법명이다. 만해스님은 불교가 일제에 예속되어 버린 이후에도 정교(政敎) 분리, 사찰령 폐지, 불교청년운동 등을 통해 민족의 자존을 지키는데 평생을 바쳤다. 그의 저서 〈조선불교 유신론〉에는 만해스님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에서 스님은 '교리 및 경전의 민중화와 제도 및 재산의 민중화'를 주장하였고, '민중의 행복을 증진하는' 만중운동을 역설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100% 재활용 재질 사용

연등규격(지름) : 6.5cm, 8.5cm, 10.5cm, 13cm, 17cm, 30cm(대등), 실크등, 공단등



◀연꽃잎 제조 특허 연등

찬덕의 연잎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조립 팔모등) (원 통 등) (차걸이등) (연 등)

◐ T자형 전선 제작, 판매합니다

연등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대폭 인하 납품하여 드리겠습니다.



◀인 등

※각종 인등도 주문제작합니다.

※천불전 조성합니다.

■찬덕연등 장엄사찰

조계사(서 울) 용주사(화성군) 금산사(김제) 선본사(팔공산) 동화사(팔공산) 갓바위(팔공산) 약천사(제주) 봉선사(남양주) 운주사(화순군) 그외다수

■법당 1년등 설치 전문업체

T자형 케이블 전선 생산, 반영구적 보전, 고정형 설치, 분리형 설치

- 원하시는 사찰에는 견본등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 장엄등을 설치할 사찰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여 등개수 및 설치위치를 조언하여 드립니다.

제작 및 설치문의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찬 덕 연 등 제 작 사 대표 김 기 찬 합장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가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흉수시키면서 악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걸어놓았던 등판을 모두 걸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돌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꼭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상대방 잘못에서 자기모습 보세요

싸움에 휘말려 생활 힘들어요

문 미국의 뉴욕으로 떠난 이후 벅찬 학업과 생활고 속에서 짧지않은 방황을 하던중 한마음 선원의 뉴욕 지부에 인연이 닿게 되었고 스님들의 가르침으로 주인공을 관하는 법을 배웠고 힘든 수학과정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그토록 어려운 IMF 시절임에도 3년간의 무직생활을 청산하고 지방의 한 작은 대학교에서 교수로 임용되는 기쁨 과 영광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중생인지라 저자신의 사량을 버리기가 너무도 힘드는군요. 이곳의 선배교수들은 학생을 생각하지는 않고 자기자신의 권위를 위한 싸움질 만을 해대니 피해보는 사람은 학생들 밖에 없습니다. 저 자신도 자꾸만 주인공을 잊고 격분하면서 남을 대하다보니 점점 배척을 당하고 이곳에서의 생활이 점점 힘들어만 가는군요. 지금 제 상황을 제가 보아도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학교에서 일하기 전 까지는 저의 앞날에 대한 걱정거리만 가지고 힘이 들었지만 이제는 제가 내리는 하나하나의 결정과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어린 학생들의 장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 과거의 어느시절 보다도 힘이 드는군요. 자비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답 예전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도 않고 구박이 심한데 도무지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더랍니다. 그래 아들이 고민고민끝에 한 꾀를 냈습니다.

"여보, 시장에 나갔다가 보니까 살이 뽀얗게 찐 노인네를, 나라에서 아주 큰 돈을 주고 사갑디다. 그러니 우리도…"

"대강 얘기합니다만 그랬더니 며느리가 솔깃해서 그날부터 시어머니에게 아주 있는것 없는것 대접이 융숭해졌더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그 댁 우리 며느리가 제일이라며 안팎으로 칭찬하기가 바빴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뽀얗게 살이 찌고 건강해졌죠. 그러자 며느리는 이쯤에서 시어머니를 내다 팔 생각을 하는데 마침 나라에서 효부표창을 하겠다는거지 뭡니까? 시어머니 모시는데 모범이 됐다나요. 그러니 내다 팔 엄두도 못내고 시어머니를 더욱 잘모시며 살았다는 얘깁니다.

남이 잘못하는 걸 야단치고 꾸짖는다고 해서 바로 잡아지는 건 아니지요. 집에 아이들도 따뜻한 말로 인의롭게 둥글게 대해줄때 달라지지 그냥 윽박지른다거나 몸뚱이로 강제 한다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하니까요.

그리고 남이 나를 보면 나 또한 어리석은 데가 한두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하는걸 보면 전자에 내가 몰랐던 때의 내 모습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걸 먼저 내 탓으로 돌리는게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상대방을 옳다고 받아주라는게 아니라 전자의 내 모습같이 보아 모나지 않게 상대하면서 한생각 바르게 주인공자리에 놓고 간다면 상대로 통신이 되어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마음은 어떻게 개발하는지요

문 따뜻한 봄날입니다
항상 봄날로 살고 계시는 큰스님 사랑합니다. 한마음 요전을 보다가 의문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스스로 마음을 개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마음의 진화방법 수행의 지침이 되도록 설해주세요

답 한마음 요전을 보다가 의문이 생겼다고 하시는데 그걸 내게 물어서 답을 듣기보다 스스로 물어서 답을 듣도록 해보세요. 내 속에서 나온 의정이니 알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 하고 다시 놓고 관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 도리를 공부하다보면 일토당토한 의문이 생길때도 있습니다. 그럴때 나온 자리에 되놓고 '주인공, 너만이…' 하면서 몰고 들어가면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게 바로 수행이며 내가 나를 알게되는 길입니다. 아무런 의문도 생기지 않는데 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다 공부재료이니 말입니다.

사이버 마켓 운영 잘 몰라요

문 저는 얼마 전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상점(사이버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점은 주로 약용작물(상황버섯,동충하초,홍화씨,누에가루 등)을 팔고 있으며, 처음 개설하게 된 목적도 한국의 전자상거래를 한번 주도해 나아가고 싶고 또한 심한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려고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마음가짐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운영이 될지 몰라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다니 그 마음이 아름답군요. 그런데 본인 자신도 그렇고 아픈사람도 그렇고 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약을 무시한다거나 병원치료를 외면하라는게 아니죠. 거기에 의존하고 매어달리기에 앞서 자신의 근본능력에 대해 굳은 믿음을 갖는게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세계만 전부로 알지말고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는 걸 알아야 약을 써도, 의사의 손을 빌려도 그게 제대로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을 팔더라도 파는 사람부터가 돌 아니게 한마음 기울여서 먹는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갖게끔 한생각 내준다면 같은 약이라도 결과는 다를 겁니다.

이왕이면 마음공부에 대해 일러주면서 약을 팔아도 파신다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묘비 세우는 문제로 속상해요

문 인터넷을 통해 큰스님께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 어찌 다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큰스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우선 용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아니오라 저희는 사남매 막내로서 집안일에 대해서는 시숙님 뜻만 따르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돈 걷어서 시부모님 산소앞에 비석을 세우기로 했다는데 막내 며느리인 저의 마음은 왠지 편치가 않아요. 엉망으로 되어 있는 시조부님 산소를 생각하면 그리고 찾지 못하는 조상님 산소를 생각하면 이번일(비석 세우는 일)이 먼저가 아닌듯 싶습니다. 큰스님께서는 물로 보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집안이 종교가 각각이다보니 뜻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 늘 저 혼자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남편조차 이 공부를 안하는 사람이다보니 수년간 발 구르며 혼자 선원을 열심히 다녔지만 지금 생각하니 부끄러운 마음만 앞서고 있습니다. 가족 아니 집안 모두 한마음으로 이끌지 못한 제 자신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큰스님! 이럴때 저는 어찌 해야 할까요? 가르침 주십시오.

답 생각 나는것마다 그렇게 일일이 붙들고 늘어진다면 언제 이 도리를 공부하시렵니까. 한 생각 일어났으면 그게 사대로 벌써 통신이 되는데 내 생각대로 안된다고 조바심을 내고 그러면 잘 돌아갈 일도 막히게 됩니다.

한생각 일으켰으면 주인공을 믿고 턱 놓고 관하세요. 그래야 말도 부드럽게 나가고 행동도 지혜롭게 나가게 됩니다. 그걸 마음으로 응쳐 매어놓고 어휴! 저걸,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있나?하고 짜증을 낸다면 될 일도 안되지요. 무조건 믿고 놓고 말기는 게 우선입니다. 내가 생각으로 딱 고정을 지어버리니 상대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내 공부도 영 더뎌지게 됩니다.

가족 축원도 집착 아닌지요

문 어머니와 저만 선원에 다닙니다.
가족들 생각이 나서 보름이나 초하루 때 가끔 축원을 올리기도 하는데, 가끔 그런 일들이 가족에 대한 집착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늘 건강하세요.

답 내 마음이 그러한데 어찌 어머니와 나만 다닌다고 하겠습니까? 가족들이 다만 몰라서 그럴뿐이지 내 한생각 일으키는 찰나에 공체로서 공용하고 공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맞을까 저게 옳을까 하실 것 없이 항상 둘이 아닌 마음으로 지극하게 하세요. 그러다 보면 전선과 전선이 이어져서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 1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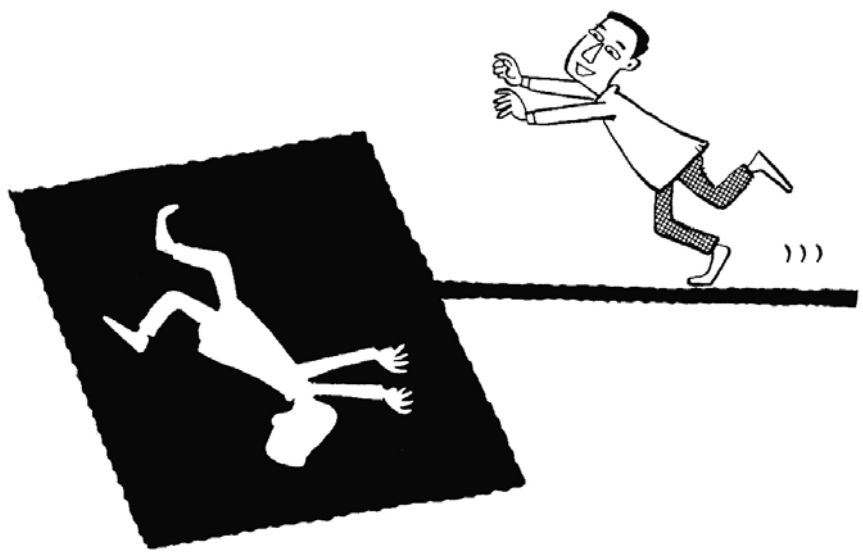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주인공에 놓고 몰고 들어가면 싹이 나와 조바심을 내면 잘 돌아갈 일도 막힙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213)

현실의 고(苦)는 나를 정화시키는 보살의 손길

인생은 '고'가 아니다. 생사가 있다고 하나 생사를 여의는 불생불멸의 열반이 있으니 고가 아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슬픔이 있다고 하나 만나고 헤어짐의 근본이 텅 비어 고요하니 고가 아니다.

삶에 있어서의 온갖 고통과 번뇌도 깊이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그것을 견디거나 극복해 갈 수밖에 없다. 물론 나의 가족, 벗, 이웃들이 덜어 주고 함께 나누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자기 짐일 수밖에 없다.

부처님께서는 삶이 곧 고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지적하셨다. 하지만 동시에 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직접 성취해 보여 주셨다. 부처님께서 성취하여 보여 주신 삶은 고가 아니라 완전 자유이고, 영원한 즐거움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사실 고가 아니다. 다만 고라고 느끼며 속박되어 살고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인생의 목표는 그 고로부터 벗어나 부처를 이루어서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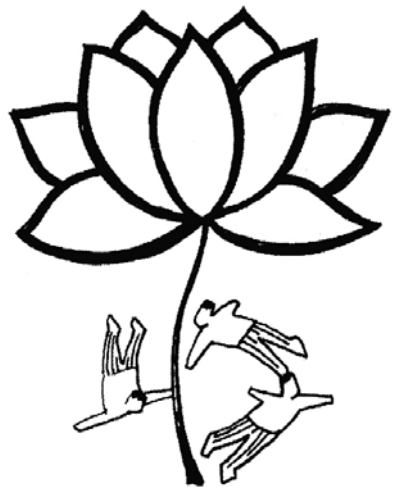
세상 사람들은 고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그 고의 참된 원인을 살피려 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한 가지 고에서 벗어난다 해도 또 다른 고가 닥쳐오는 것을 면할 길이 없다. 나라는 존재는 따지고 보면 쉴 새 없이 고락을 만들어 내는 생산 공장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생산해 낸 것은 내가 수집해 들여야 한다.

고의 경계들이 다가오는 원인을 모른다면 만방으로 끄달리게 된다. 그러나 그 원인들을 안다면 수억겁의 업고로부터 단숨에 벗어날 수도 있다. 평생을 고에 시달리느냐, 벗어나느냐는 한생각의 차이로 판가름난다.

내가 인연 따라 태어난 것부터가 인과의 산물이니 그대로 고이다. 이전에 살던 업이 쌓이고 뭉쳐 오늘의 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업보라고 괴로워한다면 한없이 괴롭겠지만 그 모든 것을 수련 과정이라고 생각을 돌린다면 오직 참 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을 돌리는 것은 모처럼 나온 새싹에 물을 주는 격이고, 그냥 업보라 해서 괴로워함은 물을 주지 않고 말라 죽게 만드는 격이다. 그래서 모르면 지옥고이고 알면 극락인 것이다.

과거에 입력된 것이 현실의 과보로 다시 나오기에 살다 보니까 고초가 따르고 서로 쫓기고 쫓는 고통이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발이 되기도 한다. 그것이 산 교훈이요 산 진리이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지금 내게 닥치는 고의 경계들은 사실 언제인가 내가 벌레로 살다가, 새로 살다가, 짐승으로 살다가, 혹은 인간으로 살면서 지었던 모든 행위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고의 경계가 다가왔다 해서 이를 피하려거나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나를 일깨워 수행하게 하고 다지는 것이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라. 그런 마음이라면 고는 이미 고가 아니니, 절로 놓고 돌아가는데 고집멸도는 어디 있겠는가.



현실의 고통이란 알고 보면 순간 순간 자기를 밝음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요 밑거름이다. 본래로 밝아 있음을 모르는 나를 일깨워 성숙시키고 종내는 해탈로 이끌려는 수련의 과정인 셈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혹은 아무리 즐겁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사성제의 가르침이 그것이다.

우리의 삶이 고라고 하지만 동시에 제도의 과정이니 고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삶을 고라 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 실은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흙탕 물에 빠져 본 사람은 자기가 해보았으니까 다시 빠지지 않고 남도 건질 수 있지만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그때를 알 수도 없거니와 남을 건져 주지도 못한다. 고 속에서 굴러 본 사람이라야 굴러 보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감응할 수 있는 것이다.

고라는 것도 나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 닥치는 것이니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첫째는 인간으로 형성시킨 게 고마운 것이요, 둘째는 그렇게 분별해서 모든 것을 알게 만들어 주니 고마운 것이다.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딪힘도 오는 것이지 자기가 나지 않는다면 무슨 부딪힘이 있겠으며 무슨 상대가 있겠는가. 그러기에 고다, 업보다 하기 이전에 참 나에다 일체 경계를 맡겨 놓고 관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람 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고, 부처 되기 더더욱 어렵다고 한다.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할 일이다. 모든 것을 '내 주인공이 나를 성숙되게 둥글게 이끌어 주는 과정이로구나' 하고 믿고 놓아라. 그때는 고에서 그냥 타파해 버렸기에 집도, 멸도, 도도 없다. 고라는 것을 잘 요리해서 맛볼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맛이 되고 감사할 일이다.

현실의 자기 모습을 보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미래의 자기 꼴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자기를 돌아보라 하는 것이니 현실의 고나 인과 등은 그대로 수련 과정인 셈이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치면 오히려 나쁜 공기와 먼지 그리고 불결한 것들을 다 청소시켜 주니, 현실의 고는 오히려 자기를 정화시켜 주는 부처요 보살이다.

협찬 : 장규봉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내가 나를 모르면서 뭘 안다고 하겠어요

☞ 15면에서 계속

부모님 선원에 인도하고 싶어요

문 오랫만에 뵙습니다.
마음으로 되지 않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이 내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고 일체를 주인공에다 일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딪침이 너무나 많아서 실망과 근심이 저를 감싸고 있어서 가르침을 여쭈고자 합니다.
죽이고 죽이고자 나선 길도 걸림과 마장으로 하루 하루가 괴롭고, 더우기 저의 부모, 형제를 한마음선원에 인도하여 자성을 깨치고자 하여도 부모, 형제는 무명의 고정되고 더 고정된 길만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 이젠 할 말이 나오지 않는군요. 자식이 되어서 무언가 조언을 하여 드려도… 믿지 않고서 무조건 부정하고, 당신이 아시는 그러한 믿음(꿈, 타신,기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왜… 이리 주인공 공부가 더디고 힘이 들고 하는지요. 봄볕에 얼음이 녹듯이… 지혜가 물리 터지듯이… 이 봄날 간절히 큰스님께 법문을 청하옵니다.

답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지요? 아버님 일로 안타깝다고 하셨던 분인것 같군요. 조급하게 생각지 마세요. 가족들이 아직 모른다해서 끝내 모르고 말까요? 내가 간절히 마음을 내는 데도 말입니다. 이 공부는 정진이 우선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하면 불이 들어옵니다.

참과 거짓 둘 아닌 도리

문 참인줄 알았더니 거짓이고, 거짓인줄 알았더니 참이되는, 즉 참과 거짓이 둘이아닌 하나인 도리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주십시요.
한가음 주인공(참 '나')에게 귀의합니다.

답 거짓이다 참이다가 붙질 않습니다. 저 프로펠라 돌아가듯이 참나도 쉬지 않고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데 어디 던지 붙을 자리가 있어 참이다 거짓이다 하리까. 그거 따지다가는 한데에 떨어지고 맙니다.

用이 절대선을 근본삼는 이유

문 모두를 사랑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용의 근본은 절대 선을 바탕으로 삼는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절대 선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한 생각이 사대로 통신이 되는데 거기에 무슨 절대니 상대니 하는게 붙겠습니까? 이건 절대다 저건 상대다 하면 그건 벌써 사량이 되지요. 마음은 빛보다 빨라서 스위치 탁 올리면 그냥 불이 들어와 밝아지듯이 그렇게 찰나에 통하게 됩니다. 거기에 무슨 용이 어떻다느니 하는 말이 붙겠습니까? 목이 말라 냉장고 문열고 냉수 한모금 꺼내 마시는데 따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일체가 佛인데 중생 있는 까닭

문 이 지구상의 전쟁과 온갖 원인으로 고통받는 생명들 그리고 저자신의 모순을 생각하다 갑자기 조물주가 있다면 바보는 아닐테고 뭔가 뜻이 있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 이면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너와나가 하나라면 일체제불과 일체중생이 하나일진데 한분만 깨쳐도 일체가 다 깨치게 되는게 아닌지요…
그런데도 미혹한 중생이 있으니 이는 무슨 연유인지요…

답 본래 마음은 청정하고 여여하며 깨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무명에 덮여서 제 뿌리 불성을 외면하기 때문에 온갖 탈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내것' 하는 그 생각부터가 무명인데 그 무명이 자신의 참모습을 가리고 있으니 일체 만물만생이 제각끔으로 보여 너니 나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마음으로야 어찌 둘이라 하겠습니까. 몸뚱이는 제각각이라도 마음은 한 마음이니 만명이 깨우쳤다해도 부처는 한 부처 입니다. 몸뚱이가 부처되는게 아니라 마음이 부처이니 한마음 한 부처입니다.


그림 · 최주현

이 공부는
정진이 우선
마음으로
지극히 하면
전선과 전선
이어져
불이 들어옵니다

내 뿌리 믿고 관해 나부터 알도록 하세요
밖으로 끄달리면 빈집같아 온갖 일 생겨

나와 주인공이 둘 아닌지요

문 항상 스님의 법문을 듣고 생활의 지침으로 하고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체를 나로 보는 것과 주인공으로 보는 것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저는 일체모두를 주인공으로 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체를 주인공으로 보면 모두가 둘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니 나로 보는 것과 주인공으로 보는 것이 둘이 아닌지요

답 '일체는 한마음이 근원되어 생겼어라' 하는 노래말 아시죠. 우주 삼천 대천세계 삼라만상이 다 한마음 주인공의 나툼 아닌 것이 없으니 하나다 둘이다 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일체를 나로 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공심 · 공용 · 공식 · 공체로서 공생하고 있는데 자꾸 너니 나니하고 둘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일체가 둘이 아니기에 주인공이라는 것도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일체를 나로 보라' 는 뜻

문 오늘 문뜩 생각한 것이 나 아닌 것은 모두 남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행동하기가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스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다' 하시는데 거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쭙습니다. 모두를 나와같이만 보라 하는 것도 그렇구요.

답 나와 남이 각각이다. 하나다 하기 이전에 나부터 알아야 남도 알고 세상도 알지 내가 나를 모른다면 뭘 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할까, 어떻게 볼까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한 것입니다.
나부터 알아야 둘이 아닌 줄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따지기 전에 내 뿌리를 믿고 일체를 놓고 관하며 나부터 알도록 하세요.

큰스님처럼 될수 있는지요

문 큰스님께 삼가 죄송스런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올립니다. 고구정녕히 법을 설하시는데도 잘못 알아듣는 것이 죄송스럽고 그런데도 엄청난 자비로 대하심에 지극한 마음을 올릴 뿐입니다. 하루살이가 천년을 사는 고고한 학을 알 수 없듯이 저또한 큰스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루살이나 고고한 학이나 성품에 있어 같다고하니 놀래고 반가울 뿐입니다.
어찌 큰스님께서는 그렇게 멋있고 인간적이고 능력이 있고 대자대비하신지요. 어느덧 큰스님은 저의 모델(이상형)이 되셨습니다. 저희들도 꼭 큰스님처럼 될 수 있는지요.

답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만물 만생이 다 부처 아닌게 없으니 그대로 한 마음이요 한자리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 뿌리를 믿고 뿌리를 발견하세요. 육조스님께서 자성이 본래 청정한줄 내 어찌 알았으리까, 자성이 만법을 들이고 냄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열심히 하시겠다니 고맙군요.

영의 지배 받게 되는 까닭

문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빙의(영가에 지배 당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째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며 이러한 것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이며 어떤이는 보다 영적인 존재에 의해 계시를 받는다 하는데 이는 가르침인지 아니면 이또한 뛰어 넘어야 할 경계인지요…

답 과거에 자기가 지은 것을 그대로 받는데 거기엔 유전성으로 오는 것도 있고 영계성으로 오는 것도 있고 업보성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해가면서 경소에 밖으로 끄달리고 바깥대상에 의지하고 바깥대상을 믿고 그런다면 빈집과 같아서 온갖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빈집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벌레들이 드나들고 짐승들이 드나들어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조사스님들이 네게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뺏을 것이요 주장자가 있다면 주리라 하셨답니다. 어떤 영적 존재의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다 내 주인공의 나툼이니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대상으로 보게되면 그 순간부터 노예가 되고 말겁니다.

'둘이 아니다' 무슨 뜻인지요

문 큰스님 설법에 둘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제 수준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인지 제가 모두 주인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인공으로 보니 자동으로 둘로 보지 않게 되고 너와 내가 없게 됩니다. 주인공으로 보면 그냥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인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세세 생생 큰스님을 따르겠습니다

답 모두들 둘로 보니까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도 실은 이름입니다. 일체가 그대로 부처요 한 마음인데 둘이니 하나니 할 것도 없질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걸 따져서 아, 그게 그렇구나 해보아야 그건 어디까지나 빈 맷돌 돌리기가 되지요.
무조건하고 주인공을 믿고 놓고 관하는 가운데 내가 맛을 보아야 비로소 둘이 아닌 도리도 알게 되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니 실천이 제일입니다.

생명 · 의식 왜 생겨났는지요

문 언젠가 저의 어머니께서, "죽으면 자취도 없이사라졌으면 좋겠다. 영혼도 남기지 말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삶이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지요.저도 가끔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스님, 어리석은 질문인지도 모르나 생명이라는 것과 의식이라는 것들이 왜 생겨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비롯해 우주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기지 않았다면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는이 없었을 텐데, 나라는 존재, 그리고 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들 수고를 해야되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답 그렇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세상도 없고 우주도 없고 그 지긋지긋한 병고 액난도 없겠지요.
그래서 이 공부는 내가 죽는 공부입니다. 내가 죽어 비로소 나를 보는 공부요 내가 죽고 또 죽어서 본래 둘이 아니며 더불어 나투는 도리를 아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 나를 보기전까지는 아무리 이론으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해 보았자 가당치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확신하지도 못할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이 공부는 살아서 이승 저승을 넘나들고 살아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활보하고 살아서 열반하는 공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몸뚱이가 죽어도 챗바퀴를 벗어날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실직등 가정 어려워요

문 저희 집안 얘깁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안타깝고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지만 늘 진실하게 관하면 현생활에 처해있는 어려움도 해결된다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집은 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는 실직당하시고 대신 어머니께서 가게를 하셨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게를 그만 두셨습니다. 가게세는 매달 내야하는데 점포를 내놓았지만 계약이 이루어 지지않고 집도 팔려고 내놓은 상태이지만 매매가 잘 안되고 있는것 같아 제 마음이 답답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큰스님 한마음 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부모님 하시는 일에 도움도 되지않고 이렇게 해서라도 부모님을 돕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관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답 어머님 말씀대로 놓고 열심히 관해보세요.
믿고 놓고 관하는데 무슨 조건이 붙는다면 그건 아닙니다. 흔히들 믿고 놓는데 왜 잘 안되느냐 하는데 그건 벌써 뭘 바라고 한 것이니 물록 놓은게 아닙니다.
놓는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주인공! 되게 하는 것도 너, 안되게 하는것도 너, 너 밖에 없어! 할때 무조건이 되겠지요. 앞으로 가는 것만 법이고 뒤로 가는건 법이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는건 맞고 왼쪽으로 가는건 틀리다고 하시겠습니까? 그것마저도 놓고 관하세요.

한생각 일으켰으면
주인공을 믿고
턱 놓고 관하세요
그래야 말도
부드럽게 나가고
행동도 지혜롭게
나가게 됩니다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기쁨은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에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737-0697)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buddhapia.com)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1166-3858

간병인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02)363-7884
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당뇨완지
대한불교원융종 세운정사
0671)626-4984
011)696-4848
전북 남원시 하정동 226번지

강좌

易학교육전문학원 교재로 만든
집에서 배우는 **易학** 학습지
(8회 완성)
· 역학교육의 1번지 易학교육전문학원 에서 만들었습니다.
· 원장 박규병(교직경력25년, 고려大卒)이 역학보시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 흩어져 있는 실력을 쉽게 핵심정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기존의 학습지와는 전혀 다른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농협 037-01-298413 (예금주) 글향기■
易학교육전문학원 (02)332-8729(代) (042)525-5774

사주·명리 지도
(사단법인 한국역술인협회 학술위원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 학술위원)
◆ 金東炫 선생 직강 ◆
(기초이론 및 실제감정, 초보자환영)
◆ 도연 역학 연구원 ◆
전화문의 : 894-5233
·위치: 경기 광명시 하안동
중심상업지구 사거리 태정B/D3층

동양사상 공부하실 분
◆과목 : 참선지도, 불교경전
역원문, 노장사상,
관상, 육효, 사주,
풍수지리, 가상(家相)
※전강 탄허스님 문하에서 수학
◆강사 : 김 소 호 거사
어려운 시대에 무엇이 문제인가?(출장상담도 해드림)
서울 성북구 정릉동 266-112호 **달마정사선원**
011)755-5333/02)914-6551

사주 명리 수강생 모집
▶ 사주·신수·궁합·택일·작명·방위
▶ 진로 선택 등을 자신있게 간명할수 있도록 책임지도 합니다.
▶ 해암사 서울포교원 법성스님 직접지도
혜암선원 02)962-9871
이문동 외대앞

특별 상담
중국 국제 침구사 자격시험
1. 포교활동 하실 분
2. 해외 이민 또는 취업 하실 분
3. 해외 포교활동 하실 분
4. 침구학을 연구나 공부하실 분
5. 장래를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실 분
6. 기타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
02)875-8310~3

동양·역학 강좌
▶ 사주학, 성명학, 궁합, 택일, 개운법 ◀
기초이론 및 실제감정, 책임지도
◆ 金東炫 선생 직강 ◆
사단법인 한국역술인협회 학술위원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 학술위원
◆ 도연 역학 연구원 ◆
문의 : 02)894-5233
·경기 광명시 하안동

구인

스님 모십니다.
02)933-6701
02)932-2537

경주시 황용산 토굴에 사는 비구승입니다.
탁발을 위해 천도재, 49재, 기도 및 법회 보아 드립니다.
필요하신 사찰이나 뜻있는 불자은 도움 주시는 마음으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561)773-8640
동로 합장

오후에 학원 다니며 공부할 수 있는 도량을 찾습니다.
회룡 합장
011)454-0140
0575)873-5596

공양주 구함
약사암
011)
9715-4366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서울 대림3동
근본불교회관
02)831-3887

절운영 맡겨주실 분
◆모든 불치병치료 능통함.
◆기치료법 전수함.
광 명 스 님
016)385-745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제천 수산면
아미산 황룡사
0443)47-8761
0443)47-5591

공양주 보살 모심
(40~50대)
◆지역 : 전남 순천
◆사찰 : 도선암
0661)745-3500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32)868-2989

승납 15년이상
비구니 부전스님 구합니다.
대 원 암
0545)974-0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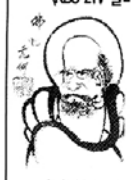
탈종공고

◆ 탈 종 공 고 ◆
대한불교 원융종 귀하
■ 사찰명 : 구천산 광명사
■ 주지 : 도성스님
■ 주소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우곡리 산 38-1
위 사찰은 귀종단과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합니다.
1999. 4.

기타

귀 달마스님
◆사주 : 대운·행운·신수
◆작명 : 출세 문자 비법
◆관상 : 빈부 귀천 학당
◆풍수 : 자손 창성 번영
◆부적 : 발원 소원 성취
남녀 선착순 10명 철학특별지도
▶상담 시간 : 평 일 10:30 ~ 17:00
(일요일 휴무) 토요일 10:30 ~ 15:00
02)999-5551 달마사

전통사찰 건축 불사
문화재 관리국 기능보유자 등록 제 962호
4불사 대웅전, 선방, 요사채, 종각, 산신각, 기둥은 육송만 사용. 그리고 4미터 이하도 육송을 사용해 드립니다.
▶시공사찰
용주사 용화사 성남사 지장사 구원사
대인사 비봉사 승가사 진관사 그외등등
현재 은선사 천운사 불사중
■공장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주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28번지
가든아파트 가동 202호
0572)636-2509/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大慈大悲 달마도는 자연의 기운입니다
(KBS 2TV 달마도의 신비출연-98.7.24)

▶ 수성사
02)540-5926
무하합장
이사, 삼재
차량운행
수맥차단
5회의 불보살님 견불후 불교미술탱화 입문 12년<관음보살도 보급중>

명복기원
강남 거주 육氏
큰어머님 濟州 高氏
기일(음. 2. 28)을 맞이하여
명복을 비는 마음에서
법보시합니다.

순수한 토종 엄주열매가 여는
목암주 나무를 염가분양합니다.
062)222-6003(주간)
062)224-8895(주간)
062)234-0095(야간)


김도현 (45세)
인연을 기다립니다.
나이·초재혼 불문·
독신 여성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02)845-7137/016)248-7137

기(氣)와 황토쑥뜸 치료
인생상담-질병상담문제아 무료상담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신경통, 당뇨, 비만증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병 기적같이 고쳐짐.
051)852-0067/011)453-86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182번지 **옥천사**
주지 대 원 합장(氣 달마도 무료보급)

달마도 전문 표구사
30년 전통의 병풍, 표구, 달마, 사찰작품 전문
달마의 氣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특수기법으로 표구합니다.
▶ 달마도의 영험함은 氣에 있습니다. 불자의 신심으로 氣가 상하지 않도록 특수비법으로 표구합니다.
▶ 달마님을 모시어 소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명표구사로 문의 바랍니다.
(代)02)374-9886 유명표구사 합장
택배·전국 어디나 보내드림 서울 은평구 응암4동 585-8

벽지 ◑ 바닥재
버티칼·페인트
도매시장 가격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 출장견적 환영
해인 인테리어
02)2201-1470
019)369-8000

사찰안내

사찰 (급) 안내
◇위치 : 대전 ◇부지 : 800평
◇법당 : 50평 ◇요사 : 50평
◇가액 : 1억 8천(시가의 1/3가격)
⊙ 전국 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 전세 안내
◆위치 : 서울 서대문구
◆법당 : 15평(즉시법회가능)
◆부처님 삼존불, 방2, 주방 2, 화장실 1
◆가격 : 스님과 면담후 아주 저렴한 전세가로 드립니다.
※탁발하시는 스님 원합니다.※
02)823-0788
019)218-0788

포교당 안내
◆위 치 : 대구 성당사거리 3층 56평
◆보증금 : 2,000만원
◆월 세 : 30만원
◆시설완비(옥상 사용가능)
019)270-2260

사찰 운영하실 분
■위치 : 서울 ■법당 : 20평
■요사 : 70평 ■부지: 800평
■가액 : 5억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사찰 양도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02)998-1994
청송기획 011)713-5634

사찰(포교원) 안내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지 : 430평
◆건평 : 100평(아래층 75평, 위층 25평)
◆ 가격 : 1억 9천(가격절충)
◆ 덕산온천 옆(교통편리함)
0458)337-6348

양평 서종 부지
◆소재 :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408번지 409번지
◆지목 : 토임 630평(2필지)
◆가액 : 1억2천
◆특징 : 서울에서 40-50분거리
0338)772-7235
016)341-7235

토굴 안내
◇ 위 치 : 경남 하동군 청학동 근처
◇ 대 지 : 90평
◇ 건 평 : 15평(황토흙방 3)
◇ 가 액 : 2천 8백만원
◆ 최고의 명당(황토흙 방 3개)
◆ 차도 전기 미설치
018)621-6969/0595)882-6407

사찰안내
◆위치 : 고흥군 동일면 전남나로도 성은암
◆부지 : 2,500평
◆법당 : 21평(요사채 2동,자연석간수)
◆화청룡 우백호의 어우러짐과 절뒤에 자연 탐바위 절앞바다에 거북섬 거북이 절로 올라오는 형상이며, 거북섬까지 하루 2번씩 바닷길이 열림.기도영험도량으로 전국각처에서 사찰 참배중
◆ 가격 : 2억 5천만원
0666)834-4538/0673)642-2965
※연육교 가설로 광주에 2시간 거리

사찰 월세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신도극장 뒷편
◆ 평수 : 45평(법 당, 요 사 채), 단독주택
◆ 가격 : 500만원(보증금) 월세 16만원
◆ 시설비 : 1,300만원 (집전체수리비) 절충가능
011)705-2806/02)379-0117

사찰(급)안내
◆위치 : 진주시
◆부지 : 142평, 대지(등기필)
◆법당, 요사 : 37평
◆가액 : 1억 3천만원
◆특징 : 진주시내 10분거리 소재, 교통편리, 준공 4년, 고급 전원주택(임법당), 시설일체 무상기증
080)048-4848
011)488-3339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산청군 금서면
◆부지 : 약 2113평
◆건물 : 5동 (법당, 산신각, 요사채2동 샘터, 창고 및 화장실1동)
◆가액 : 2억 5천만원
◆특징 : 소박 편안하며 조용한 지리산 자락으로 식수에 수질이 좋고 양이 풍부함, 사찰경내까지 도로 포장 및 주차장 있음
053)651-9363

사찰 안내
◆위치 : 대구시 북구 산격동
◆법당 : 25평 ◆요사 : 방2개
◆2층 양옥
◆가격 : 전세금 3천만원
053)957-3066
011)455-6198

절터 안내
◆위치 : 서초구 청계산
◆절터, 묘터, 유실수 부지
◆부지 : 1만 5천평
053)358-2705
011)512-3730

사찰 안내(송림사)
◆위치 : 경북 의성
◆대지 : 1천 92평, 법당 10평, 요사채 20평
◆지하수 170m, 주차시설 완비
◆가격 : 8천만원
862-0319
011)9570-3533

사찰 전세 안내
◆위치 : 광주광역시내권 (전망 좋습니다.)
◆대지 : 300평
◆법당 : 50평
◆요사채 : 50평
◆가격 : 전세 6천만원
062)375-9986
011)608-2669/017)602-2669

토굴(별장) 안내
◆위치 : 경남 밀양시 청도면 구기리 소재
◆부지 : 대지 200평, 건평, 32평 (방3개, 거실, 부엌, 목욕탕2개)
◆가격 : 1억(절충가능), 단층 벽돌집, 신축 3년(전원주택)
※ 부곡하와이 온천에서자가용 20분, 밀양에서 40분, 마당까지 진입가능)
051)891-7255/051)891-7255

사찰·토굴 구하시는 스님
◆위치 : 덕유산 앞 삼봉산 구천동, 거창군 30km, 무주군 30km, 경계선
◆대지 : 215평 ◆건평 : 25평
◆신축 벽돌 스라브, 현대식 건물
0657)322-1240
053)473-8952

서울·부산지역 사찰구함(급)
⊙ 서울·부산시내 또는 근교 사찰이나 암자를 구합니다.
⊙ 전화 상담시 상담내용은 보안유지 합니다.
한국불사연구소 (02)561-7020

사찰 안내
◆위치 : 서울시내
◆부지 : 약 500평
◆법당 : 40평 ◆요사 : 30평
◆가액 : 2억 7천만원
◐ 전국사찰 양도·양수하실 분 연락바랍니다.(다량보유)
좋은인연 (02)561-7791

사찰 안내
◆위치 : 전남 강진 근교
◆부지 : 2,300평
◆목조 : 대웅전 32평,산신각 4평, 주지실 5칸 28평, 대중방 5칸 20평
◆스레이트조 : 주방 20평, 가건물 15평, 토담집 12평, 사택 25평 등
◆가격 : 사정상 매가 7억상당-> 1/3가격으로 절충해 드림
※도시근교 사찰과 교환도 함, 비구니스님 환영
019)554-3484

포교당 안내
◆위치 : 길음역 3분거리
◆평수 : 50평
◆시설 A급 (시설비 없음)
◆전세 : 7,000만원
02)941-3195 수도사

포교원 안내
◆위치 : 도봉구 방학2동
◆평수 : 25평
◆법당 주방시설 스님거처할방1
◆가격 : 전세 28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2)954-1289

지리산 계곡(암자터)
⊙경남 함양군 휴천면 남호리 876번지 외 2필지
◆현재 밭 210평(준농림지 1,500만원)
◆함양읍 또는 생초 I.C →남호리 소재 한남마을 서측 근거리(지리산 장터목 산장)에서 50m위치
⊙지리산(천왕봉)밑 중산리 계곡 옆 토지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428번지 550평, 위 같은 리에 산 50번지 3,060평)
▶합 3,610평 ◆가격 : 7만원(준농림지)
0596)972-4968

사찰이나 암자와 교환을 하고 싶습니다.
◆구리시 수택동 고급주택
◆전세 윤자포함
◆대지 46평, 건평 95평
◆가액 : 3억 7천만 윤자 3,500만,전세 8,800만
◆주인거주 3층, 상가지역. 위치좋음.
◆고급식당으로도 사용가능
◆현대식 건물
0346)566-7606/011)496-7706
※탱화 필요하신분 전화요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불친절 공무원에 '옐로카드'

생활 정통부는 공무원들의 대민서비스 정신을 높이기 위해 노란색의 '불친절 평가카드'와 녹색의 '친절 평가카드'를 제작, 서울 종로구 세종로 청사 1층 민원창구에 비치했다. 민원인들이 불친절한 대접을 받았다고 느끼면 명함 크기의 노란카드에 방문일시, 방문인 성명과 전화번호, 담당공무원의 이름과 간단한 사유를 적어 보관함에 넣으면 된다.

'아름다운 소리' CD롬 보급

환경부는 8일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백가지를 골라 녹취한 뒤 유래와 사연 등을 소개하는 영상과 함께 CD롬에 담아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정대상에는 강화도 전등사 종소리, 증기기관차 기적소리, 강이나 폭포의 물소리와 바다의 파도소리, 고향마을 새소리, 갈대숲 바람소리 등이 포함돼 있다.

교통질서 위반 보험료 할증

교통 금융감독원은 13일 '자동차보험료 차등제도'를 확정, 5월1일부터 2000년 4월30일까지 1년간 교통위반 실적자료를 축적한 뒤 2000년 9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뺑소니, 음주, 무면허 운전을 1회 이상 했거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을 2회 이상 한 운전자는 2000년 9월1일부터 보험료를 최고 10%가량 더 내야 한다.

인천항 연중무휴 개방

견학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7일 바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천항을 무휴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인천항 견학코스는 인천항내 부두~조경지역~갑문~관제탑 구간이며, 셔틀버스로 2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032)880-6114

PC통신 도중 전화도 OK

통신 PC통신중 전화메일서비스를 이용하면 PC통신도중 걸려온 전화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다. 신청은 국번없이 '100', 가입비는 없고 요금도 무료. 이 상품을 이용하면 전화를 건 사람은 안내음에 따라 메시지를 남기면 된다.

우체국서 무료 컴퓨터 교육

컴퓨터 정보통신부는 주부 노인 등 중장년층 지역주민에 대한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전국 17개 우체국 내에 무료컴퓨터교육장 및 인터넷프라자를 설치, 이달말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열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무료교육장 및 인터넷프라자가 들어서는 곳은 부천 동두천 밀양 합천 공즈 태안 고흥 장흥 나주 안동 달서 익산 영월 가평 김제 속초우체국 등이다.

21세기 인류 3대재앙 '에이즈-물부족-식량난'

월드워치硏 보고서 "에이즈 가장 심각"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생루라는 사람이 부처님께 문안드리며 여쭈었다. "무슨 인연이 있었기에 성(城)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줄어듭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소행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바람이 시절을 맞추지 않았고 비가 제때에 내리지 않아 곡식이 자라지 못하여 죽은 사람들이 길가에 널려있게 되느니라. 나라는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번성하지 못하느니라."

세계적 환경단체인 월드워치연구소가 10일 공개한 보고서는 21세기 인류가 맞게 될 3가지 위협으로 에이즈와 물부족, 식량난을 꼽고 이 가운데에서도 에이즈가 가장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멜더스를 넘어(Beyond Malthus)'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이 세가지 문제가 사회붕괴와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 이같은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개도국의 적절한 정책과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프리카 성인 25% 에이즈 감염

에이즈 보고서가 첫번째 위협요소로 언급한 에이즈는 다음 세기중 아프리카 인구의 5분의 1 이상의 목숨을 빼앗을 재앙으로 내다봤다. 보스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감비아, 스와질랜드 등 아프리카 국가 성인의 20~25%가 이미 에이즈에 감염돼 있다는 것. 보스와나의 평균수명이 90년 62세에서 98년 44세로 줄어든 것과, 짐바브웨의 평균수명이 93년 61세에서 2000년에는 49세로, 2010년에는 40세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에이즈가 가공할만한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케 한다. 인도 역시 4백만명이 에이즈에 감염돼 있으나 정부의 무관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도 덧붙이고 있다.

세계 경작지 60% 물없어 노는땅

물부족 물부족은 급증하는 인구로 인해 초래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물은 고갈될 수 밖에 없다는 것.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물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다음 세기에는 전체 경작지중 40%만이 물을 댈 수 있을 정도로 물부족 문제는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 경작지의 4분의 3이 물부족으로 인해 못쓰게 됨으로써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영양실조



◇남아공화국의 에이즈 환자. 에이즈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에 걸려있다는 국제물기구의 추정통계치도 인용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증가 식량부족 초래

식량난 급격한 인구증가 역시 필연적으로 식량난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인구증가에 따른 1인당 경작지의 비율이 줄어드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나이지리아, 에디오피아, 파키스탄 등과 같이 가족계획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나라들이 큰 위협을 받을 것으로 보았으며, 나이지리아의 경우 2050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등도 국민 1인당 경작지의 0.03헥타아르 정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레스터 브라운 연구소장은 "에이즈의 대부분이 성인 대상의 재앙이라면 물부족과 식량난은 아이들에게까지 배고픔을 요구하는 무서운 재앙"이라며 인류의 더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21세기 인류의 3대 적이 될 에이즈, 물부족, 식량난을 해결할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행위에 의해 도적이 되고, 행위에 의해 지배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결국 이 세가지 문제는 인류에 의해 초래됐으며, 다시 선업을 쌓아야만 해결될 문제인 것이다.

"지금이 바로 자신을 돌아보아 참회할 때다. 때를 놓치지 말고 참회하라"는 〈증일아함경〉의 가르침을 인류는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할 때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113만 가구 가정폭력 발생

우리나라 전체 1천300만 가구의 8.7%인 113만 가구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14만3천 가구에서는 부인이 남편을 학대하거나 때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인의 폭력은 크게 신체적 폭력 52.8%, 정서적 학대 47.2%로 나타났는데 부인이 남편을 학대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경우는 연령별로 40대가 48.7%로 가장 많았다.

"정숙하고 어진 아내는 집안에서의 좋은 벗이며, 스스로 닦은 선행의 공덕이 내생에서의 좋은 벗이다"는 〈별역잡아함경〉의 말씀을 새겨보자.

해외여행 여행사 과실 피해 보상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현지 여행사의 과실로 여행객이 피해를 입었을 때 여행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숙박업소나 관광 일정 등은 천재지변이 아닌 한 여행사가 바꿀 수 없으며 만일 계약과 다를 경우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인간복제회사 한국 상륙

클로나이드사 한국지사는 지난 8일 서울 강남전철역 등지에서 3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생명복제 찬성 가두시위'를 갖고 인간복제 및 애완동물복제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제공하는 인간복제 서비스를 받는데 드는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2억4천만원선. 또 6천만원을 내면 의뢰인이 죽을 경우 보관세포를 꺼내 새 인간을 복제해 준다고 한다.

클로나이드사는 "사람의 생각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것을 찾아낼 수 없다."는 〈상응부경전〉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라.

한명우 기자

시론

맹구경의 교훈



홍신선
〈동국대교수 · 국문학〉

"생명을 마치 일회용 도구나 공산품 쯤으로 아는 비통한 현실"

큰 땅덩이가 모두 큰 바다로 되었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 때 눈 먼 바다 거북이 한 마리 살고 있었다. 그 거북이는 백년에 한 번씩 뭍으로 오르기 위해 머리를 바다 수면 위로 솟구쳐 내놓고는 했다. 그러나 눈이 먼 까닭에 다른 물건이나 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그 일이 불가능 했다. 마침 마다 가운데는 구멍이 뚫린 널판때기 하나가 떠돌아 다니고 있었다. 이 뜬 나무 판때기는 바람과 물결을 따라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흘러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바다 거북이 비록 수명을 한량없는 겁으로 누린다고 하더라도 이 널판때기를 만나 구멍을 통하여 제 몸을 싣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겁 동안에 한 두 번도 가능할지 말지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널판때기는 널판때기 대로 사해(四海)를 방향없이 표류해 다녔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북쪽 바다를 헤엄치면 널판때기는 서쪽 바다를 떠서 흐를 수도 있었고 또 서쪽 바다에 거북이 떠서 흐르더라도 널판때기를 바로 만난다는 보장은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바다 거북이 수면위로 솟구쳐 오르는 일은 백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부처님이 설한 이 이야기는 〈잡아함경〉 가운데 맹구경(盲龜經) 편에 나오는 짤막한 비유담이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이 서로 시공을 함께 하면서 만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일깨워 준다. 말하자면 눈먼 거북이와 널판때기가 몇 천만 번의 부침을 거듭하면서 서로 무한한 점 같은 공간을 옮겨다니다가 만나는 것이 우리네의 인연이고 회합(會合)이란 가르침인 것이다.

사람의 생명도 따지고 보면 이와같은 몇 천만, 아니 몇 천억 번이 될지도 모르는 인연과 회합 끝에 비로소 태어난다. 곧 한 생명이 생명으로 존재하는 데에는 숱한 인과 연이 얽히고 뒤섞여야 하는 것이다. 어찌 생명이란 것이 귀하고 중하지 않겠는가.

한 두 번 봄비가 내리자 많은 꽃들이 다투어 피기 시작한다.

엘리뇨 탓이겠거니 싶지만 날씨가 요즈음은 너무 심하게 변덕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눈을 끌고 마음을 뺏는 큰 꽃들이 그런가 하면 갓 돋아나는 봄풀 속에도 작은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고 있다. 그 꽃들 하나하나도 따지고 보면 부처님이 가르치신 눈먼 거북이 이야기 그대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헤아리기 어려운 인과 연을 만나 저리 애잔하게 생성되었을 것인가.

그렇다. 자연 속에서 만나는 푸나무들의 생명도 곤충의 목숨들도 저리 귀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는 새삼 말할 것이 없다. 연분이 닿으면 태어나고 없으면 그만 생명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그런 차원의 언술로서는 이 귀중한 생명의 이치를 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오죽하면 부처님도 이 같은 생과 사의 어려움을 벗어나 해탈을 얻도록 가르치셨겠는가.

그런데 세기말이라고 일컫는 요즈음 현실 사람살이 형편이나 추세는 우리를 한없이 우울하게 만든다. 사람의 생명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너무 거리낌없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팔이나 다리를 끊는 끔찍한 자해놀음도 그렇고 서슴없이 남의 인명을 빼앗는 흉악범죄도 그렇다. 뿐만이 아니다. 얼마전에는 쥐에서 키운 정자를 부인에게 옮겨 출산을 시킨 일본 대학의 유전공학 실험이 크게 화제에 오르기도 했었다.

최근에는 유전공학을 이용한 우리 소의 복제품인 '진이'도 큰 화제를 낳은 바 있다. 이 모든 일들은 생명을 마치 일회용 도구나 공장의 생산품 처럼 다루는 일이다. 너나없이 새천년이라고 법썩을 떨지만 이 막가는 세상추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觀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 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 선묵가협회 초대 작가로 추천함.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觀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2242-0255
(야)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당뇨 센타
전국 각 건강 식품점에서 성황리에 판매되고 있는
협진 辛通漢(신통한)은
당뇨인들 사이에서
"역시 협진 신통한이야 !"
라는 소문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화 주셔서 그 소문을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당뇨인의 영원한 도우미
협진 辛通漢(신통한)
· 전화주시면 무료 책자를 우송하여 드립니다 ·
문의처 : 협진 신통한 수입원
☎ 051)557-1721, 557-1726

초등 · 중졸 · 고졸(4 · 5 · 8월 실시)
검정고시



▶좋은 교재 · 질높은 교육
▶체계적인 학습관리 시스템
검정고시에 대한 가슴 흐뭇한 숨은 이야기는 많습니다. 누구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분/비밀보장)
변경사항
고입 · 사회(국사 포함)
대입 · 공통사회(정치, 경제, 한국지리 통합)
· 공통과학(과학 I, 과학 II 통합)



(등록시 제공되는 유명검정고시 강사진이 집필하고 본원이 제작한 최신교재)
한글반 읽고, 쓰고, 외우고
중검반 속성, 초등학교 과정
고검반 속성 중학교 과정
대검반 속성, 고등학교 과정
시험안내
· 주관: 각시도 교육위원회
· 40점 이상 평균 60점이상 합격 (과목합격 제도)
· 100%객관식(4개중 1개 고르기)
· 정규학교 졸업과 동등인정
상급학교 진학가능
저렴한 가격으로 질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교육기관
한국직업교육원
전국무료전화 ☎ 080)010-4100

심야전력기기
IMF · 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란 :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 보일러보다 약 1/3~1/4 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 · 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겨울철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깊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 · 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 · 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 02)883-7400(代)
· 영업부 : 02)877-6090
· FAX : 02)876-3378

청소년 불자 봉축준비 '설레임'

"부처님오신 날은 저희 손에 맡겨주세요."

부처님오신 날을 기념하는 청소년 단체와 종립학교의 준비가 다채롭다. 또 각계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봉축행사가 청소년들을 기다리고 있다.

해마다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온 명성여자고등학교(교장 이원주)는 올해 좀더 특별한 준비로 부처님오신 날을 맞는다. 불자어머니 모임인 '수심회'를 중심으로 학생·교사들이 함께 마련한 '관음보살 성상(聖像)'을 5월초 교정에 봉안하기 때문. 종립학교에서 이처럼 불상을 교정에 봉안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밖에 5월21일에는 불교학생회 학생들이 탑돌이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또 전교생들이 참여하는 '염주만들기'도 진행중이다.

동대부중(교장 우하수)은 5월12일 학급별 연등 경연대회 '내가 바로 연등 어때요'를 갖는다. 서툰 솜씨지만 정성스럽게 직접 만든 연등을 뽐내는 한편 자신의 연등으로 교정을 장엄하게 된다. 또 결식아우와 복지시설을 돕기위한 '사자비의 쌀 모으기' 행사를 펼친다.

진선여중(교장 권영옥)과 진선여고(교장 이종원)도 '연등 콘테스트'를 마련한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부산지부(지부장 성오스님)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한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5월9일 부산 금정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린다. 참가회비는 1팀에 중학생 2천원, 고등학생 3천원이다.

월간 〈불광〉과 목아불교박물관이 주최하는 제5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리기 대회'는 5월5일 봉은사에서 열린다. 만 5세 이상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참여 가능하며, 대회 후에는 △우리 마당놀이 △레크리에이션·장기자랑도 함께 펼쳐진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건전하고 밝은 찬불가를 보급하기 위한 제11회 어린이찬불가 경연대회 '연꽃노래잔치' 본선은 봉축위원회 주최로 5월2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다.

또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가 주최하는 청소년 종합예술 경연대회가 5월30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다. 잠재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예술적 소양을 발굴,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 12회째를 맞이한다. 특히 국악, 탈춤, 고전무용, 판소리 등의 경연부문은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것. 참가접수는 5월8일까지다.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스님)도 제4회 참나 청소년 및 지도자 종합예술대전을 5월30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마련한다. △문학부 △미술부 △서예부 △종합예술부로 나누어 5월2일까지 참가접수를 받고 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명성여고 관음상 봉안 · 탑돌이 · 염주제작
동대부중 학급별 연등경연 · 자비의쌀 모금
청 교 련 무용 · 국악등 종합예술 경연대회



◇싱그러운 5월을 맞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청소년·어린이 행사가 풍성하다. 사진은 지난해 '부처님그리기대회'.

◇청소년단체 봉축행사 일정

행사	장소	날짜	연락처
관음보살 봉안	명성여고	5월초	(02)452-8655
연꽃노래잔치	동국대 중강당	5월2일	(02)730-9108
전국어린이부처님그리기대회	봉은사	5월5일	(02)420-3200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부산 금정중학교	5월9일	(051)817-2648
연등경연대회	동대부중	5월12일	(02)2217-8423
탑돌이행사	명성여고	5월21일	(02)452-8655
청소년종합예술경연대회	동국대 중강당	5월30일	(02)735-8165
참나청소년·지도자종합예술대전	동국대 정각원	5월30일	(02)382-5788

명사들의 건강비결 ⑫



송 석 구 〈동국대 총장〉

"생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려고 합니다. 과다한 업무나 일정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임하는 자세가 오히려 활력을 주지요."

지난 2월25일 제14대 총장으로 재임한 후 그 어느 해 보다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동국대 송석구 총장(61). 학교 행정을 전두지휘해야 하는 지금의 자리는 단 1분도 자신만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고 바쁘게 돌아가지만 그 속에서 개인적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학교가 외형적으로나 내형적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의 모교가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내 일 처럼 여기는 마음가짐은 정신건강은 물론 육체적인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매사 긍정적이며 내 일처럼 여겨
소식하며 매일 절 찾아 108배

이처럼 매사를 긍정적이면서도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임하는 송총장은 교수 재임시절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여 년 동안 108배를 해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귀가 후 가능한 시간을 내어 집 근처 화계사를 찾아 108배를 한다. 또 수시로 교내에 있는 정각원에서 108배와 함께 참선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화계사를 오를 때면 가능한 천천히 걷습니다. 참선을 한다는 생각으로 아주 느리게 호흡을 하면서 걷지요. 그 방법이 보기에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소위 말하는 '기(氣)'를 충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예요. 그 어떤 운동이나 보약 보다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밖에도 송총장은 '소식(小食)'을 철칙으로 한다. 소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지만 송총장은 "과식은 몸을 나태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우리 몸은 기계와 같아서 쓰지않고 방치해 두면 고장나기 마련이라는 것. 얼마전 회갑을 맞은 송총장은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해보이듯 교내·외의 왕성한 활동으로 건강을 과시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청소년 단신

21일 천체관측의날 행사
함지골 청소년수련원

부산 함지골청소년수련원(원장 지우스님)은 '4월 과학의 달'을 기념, 21일 '천체관측의 날' 행사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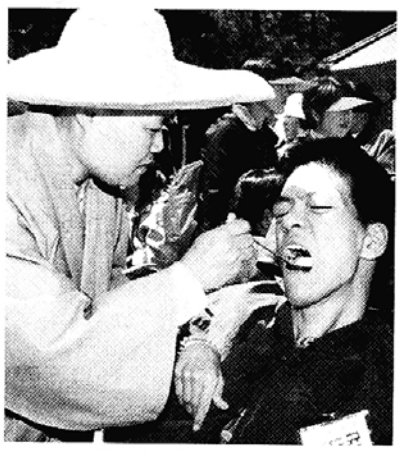
청소년들에게 우주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증대시키고 진취적 기상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아마추어천문학 영남학회 부회장 양희일씨의 설명으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천체관측을 하게 된다. 참가비 무료. (051)405~5223

어버이날 편지쓰기대회
월곡청소년센터 30일 마감

월곡청소년센터(관장 일산스님)는 어버이 날을 맞아 '사랑의 편지 쓰기 대회'를 개최한다.

부모님에게는 효심을, 어른들에게는 공경심을 배우게 될 이번 행사는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부모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내용의 편지를 2통이상 작성,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 무료.

(02)918~3543



◇조계종 복지재단, 연화복지학원 등은 13일 여주 신륵사로 '장애인의 날'을 맞아 '봄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교계 장애인복지 '제자리'

15개 시설 일회성 행사 그쳐
가톨릭 기독교는 90~100곳 운영

교계 장애인 복지사업이 몇몇 뜻있는 스님과 불자들에 의해서만 이뤄지면서 장애인을 위한 전반적인 복지수준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복지재단을 비롯한 교계 15개 관련 시설 및 단체들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14일부터 다채로운 행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같은 행사는 일회성에 머물뿐 장애인을 위한 근본적인 복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일선 관계자들은 말한다.

실제로 95년 조계종 복지재단이 설립된 이후 강북장애인복지관과 제천장애인복지관을 위탁받은 것 외에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사찰 등의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100여개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신교는 대부분의 교회가 장애인 복지연합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열의가 높다.

가톨릭은 중앙교단에서 장애인복지를 위한 운영자금을 직접 지원해주고 있으며 각 교구마다 장애인 연합회를 두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성스님(광림사 연화복지학원장)은 "종단의 지원없이 장애인복지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체계적인 조직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장애인 불심담은 '연등카드'

16일 제등행렬때 입체카드 3종 시범제작 판매

"카드를 만들어 완성하기까지 일손은 더디지만 한 장 한 장 불심을 담아 정성껏 만들고 있어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혜창스님)이 분주하다. 복지관 6층 직업훈련실에 모인 20여명의 장애인들이 봉축카드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이들이 만들고 있는 봉축카드는 복지관에서 개발한 입체카드 3종으로, 부처님 캐릭터를 응용했다.

카드 제작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16일 연등축제에 직접 참여, 거리에서 입체 연등카드 제작을 시범 보이고, 시민들에게 직접 카드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카드 판매와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02)989-4215

김정은 기자

선우기획 어린이칫솔 개발



치약이 칫솔안에 내장된 어린이용 칫솔이 나와 눈길을 끈다.

불교이벤트 선우기획에서 개발한 어린이용 칫솔 '부처님이 좋아요'〈사진〉. 어린이들이 치약을 떨어뜨리거나 과다 사용하는 문제를 해소한 아이디어 상품으로, 주사기의 원리를 이용했다. 한 세트 4천원. (02)716~7790

방송 소식

청주 BBS 개국 2돌 행사
특집방송 · 연극공연 등

청주불교방송(사장 도공스님)은 24, 25일 양일간 개국 2주년 기념 특집 방송을 내보낸다. 24일에는 오전8시30분부터 'BBS 충북뉴스' 특별방송을 기획해 청주불교방송의 어제와 오늘, 미래 등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또 25일에는 '최영준의 백팔가요'를 2시간 동안 생방송 한다.

이외에도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를 25일~27일까지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3일간 공연한다.

불교방송 19일 프로 개편
뉴스 · 부동산경제등 신설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19일부터 일부 프로그램 개편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개편에는 △일요일 뉴스(오전 9시, 오후 2시)를 신설, 아침 7시뉴스 이후 오전 10시까지 뉴스가 없는 맹점을 보완하고 12시 종합뉴스 이후 들어오는 오후 기사들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경제(월~토, 저녁 7시25분)와 △우리들의 찬불가(월~토, 저녁 7시55분) △천수경 독경(월~토, 밤 12시45분) 등이 신설됐다.

'99 어린이날 기념

제5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부처님 오신날 기념

부처님이 좋아요

"어린이 가슴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부처님을 그립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
새하얀 마음에 부처님을 그리고 노래하고 춤도 추고… .
이 날은 우리들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대접하는 날입니다.
월간 불광과 목아불교박물관에서는 이 날을 어린이들 가슴 가슴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부처님을 모셔주는 날로 정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마련되는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에 어린이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그림도 그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 뛰어요, 꼴찌에게도 박수를…
제5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만날 수 있는 재미있는 일들(프로그램)

하나 - 새하얀 마음에 부처님을 그려보아요. 그런 다음 도화지 위에 슥슥… 부처님을 그려요.
둘 - 엄마, 아빠, 선생님과 함께 '가족놀이마당'에 참가해 푸짐한 상품도 타고…. 팔씨름 왕 선발전, 지구 한 바퀴, 꼬마야 꼬마야, 날아다니는 물풍선, 백발백중 바구니, 춤추는 과자
셋 - 엄마, 아빠와, 함께 멋진 사진을 찍어요! 어디에 붙일까 스티커 사진….
넷 - 노래도 하고 춤도,추고…, 마음껏 뽐내요(무대에서 개인·단체 장기자랑)
다섯 -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끗 세우고…. 재미있는 인형극
여섯 - 인간문화재 108호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목조각장 목아 박찬수 선생님의 작품 시현
일곱 - 오늘은 할아버지도 그림을 그리시네! 청광 김용대 화백의 달마도 시현
여덟 - 부처님은 이렇대요! 우리들 솜씨,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역대 수상작품 전시회

* 행사 당일 비가 올 경우에는 봉은사 실내에서 대회가 열립니다.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 시 : 1999년 5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 삼성동 봉은사 (02) 511 - 6070
• 대 상 : 전국의 어린이(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 시 상 : 종합 대상 1명,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4명, 동상 5명, 입선 350명, 특별상, 단체상 각 부문 상장 및 상품(시상내역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비 : 5,000원 (10명 이상 단체 참가시 1인당 3,000원)
• 준비물 : 도시락, 크레파스나 그림물감, 화판, 모자착용, 돗자리
• 기념품 : 기념 티셔츠, 동화책, 음료수 등 증정(선착순 1,200명)

참가 신청 및 문의: 월간 「불광」 02) 420-3200
목아불교박물관 0337) 885-9952~4, 선재이벤트 02) 725 -2201

주관: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 /주최:월간 「불광」, 목아불교박물관 /후원: 문화관광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한국불교 미술인협회,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불교방송, 불교TV, 학교법인 동국학원, 봉은사, 불광사 불광법회, 재단법인 보덕학회 /협찬: 서울우유, 서울랜드, 질경이 우리옷(주), 대한불교신문, 법보신문, 주간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불교출판영업인협의회

돌.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주문전화 .....

02-732-1522

대표전화 :02-737-8881

인터넷 불교 백화점 mall. buddhapia는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돌, 부다피아에서 만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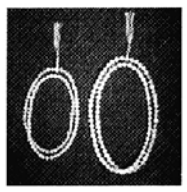
기도 청자 세트



₩ 25,000

· 청자향로(8㎝×5㎝) 1개 · 청자촛대(6㎝×4㎝) 2개
양초, 향 각 한질, 촛대 바람막이2개

건강 옥 염주



증 류 청옥 · 백옥염주(小) ₩ 30,000
청옥 · 백옥염주(大) ₩ 40,000

수월관음좌상



가격
₩ 120,000

사군자



가격 ₩ 120,000
최고급 양장
타블로이드 판 / 253쪽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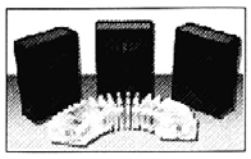
가격 (코팅형, 골동품형)₩ 350,000
(개금)₩ 580,000

경전카드



가격 : ₩ 15,000 순금 99.9%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 금강경 강의 : 45,000원
- 지장경 강의 :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45,000원

묘법연화경(전7권)



가격 : ₩ 140,000 (복장용)

다기함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126,000
크기 : 50×39×15cm

찻 상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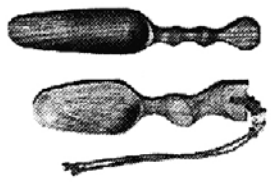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크기 : 52×38×8cm

찻 상2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크기 : 52×38×8cm

차 시



재질 : 참나무,고목,등 / 가격 : ₩ 15,000(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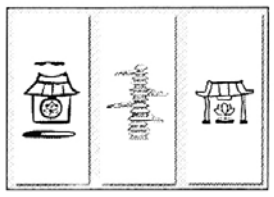
화엄큰스님의 달마도



가 격
₩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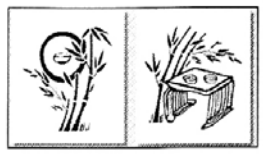
순금 99.9%

기도포



가격 ₩ 1,600 / 기장 84㎝ 폭 39㎝

다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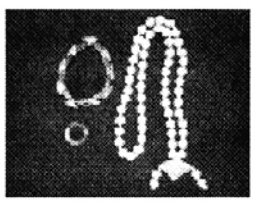
기장 50㎝ 폭 39㎝
재질 면
가격 ₩ 800

수암옥 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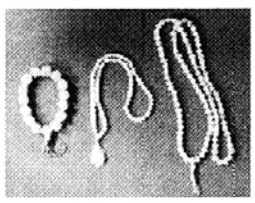
가 격
₩ 45,000

수암옥 장미, 옥팔찌, 반지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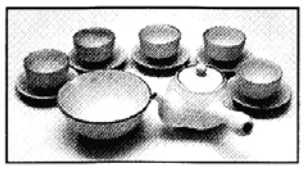
가 격 : ₩ 49,000

천연의 건강보석 수암옥 염주 세트



가 격 : ₩ 98,000

고산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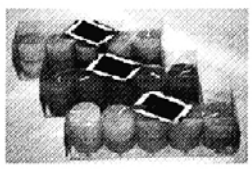
가 격 : ₩ 120,000

대나무 잔



크기 9(세로)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리틀 향초



가격(10개입) : ₩ 5,000

연꽃 향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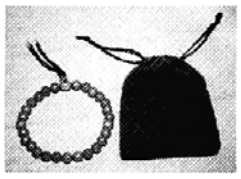
가격 : ₩ 2,500

생광석 108염주



가격 : ₩ 35,000

생광석 단주



가격 ₩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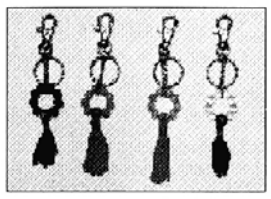
반야심경 종 차걸이



가격
낱개 ₩ 9,000

색상 :금색, 검정

단주 열쇠고리



종 류 검정, 밤색, 투명 /가격 : 낱개 ₩ 3,000

반야심경 향로



가격 : ₩ 25,000
크기 : 4(높이)×7(지름)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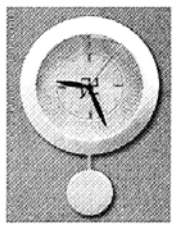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색상 진녹, 검정
크기 55㎝(가로)
140㎝(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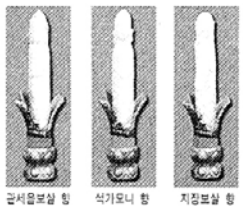
가격
₩ 30,000
(족자걸이 포함)

육바라밀 시계



가격
₩ 15,000

현상공덕 향



관세음보살 향 석가모니 향 지장보살 향

가격 ₩ 9,500 (1개당)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재질 등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43㎝

가격
₩ 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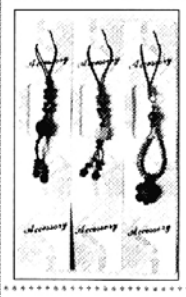
츰부다라니 불



재질 등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43㎝

가격
₩ 50,000

헨드폰 걸이



증류
거북이 ₩ 2,000
만 자 ₩ 4,000
무 상 ₩ 4,000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가격 ₩ 70,000 (가방 포함)

청화대선사 법회 비디오



가격 : ₩ 15,000

부처님 일대기



가격 : ₩ 10,000
어린이용
만화 비디오 테잎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거산 죽염



원산지 국산 가격 ₩ 30,000

쑥 액기스



가격 : ₩ 50,000 (100g×60개입)

강화사자발쑥환



· 1달분 1통(1,500정) ₩ 55,000
· 2달분 2통(3,000정) ₩ 80,000

작설차 (우전 · 세작)

우전 ₩ 80,000 / 세작 ₩ 45,000

작설차 (중작 · 대작)

중작 ₩ 60,000 / 대작 ₩ 40,000
(2통 한세트)

한국불교 총람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가격 ₩ 120,000

참선 명상 방석

· 실용신안 1998-025009
· 의장등록 143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 보호
휴대가 간편함

가격 : ₩ 27,000
규격 39㎝×43㎝

경 상

가격 : ₩ 85,000 / 재질 ASH(느릅원목)
규격 72㎝(가로)×34㎝(세로)×32㎝(높이)

반야심경 자개경판

가격 : ₩ 600,000

유해 전자파 제거 장치

가격 : ₩ 9,000(1세트)

한국불교 총람 CD롬

가격 ₩ 60,000

참 선(명상의 말씀)

가격 ₩ 9,500 (CD)

일면스님 경

가격 ₩ 9,500 (CD)

불교 전통창살문양 손수건

신흥사 극락보전

은해사 대웅전

신흥사 극락보전

쌍계사 대웅전

불국사 대웅전

대승사 대웅전

봉은사 대웅전

금산사 대장전

중심사 대웅전

100장 이상 주문시 원하는 문구 넣어 드립니다.
가격 : 1장 5,000원 (원색 칼라)

강석주 큰스님 친필 관음 분청 도자기

분청 도자기는 일반 백도자기와는 달리 화로에서 구울 때 성공률이 25%내외 밖에 되지 않으며 고온에서 장시간 굽는 등 제조 과정에 작가의 혼을 담은 정성이 깃들어야 합니다.
특히 석주 큰스님(91세)의 친필 관음찬이 관세음 보살님 그림과 같이 새겨져 있으므로 소장 하신 분의 가내 액화를 소멸하시는 관세음 보살님의 큰 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규 격 : 30×30×44(단위 센티미터)
- 희망소매가격 : ~~1,000,000원~~
- 특 판 가 : 495,000원

강석주 대선사님은
1909년 경북 안동출생
1923년 신학원에 출가
1928년 부산 범어사서 득도
1933년 범어사 강원 대교과 졸
1936-39년 오대산 상원사 · 금강산 마하연 · 덕숭산 정혜사 · 묘향산 보현사 선방서 안거
1953-84년 은히사 · 불국사 · 봉은사 · 은해사 · 관음사 주지
1959년 범어사서 대덕법계 품수
1961년 신학원 이사장
1965년 칠보사 조실
1971-84년 불교 조계종 제 7 · 17대 총무원장
1980년 초대 승가대학장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의장

※작품보증서 첨부※

중국도예에서 만들어진
지다이분청자기는 조선시대
상평하면 분청자기의 형태와
기법을 더욱 승화 발전시킴으로서
보다 높은 도예 예술에 도전하고
있고 국내와 일본, 대만의 각종
도예전에서 입상 및 16회에
걸쳐 초청 전시회를 하였고 지다
이분청자기를 이법하게 재현시킨
이시대의 진정한
조선도공의 후예입니다.
한결적 소장하시어 후손에게
물려주어도 작품의 값어치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법회안내



서암스님(전 조계종 종정) 25일 오전 11시 정토회 일요법회 '현대인을 위한 생활불교'. (02)587-8994



녹원스님(동국대 이사장) 5월 11일 오후 4시 동국대 춘계수계법회. (02)2260-3015

지원스님(마산 성덕암 조실) 20일 오전 10시 30분 천안 천불사 큰스님 초청법회. (0417)557-3506



정락스님(용주사 주지) 27일 오전 11시 보리사 화요법회. (02)562-9939



암도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 22일 오전 11시 경남 양산 구불사 삼존불 점안 불사 회향법회. (0523) 375-0142



각성스님(화엄학연구소 소장) 25일까지 매일 오전 7시 30분, 오후 2시 은해사 승가대학원 종강기념 〈선문염송〉 특별법회. (0563)35-3318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4월22일 (목)



◇장기기증서약법회에서 생명을 나누는 소중한 인연을 맺자.

■수덕사 장기기증 서약법회=생명나눔실천회는 오전 11시 예산 수덕사에서 화장유언 및 사후 장기기증 서약을 위한 생명나눔실천 법회를 갖는다. (02)734-8050

■동산청년회 1주년 기념법회=오후 7시30분 동산불교교육회관에서 동산청년회 창립 1주년 기념법회가 열린다. (02)732-1206

4월24일 (토)

■팔만대장경 정대불사 입재식=오후 5시 해인사 팔만대장경 정대불사 입재식이 시작된다. 25일까지 봉행된다. (0599)931-1009

■전국신도회 회장 취임법회=오후 2시 전국신도회 제18대 선진규회장 및 임원 취임법회가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봉행된다. (02)732-7272

■천은사 삼화사 기행=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두타산 천은사와 죽서루, 무릉계곡 삼화사를 찾아 기행을 떠난다. (02)725-1284

■불교귀농학교 개강=오후 3시 조계사 반야여행사 2층에서 제4기 불교귀농학교가 개강된다.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02)823-1884

■주민황박사 '티벳불교 전통' 강좌=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는 조계사 열린강좌 주민황박사(델리대)의 '티벳불교 전통에서 미래를 배운다' 강좌가 진행된다. (02)720-1390

■정토회 신앙대회=정토회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간'을 주제로 우면산 대성사서 25일까지 봄맞이 신앙대회를 연다. (02)587-8993

■중국선차유적 탐방=한국차문화협회는 5월 3일까지 중국, 항주, 안휘, 호북, 북건성 등 차문화의 고향으로 중국선차유적 탐방을 떠난다. (02)701-0475

■능인선원 삼천배 철야정진=저녁 7시부터 25일 새벽까지 능인선원 삼천배 철야정진법회가 열린다. (02)577-5800

■길상사 주말 선수련회=길상사는 선 초심자를 위한 주말 선수련회를 25일까지 연다. 직장인과 일반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02)3672-5945

■정토회 생명운동으로 확대되는 환경운동=오후 3시 정토회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 '생명운동으로 확대되는 환경운동'이 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총장의 강의로 진행된다. (02)587-8994

■불공회 불우이웃돕기 하루찻집=나주 불회사 불공회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무의탁노인과 청소년 가장을 돕기위한 하루찻집을 전남대 후문 대호다방에서 연다. (062)268-0237

4월25일 (일)

■광주 영호남청년불자 교류법회=오후 2시 광주 시민회관에서 영호남 청년불자교류법회가 열린다. (062)520-1113

■쌍계사·전통차밭 탐방=대흥사부산포교원은 한승구 동국대 교수의 전통벽화 설명과 함께하는 춘계성지순례 및 전통차밭 탐방을 떠난다. 하동차밭, 쌍계사, 칠불암 등을 순례한다. (051)636-5114

■백제지역 미륵성지 답사=광주불교교육원은 오전 8시 30분 '미륵신앙의 성지를 찾아서'를 주제로 백제지역 불교문화유적답사를 떠난다. 익산 미륵사지, 석불사, 태봉사, 왕궁리탑, 전주 박물관, 귀신사, 금산사 등지를 둘러본다. (062)228-9098

4월26일 (월)

■백양사 실직자위한 수련회=백양사는 30일까지 제 6차 실직자를 위한 참사람 수행결사를 진행한다. (0685)392-7502

4월27일 (화)

■수선회 참선교육=수선회가 참선교육을 시작한다. 5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참선의 이론과 실제를 지도한다. (02)732-5960

■자민련불자회 창립 4주년 기념법회=오후 2시 자민련불자회 창립 4주년 기념법회가 중앙당에서 열린다. (02)701-3355

종단소식

조계종

화엄사 통일기원 산신제

구례 화엄사(주지 종걸)는 18일 남북통일 및 동서화합을 기원하는 봉천암 허공산신제를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했다. 화엄사 봉천암 허공산신제는 6·25동란으로 인해 중지됐다가 50년만에 다시 재현된 행사다.

수덕사 신도회장 김한곤씨



예산 수덕사(주지 법장) 신도회는 9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2대 신도회장에 1대 회장인 김한곤씨(사진)를 선출했다. 신도회는 이날 올해의 사업으로 성지순례와 신도교육 및 조직강화에 전념키로 했다.

태고종

봉원사 인공주지 진산



봉원사 제36세 주지 인공스님 및 제5세 부주지 구해스님 진산식이 10일 삼천불전에서 봉행됐다. 인공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봉원사 모든 스님들이 열심히 수행할 수 있고,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남 불국사 천불점안

강남 불국사(주지 영길)는 16일 천불점안 및 영구위패 봉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안된 부처님은 6치 크기의 약사여래불로 지난 91년부터 조성돼 온 것. 불국사는 이날 대웅전 후불목탱화와 신중탱화 점안식도 함께 봉행했다.

성주암 삼존불 점안

관악산 성주암 임재홍 주지 진산식이 22일 오전 9시 성주암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이날 또 대웅전 목조삼존불 점안식도 함께 봉행될 예정이다.

천태종

논산 삼화사 대웅전 낙성

논산 삼화사(주지 갈수)는 21일 오전 11시 관음존상 봉안 및 대웅전 낙성식 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에는 도용 종정스님, 운덕 총무원장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신도 등이 참석한다. (0461)735-7292

평택 법장사 기공식

평택 법장사(주지 갈성) 기공식이 22일 오전 11시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92-5 현지에서 거행된다. (0333)655-9090

진각종

선재의집 그룹홈 개소

진각복지재단(이사장 성초)은 12일 성북구 월곡 2동 22번지 '선재의 집'에 제2호 그룹홈을 개소했다. '선재의 집' 그룹홈 제도는 장기실직으로 인한 결손가정의 어린이들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함으로써 부모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 자립기반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켜 정상적인 가정으로 복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한법화종

5월7일 총무원장 선거

공석중인 총무원장을 새로 뽑기 위한 선거를 5월 7일 성북구 총무원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前 총무원장 김대호스님이 지난 1월 개인적 사유에 의해 사임함에 따라 현재 법찬스님이 총무원장 직무를 대행해 오고 있다.

조동종

소림사 입실건당 논의

오는 6월 중국 소림사에서의 입실건당 및 대승보살 대법회를 논의하기 위한 종무회의가 29일 오전 11시 총무원 회의실에서 열린다. (02)379-0027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 시 판

♣ 알림

▲아외가족 영화상영=본동종합복지관은 23일 오후 7시 30분 복지관 야외주차장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야외가족 영화를 상영한다. 관람료는 무료. (02)817-8052

▲천체관측의 날 행사=함지중학교청소년수련원은 21일 오후 2시~10시 청소년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과학의 날 맞이 천체관측의 날 행사를 실시한다. 최신 고성능 망원경 12대가 동원된다. (051)405-5223

▲지역주민 무료상담=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상담실을 운영한다. 가족, 교육, 종교, 자녀, 부부간 갈등에 대한 상담을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1시~5시까지 실시한다. (02)852-0525

▲지리산 제다실습=초의문화재단은 지리산 제다실습장에서 제다실습을 실시한다. 선착순 접수마감이며, 저렴한 가격에 햇차도 판매한다. (02)732-2317

♣ 강좌

▲장애아동방과후교실=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아동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애아동방과후교실을 운영한다. (02)806-1376

▲아동동화구연교실=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어린이의 발표력 향상과, 발음교정, 표현력지도를 위한 아동동화구연교실을 연다. (02)817-8052

▲텔레마케팅전문가양성반=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1개월 과정의 텔레마케팅 전문가 양성반을 연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교육하며, 전화매너에서부터 텔레마케터의 역량을 지도, 취업으로 연결한다. (02)852-0525

▲조계사 문화강좌=조계사는 선체조, 불화그리기, 사군자, 동양화, 서예, 다도, 판소리, 수지침, 가요부르기, 한국무용 등 3개월 과정의 문화강좌를 연다. (02)720-1390

▲신바람노인교실=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낮 12시 복지관 2층 강의실에서 신바람 노인교실을 연다. 생활체조 및 단전호흡을 지도한다. (02)571-2988

▲요리자격증반=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한식요리, 생활요리, 출장요리 자격증반을 운영한다. 3개월 과정이다. (02)817-8052

▲미용사자격증반=신도림복지관은 3개월과정의 미용사자격증반을 운영한다. 매주 월, 수, 금, 토요일 오전 10시에 지도한다. (02)631-9792

▲노인대학=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월·수·금요일 오전 10시 노인대학을 연다. (02)817-8052

♣ 모집

▲자비의집 봉사자=자비의집은 전통침 치료, 이미용, 반찬배달, 소식지 제작 등에 동참할 봉사자를 모집한다. (02)945-4200.

▲훈민정음 서문가 곡공모=국립국어연구원 어문실태연구부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556돌을 맞아 2000년에 대비하는 훈민정음서문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기위해 서문가 곡을 공모한다. (02)779-4816

▲결식아동 후원자=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내 결식아동, 실직가정 자녀들을 위한 후원금과 후원자를 모집한다. (02)817-8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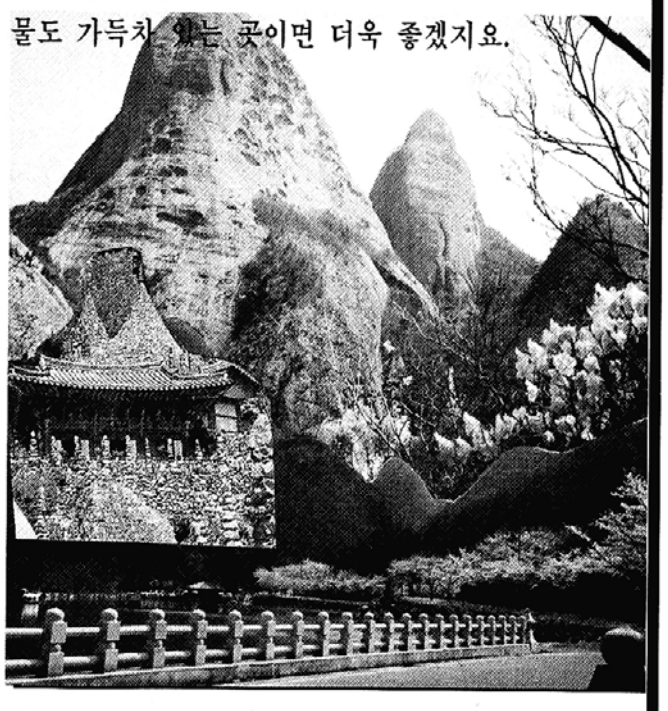
▲행사보조 자원봉사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경로잔치 및 지역주민 한마당 행사를 보조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주차요원, 음식보조, 물품판매, 안내도우미, 비디오촬영, 음식서빙 등. (02)852-0525

▲결식아동·청소년 도시락 후원자=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내 결식아동과 청소년 도시락지원사업 후원자를 모집한다. (02)421-6077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탑사 —탑영제 방생—



·관광과 방생을 한 곳에서·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 (0655)33-2900, 0303
(0655)32-0652, 0072

■약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그날로 氣치료 능력자가 된다.

레이키

수련을 한 일이 없는 사람도 그날부터 氣치료 능력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 레이키(Reiki)법 입니다. 이미 세계의 의료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오스트랄리아, 캐나다와 브라질, 인도 등의 나라에서 3백만명이 넘는 **레이키요법**가 (氣치료능력자)가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수한 종합 병원들에서는 의학적 치료와 **레이키요법**의 협진 체제가 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 나(박희준)의 레이키 마스터로서의 자격

나는 氣와 정신세계의 관련 번역 저술가로서 번역서 1백권 이상, 저서 10권 이상을 낸 기공연구가입니다.
인류의 복지 향상에 기공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속성식 기공법을 찾아 헤매던 끝에 1997년부터 레이키의 세계와 만났습니다. 도합 7-8차례 일본을 오가면서 레이도 레이키의 아오키선생, \\레이키의 우에노선생, 가이아레이키의 노사카선생, 그리고 오스트랄리아계의 림 버든선생과 카와무라 선생, 영국계의 미키트리스선생에게서 일본고유의 전통적 레이키법, 미국에서 개발된 키루나(자비) 레이키법(정신면과 영성의 개발에 더욱 높은 효과를 발휘하는)을 전수받아 세계의 (레이키 문화)를 폭 넓게 터득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유일하게 우스이식 레이키 마스터와 카루나식 레이키 마스터를 겸하고 다채로운 레이키법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능력도 일취월장 향상하여 최근에 레이키법을 전수받는 분들에게는 더욱 높은 능력을 갖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험담

1. 어느 기공사(42세) 어튜먼트를 받을 때 백회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더니 그것이 몸의 중앙(충맥)을 관통하는 것을 느꼈다. 진동은 더욱 깊은 층에서 일어났고 더욱 정밀한 파장으로 느껴졌다. 백회로부터 신선하고 상쾌한 기운이 몸의 안팎으로 마치 폭포수 같이 흘러 내린 것을 느꼈다. 전수받고 난 후에 길을 걸을 때에도 하늘과 백회가 氣의 기둥으로 이어진 느낌이었다.

2. 어느 기공 수련 6년차(64세) 어튜먼트를 받을때 묵직한 기운이 단전에 따뜻하게 전달되었다. 발목이 따뜻해지면서 단전에 모인 기운이 무릎을 통해 발끝으로 빠져 나가는데 이 때 전에 아팠던 무릎이 몹시 뻐근해진 후 바로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3. 어느 보살(48세) 어튜먼트를 받는 순간 자색의 불길 같은 것이 하늘하늘 소용돌이를 치면서 내 이마로 들어오는 듯하더니 몸 전체에 가날프게 진동이 일어났다. 제4상징과 만트라를 부여받고 백광과 오로라 모양의 光의 난무 등을 비전으로서 보았다.

4 어느 일본인 여성 레이키 마스터(36세) 어튜먼트를 받을때 좋은 향기가 몰려오는 듯하더니 그것이 점점 강열해지면서 마치 꽃밭에 있는 것 같은 좋은 향내가 계속 났다. 잠시 그것을 즐기고 있었더니 자기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눈 부신 光이 나타났다. 황금광, 금색광,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 여타의 氣치료법과 다른 레이키요법의 특징

1 자기가 자기의 병을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다.
2 원격치료를 쉽게 할 수 있다.
3 환자 한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집단 치료를 할 수 있다.
4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이 정해져 있어 쉽게 배울 수 있다.
5 질병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레이키(氣)를 자유자재로 끌어다 쓸 수 있다.
6 부작용이 없고 氣가 소모되지 않는다.

· 레이키법의 전수 절차

희망자를 그날부터 레이키요법가로 만들어 주는 레이키법의 전수(어튜먼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제 1단계: 1-2일, 제2단계 + 제3단계 : 1-2일
▶전문임상응용단계:1일 + 1일 + 1일 + 1일
※재충전을 위한 무료 재학습제도도 실시중입니다.

· 레이키요법의 효과와 유효 분야

환자의 몸의 레이키(氣)를 넣어 주어 질병의 치료를 돕는 레이키요법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긴장의 이완을 촉진하여 환자가 깊은 고요함과 안신감을 맛보도록 만들어 줍니다. 깊은 고요함과 안심감은 사람의 자연치유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 바탕입니다.
자연치유력은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의 활동이 정상화 되도록 돕고, 세포의 에너지 교환과 혈액의 미세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의 강화도 촉진합니다.
레이키요법은 동양의학적으로는 氣의 응체, 氣의 편재, 氣의 부조화, 氣의 부족 등을 바로잡아 주며 차크라와 오라의 이상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리하여 동통을 완화하고 아픔을 해소하며 활력을 높여주고 가벼우 질환들에 대하여는 즉효성의 효과도 발휘합니다. 약물남용과 관계중독, 발달장애 등의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도 탁월한 협진 효과를 발휘합니다. 감정, 정신, 영혼에 미치는 효과가 우수하여 인격의 성숙을 가져오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레이키요법은 응급상황에서도 쓸모가 많고 모든 가호분야와 호스피스 만성병 환자의 관리에서도 높은 쓰임새가 있음이 미국등지의 종합 병원에서 속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 문의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구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전화 (02)720-5682, 725-2311, 핸드폰 019)392-2557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빌딩

도민안녕 · 경찰발전기원
제주 경승실 조찬법회

제주지방 경찰청 경승실(실장 종호스님, 제석사주지)과 법우회(회장 강호준 공보담당관)는 10일 총강당에서 1백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도민의 안녕과 경찰발전을 위한 조찬기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법회에는 종호 수암 도종 성관 상허 혜경스님등 경승과 제주불교 부루나합창단원, 제주지방경찰청법우회원이 참가했다.

김원우 기자

부산 운불 교통안전 법회

부산불교운전기사회(회장 백봉도)는 14일 해동용궁사 앞 교통안전기원탑에서 교통안전기원법회를 봉행했다. 회원 2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안전운행을 기원하며 회원간의 친목을 다졌다. 고영호 상임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달리는 법당인 택시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부산에 '불교복지보건대학' 개교

병원 · 복지시설 전문인력 양성

불교·복지·보건 접목…포교사·간병인 교육

원장 혜도스님…전문 교수진 · 강좌 갖춰

'이 시대 부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떤 일에 가장 관심을 가질까?'

가능한 많은 대답들 중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설득력있는 대답은 바로 생 로 병 사의 해결일 것이다.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복지와 의료분야 인력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복지보건대학(학장 혜도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이 30일 오후 2시 부산 진구 범천 1동에서 문을 연다.

명예학장인 성오 범어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과 황보선전 부산의대 간호대학 교수를 비롯한 학계, 의료계의 불심(佛心)이 한데 모아진 결실.

불교복지보건대학은 불교와 복지, 보건이 한데 어우러진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인력을 배출하고 복지시설, 의료기관등에서 병고와 죽음앞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봉사, 개인의 번화가 곧바로 실천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취지로 개설된다. 1년과정의 복지자비포교사 전문과정과 2개월과정의 간병봉사자 전과정을 설치한다.

교수진은 오양효 부산의대교수, 안창범 동의대 한의과대학 학장, 홍순탁 동의한방병원 간호감독, 곽만연 동아대교수, 이희백 춘혜대교수, 진성태 부산불교의사회장, 유태우 고려수지침요법학회장등 현장과 연구분야의 실력자 26명.

강의내용 또한 병자들의 육체적인 병고 해결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을 줄수 있도록 불교기초교리, 비교종교론, 복지실천론, 상담기법, 심성개발 및 마음관리, 한방간호 및 대체요법등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삶과 죽음을 연장선상으로 이해하는 임종관리와 영적관리로 환자의 두려움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고려수지침, 생활기공 및 마음다스리기, 춤을 통한 스트레스해소 등의 다채로운 특강이 개설되정신세계 계발을 위한 여러 특강도 계획중이다.

교육을 통해 배출된 인력들은 병원 복지시설등과 연계하여 유, 무료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약사여래의 손길이 되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포교사로서의 역할도 다하게 된다. 나아가 의료복지 포교활동과 간병봉사및 호스피스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지원의 중심이 되도록 불교 복지보건대학이 원더역할은 하겠다는 방침이다.

초대학장 혜도스님은 "부처님의 대자대비사상 실천은 바로 복지와 의료에 직결된다"며 "불교복지보건대학의 개교가 타 종교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 이 분야를 발전시키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불교의료기관(병원)과 교육부 인가의 불교보건대학 설립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재가 불자모임 삼보회 창립 35돌



◇재가불자 양성을 위해 설립된 삼보불교대학의 수업 장면. 원내는 신근식 이사장.

교양대 개설등 '생활불교' 선구

찬불가 보급 · 장학사업…27만명 법회 인연

재가불교신행의 요람이자 불자인재양성의 산실 역할을 해온 재가불자들의 모임 (재)대한불교 삼보회(이사장 신근식)가 25일 창립 35주년을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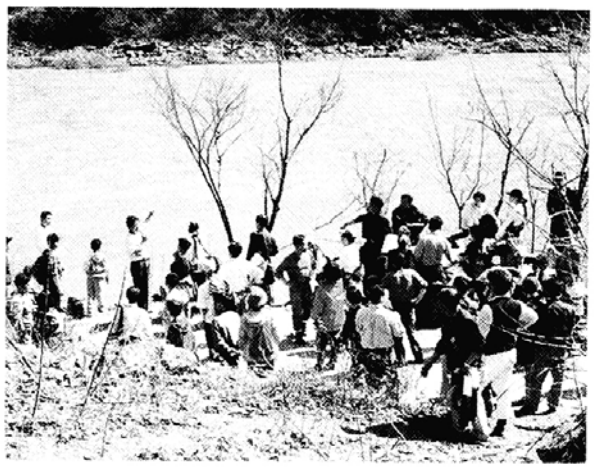
삼보회는 1964년 고 덕산 이한상 거사가 불자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전개를 위해 삼보장학회를 설립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65년 4월 삼보학회를 창립하며 교육을 통한 재가불교 양성과 문서포교, 군포교, 교도소포교, 어린이청소년포교 등 각계분야에서의 활동을 통해 지성불교, 생활불교의 토대를 일궈냈다.

73년 한국불교단체 최초로 삼보합창단을 창단해 찬불가 보급을 통한 포교의 전기를 이루었다. 또 75년 제1회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한 이후 지금까지 매년 7~8월 삼보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삼보회는 초대회장 이한상 거사의 업적을 기리는 공덕비를 25일 삼보정사에 세운다. 또 〈삼보회 창립35주년 약사〉를 발간했다. 약사에 따르면 삼보회는 64년 서울 풍전호텔에서 삼보법회 모임을 가진 이래 지난 35년간 총 345명의 스님과 법사를 초청, 총 1,805회의 법회를 열어 27만여명의 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데 매진했다. 이 가운데 15명의 불자가 발심출가해 수행정진중이며, 묵정배교수, 박성배교수, 송석구총장, 서윤길교수등 삼보장학금으로 공부한 많은 불자들이 교계 증진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근식 이사장은 "창립 35주년을 맞아 그동안 침체됐던 분위기를 일신하고, 적극적인 포교활동과 시대에 맞는 조직운영으로 제2의 창립기를 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녹색환경 감시단
동강 지키기 트레킹

대구 불교산악회부설 녹색환경감시단(단장 홍성식)은 11일 강원도 영월 동강댐 건설 예정부지에서 '동강지키기 트레킹'을 실시했다.

감시단은 이날 댐건설 예정부지에서 동강의 비경인 어라연까지 8km를 왕복하면서 동강댐 건설이 초래할수 있는 환경파괴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트레킹에는 녹색환경감시단과 춘천 환경운동연합등에서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윤호 기자

강화봉축위 '군민 하나되는 음악회'

21일 군인 · 청소년등 5천여명 참석

강화봉축위원회(위원장 설봉)는 최근 봉축준비회의를 열고 5월 21일 지역민도 참여할 수 있는 축제형식의 봉축행사를 개최키로 했다.

이에따라 오후 6시에 봉축법회를 열고 7시30분부터는 지역민과 군인 청소년등 5천여명을 초청하여 강화문예회관 야외무대에서 '우리서로 하나되는 음악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음악회는 현철 설운도 김민종 클론 김현정 송대관 핑클 등 인기가수가 출연, 지역간 종교간 민족간 계층간 연령간 갈등구조를 청산하여 서로 화합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김원우 기자

녹야원 불교교양대 개강

부산 녹야원(주지 회암)은 12일 동구 초량동 한창빌딩 6층에 마련된 법당 공간에서 법당 이전법회 및 사르나드불교교양대학을 개강했다. 불교와 기독교, 불설대안반수의경 대승기승론 강의 등의 내용으로 매주 화, 수, 목요일 수업을 통해 불교인의 긍지를 가진 불자를 양성하게 된다.

천미희 기자

수원포교당 불교문화원 낙성

25일 고산스님 초청 법회 · 기념문화공연

수원포교당(주지 성관) 불교문화원이 25일 낙성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포교에 나선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는 낙성식은 오후 1시 불교문화원 3층 만불보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초청 대법회를 시작으로 2부, 불교문화원 낙성식 축하 북녘어린이돕기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문화공연에는 가릉빈가 어린이합창단, 가릉빈가 어머니합창단의 찬불가 발표회와 국악공연, 대중가수 초청공연이 다채롭게 열린다.

이와함께 부대행사로 통일찾기 전시회와 수원포교당 얼굴찾기 사진 전시회도 열린다.

통일찾기 전시회에는 북녘어린이들의 기아실상과 북녘산하 사진, 북녘 어린이를 주제로 한 남한학생들의 그림과 글등이 전시된다. 또 수원포교당 얼굴찾기 사진전시회에는 역대 행사사진을 총정리하여 전시한다.

주지 성관스님은 "불교문화원 7년불사를 신도들과 회향하는 자리로 만들었다"며 "이를 계기로 지역불자포교와 통일을 앞당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포교당 불교문화원은 총면적 1천90평에 지하1층 지상 5층으로 정토문화원, 합창단실, 탁아방, 어린이회실, 소법당, 극장식 법당인 만불보전이 마련돼 있다. 특히 만불보전에서는 전통과 현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낙산사 의상백일장
중고생 1천명 참가

낙산사(주지 지홍)는 17일 경내와 보타전에서 제 4회 의상백일장 대회를 개최했다.

의상백일장대회에는 수채화, 서예, 시 · 산문, 사진등 4개부문에 1천여명의 중고생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의상백일장대회 참가자 전원에게는 낙산사에서 중식과 기념품을 제공했으며, 22일까지 의상대상, 관음상, 문수상, 보현상, 장려상 상장과 상품이 각 학교로 발송돼 시상된다.

김원우 기자

탱화복원비 천만원 전달
태고 비구니회 선암사에

태고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운정)는 순천 선암사 탱화복원불사 추진과 관련 복원불사 성금 1천만원을 선암사에 전달했다.

이경숙 기자



불국사 월산스님 부도탑 기공

불국사(주지 성타)는 15일 경내에서 월산스님 부도탑 기공식을 봉행했다.

주지 성타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스님의 높은 뜻을 기리는 10자높이의 부도비와 부도탑을 세우겠다"며 "문도회를 비롯한 교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여법하게 스님의 높은 뜻을 기리는 불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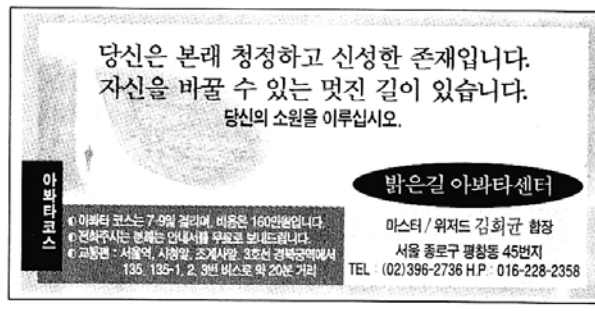
기공식에서 탄성스님(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은 "월산스님의 뜻을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하여 한국불교가 발전되도록 노력하자"고 법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혜정스님을 비롯해 이원식경주시장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애기봉등 전방OP
봉축점등식 잇달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기원하는 OP점등식이 16일 509(연꽃) OP를 시작으로 10여개 전방부대에서 잇달아 열린다. 진각종이 16일 경기도 파주 육군 비룡부대 509 OP에서 올해 첫 점등식을 개최한 것을 비롯, 점등식 일정이 잡힌 곳은 ▲22일 조계종 봉축위원회-애기봉 OP ▲22일 천태종-멸공 OP ▲29일 강화사암연합회-제적봉 OP ▲30일 속초사암연합회-통일전망대 ▲5월7일 철원 심원사-월정리 OP ▲5월11일 법화종 팔봉사-을지전망대 ▲5월11일 총지종-칠성전망대 등이다.

김재경 기자



법영스님의 「佛」字 화두… 수맥차단 입증!

20년간 정성을 담아 써온 「佛」字, 수맥차단 시험결과로 세간의 화제, 효력입증



법영스님

부산 정수사에서 매일 「佛」字를 쓰며 천일 관음기도를 회향, 출가 후 처음으로 큰 기도를 시도했지만 3년 세월을 보내는 동안 관세음보살을 친견하지 못해 고민에 빠져있던 법영스님은 기도회향 하루 전날, 사천 와룡산 기룡암에 가서 「佛」字를 쓰라 라는 선몽을 꾼 뒤부터 16년간 매일같이 「佛」字 한자만 하루 10장씩 정도 써왔다. 혼자서 순수하게 글쓰는 힘을 터득한 법영스님은 주위 불자들에게 「佛」字를 공양하기 시작하면서 한 불자에게 우연히 써준 「佛」字가 수맥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밝혀져 화제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법영스님 작업 하시는 모습



21 영남일보 사회 1999년 3월 1일 월요일 제14517호

수맥차단 「佛」字 화제

지난 3月 1日字 영남일보 보도

· 잠자리와 꿈자리가 편하지 않으신 분 · 마음의 심경이 일어나는 분 · 원인 모를 병으로 고민하시는 분
· 정신집중이 안되고 시험 합격 사업성취를 원하시는 분들께 수맥을 차단하는 「佛」자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 마음의 문을 열고 스님께 문의 하여 주십시오 ※

대한불교 조계종 월명암 기도법사 법영 합장
경북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536번지 ☎ 0543)954-6238, 011)529-3713

실 · 기 · 위 · 주
說法방법강의



성격개조 · 교수기법 · 실기훈련

說法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성격이 좋고 화술이 능해야 한다.
○이론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격개조, 가치관의 체계확립
○자료의 재구성 능력확보
○강의, 강연, 연설, 주례사, 회의진행
○음성, 태도, 수사 - 기타 설법에 필요한 모든 것

■ 연 수 안 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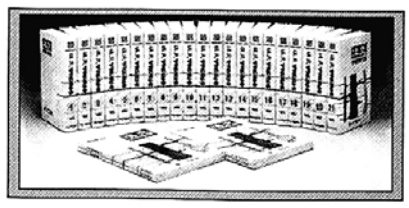
▶ 기 간 : 2개월 과정
▶ 개 강 : 수시 접수
▶ 모집인원 : 10평내외
▶ 장 소 : 설법연수원 강의실
▶ 지도교수 : 金 哲 會 박사

♣문의 및 신청♣
☎ 02)737-1567 / 725-1357
FAX (02)737-8725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오봉빌딩 별관 3층)

한자(漢字)는 현실입니다.

"불경(佛經)공부, 그 어려움은 오로지 한문 때문에…"



한자 2,000자 강의 편

기본 부수 214자를 중점 강의하였으며 교육부 지정 한자 1,800자에 실용한자 200자를 덧붙여 총 2,000자를 그림과 함께 그 유래와 쓰임새를 알기 쉽게 강의

(비디오테이프 2시간용 20개 · 교재 2권)

한문문법/고사성어 강의 편

한문불경이나 고전 공부에 가장 걸림돌이었던 한문문법을 허자 중심으로 총정리하여 한시, 고전 등의 풍부한 예문과 함께 강의하였으며, 고사성어 80여 문구까지 강의

(비디오테이프 2시간용 3개 · 교재 1권)

● 비디오로 한문을 직접 배운다! ●
이래현 선생님의 한문 강의 비디오 교재

문의처 : 한영 미디어 02)516-7500(代)

■sbs '서세원의 좋은세상 만들기' 기독교편향 진행

교계 항의…사과-문책 요구

10일 방송분 4분30초동안 교회부흥회 방불 공중파 불교왜곡-특정종교 찬양 '선 넘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녀야 할 공중파 방송이 온 가족이 보는 인기프로그램에서 개신교를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장면을 여과없이 방영해 불교계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인기 프로그램인 SBS-TV 〈서세원의 좋은 세상만들기〉(담당PD 이상훈). 지난 10일 방송분에서 미혼인 두 자녀를 신학교에 보냈다는 출연자 일덕순 할머니와 사회자인 서세원, 신은경은 총 6차례에 걸쳐 "할렐루야"를 연발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개신교 신자인 서세원씨는 의도적으로 신앙간증을 유도했으며, 심지어 방청객들까지 "아멘"을 합창하도록 유도했다. 교회 부흥회를 방불케 하는 이같은 진행이 연출된 시간은 장장 4분30초. 두 진행자가 진행한 퀴즈코너의 총 시간량(20분)의 20%를 넘는다.

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는 이에 대해 "방송사의 시청률 지상주의가 엮은 이러한 종교편향적인 방송진행은 녹화방송이란 점에서 진행자와 연출가, 카메라맨의 합작품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종교편향대책위원회(위원장 현진, 원혜)는 13일 방송위원회 앞으로 공문을 보내 "특정종교편향 해당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같은 날 SBS-TV 앞으로도 공문을 보내 방송사의 공개사과와 해당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좋은 세상만들기'의 이상훈 PD는 "출연자들의 인생 자체가 종교적인데다가 오락적인 분위기를 돋구다보니 본의 아니게 특정종교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인정했다.

한편 공중파방송 프로그램에서의 이같은 특정종교 찬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98년 5월22일 '경찰청 사람들'(스토킹 용의자인 사찰청년회장 등장시켜 불교왜곡) △98년 4월15일 '공개수배 사건 25시'(초파일 직전에 살인 가짜 승려 사건 다뤄) △97년 7월 CBS의 '새롭게 하소서'(불교비방) 등 셀 수 없을 정도.

하지만 보리방송모니터회의 자원봉사자가 수십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교계의 방송 모니터 역량은 극히 낮은 수준이어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김재경 기자 (wwkim@buddhapia.com)

컴퓨터와 입체영상 만남

'석굴암 본존불 나투시다'

영상미디어연구센터 시연

가상현실에서 석굴암 불상들의 천년 미소를 보게 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영상미디어연구센터(소장 김형곤)가 9일 슈퍼컴퓨터와 입체영상 기술을 결합, 3차원 세계에 석굴암 불상을 모신 것.

석굴암 불상은 리얼리티 스튜디오에서 'LCD 셔터링 글래스'라는 고글처럼 생긴 특수안경을 끼고, 스튜디오 전면에 마련된 가로 9.5m 세로 3.1m의 초대형 화면을 바라보면 그 찬연한 자태를 드러낸다.

또 석가여래상 앞으로 다가서면 병풍처럼 늘어선 주변의 천부상·보살상·나한상 등이 특수안경 속에서 눈을 부라리며 압도하고, 돌아서면 십일면 관음보살 입상이 미소로 반긴다.

최첨단 영상기술이 컴퓨터와 만나면서 그동안 '결로현상'을 피해 두꺼운 유리벽 뒤로 숨어버렸던 경주의 석굴암이 본존불 석가여래의 미소까지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다가온 것이다.



◇특수안경으로 투영되는 3차원 입체영상의 석굴암 본존불.

영상미디어연구센터는 리얼리티 스튜디오를 위해 수년간 20여명의 연구원들이 꼬박 매달렸다. 3차원 석굴암 불상을 재현한 김형곤 박사는 "사실감을 위해 석굴내 균열과 더러움까지 표현했다"며 "이 기술을 이용하면 민족의 유산을 영원히 보존하고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불교도농공동체운동' 준비위 발족

귀농학교·생협 조직화…사찰·단체 23곳 동참

불교귀농학교와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아우를 '불교 도농공동체 운동' 준비위원회가 발족됐다. 불교귀농학교 활동에 참여해온 봉은사, 실상사, 우리는 선우 등 교계 23개 사찰 및 단체는 9일 종단협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준비위원장에 원혜스님(봉은사 주지)를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원혜스님 인터뷰 4면〉

'준비위원회는 정관마련과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확정하고 운동본부를 구성해 오는 7월 중순 창립대회를 갖고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준비위원회는 '조화로운 삶, 더불어 사는 사회, 생명을 살리는 농업'으로 이념을 표방하고 유기농산물 유통센터 건립과 주말농장 프로그램 운영, 생태 수련회 개최, 음식찌꺼기로 퇴비 만들기 등의 사업을 확정했다.

'불교 도농공동체 운동'에는 봉은사, 실상사 외에 길상사, 능인선원, 원주 성불원, 삼성암, 부천 석왕사, 수원포교당, 경산 선본사, 영화사, 조계사, 화계사 등 사찰 12곳과 우리는 선우,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경불련, 대불련 총동문회, 맑고 향기롭게, 전국귀농운동본부, 청정국토만들기 운동본부, 한국불교환경교육원,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일과 깨달음 도량, 귀농학교 동문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북한에 비료 2백톤 한마음선원 지원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은 13일 한국제이티에스(이사장 최석호)에 북한돕기 성금 6천만원을 전달했다.

이자리에서 대행스님은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과 이로인한 대량 아사사태가 우리민족에게 가장 큰 비극이다"며 "한명의 북한주민이라도 살려내는 일이 불자로서 당연히 해야할 도리"라고 말했다.

이번에 북한지원금을 전달받은 한국제이티에스는 비료 2백톤을 구입하여 22일 12시 부산항에서 '한마음선원 99 북한비료선적식'을 갖고 라진-선봉지역에 직접 보내게 된다.

한편 한마음선원은 97년 4월부터 한국제이티에스에 북한돕기성금으로 4천여만원을 전달한바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뉴스 & 뉴스

태고종 북비료보내기 동참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7일 열린 전국 시 도 교구 종무원장 연석회의에서 현재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불추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 비료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하고 오는 6월말까지 비료 100톤을 보내기로 했다. 비료보내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암 총무원 부원장과 인공 봉원사 주지를 불추위 공동 추진위원장에 선임한 태고종은 전국 시 도 교구 종무원별로 비료구입비를 모금,키로 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공군서산기지 통천사 낙성

공군서산기지 도비산 통천사(주지 동광스님)가 25일 오후2시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을 증명법사로 탑·현판 제막식 및 낙성법회를 거행한다.

2년전 간척지 해미땅에 들어선 공군부대에 자리잡은 이 법당은 군예산 12억원을 지원받아 건립됐다. 통천사는 대지 2천8백평에 건평 134평 규모로 3백여명의 장병불자를 수용할 수 있다. (0455)689-2085 김재경 기자

동국대 내년 특별전형 확대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내신성적과 면접 만으로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등 2000년도 대학입학 특별전형계획을 15일 확정 발표했다.

동국대의 이번 입학 전형에서는 교구본사 주지스님과 종립학교장의 추천도 건학이념 구현 차원에서 뽑는다. 수시모집에서는 35세 이상으로 직장경력 5년 이상의 장기 취업자를 대상으로 9~10월에 106명(서울 82명, 경주 24명)을 면접과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선암사 성보지키기

순천 선암사(주지 인곡스님)에 소장된 후불탱화등 성보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경찰이 나섰다. 경찰관 15명은 저녁 8시부터 아침 4시까지 개를 데리고 경내를 순찰하고 있다. 또 순천시의 지원을 받아 경내에 외등 18개를 신설하고, 가로등 62개를 보수했다. 〈순천=주용직 광주지사장〉

국방장관 면담요청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위원장 원혜, 현진)는 12일 국방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방부에 발송했다.

대책위는 공문을 통해 "101여단 군법당건립과 관련, 마치 군법당건립 자체가 좋지 않은 일인양 인식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일로 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확대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면담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광덕스님 추모 49재



불광사·불광법회 법주 금하당 광덕스님 49재 추모법회가 16일 오전 10시 서울 불광사 보광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혜암 조계종 종정, 탄성 조계종 원로회의 장,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 정일 선학원 이사장, 광우 비구니회장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석해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김종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부산BBS 정상화 촉구 신행단체모임 성명

불교부산방송(사장 류진수) 지사장 선임을 놓고 말썽이 일자 부산불교계 신행단체장들이 불교부산방송 정상화를 위한 연대모임(대표 정금강행)을 결성하고 사태수습에 나섰다.

12일 불교부산방송 정상화를 위한 신행단체 연대모임은 불교방송본사 성낙승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불교부산방송 사장 선임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분명히 밝히고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성낙승 사장은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사장와 사장 선임건을 다시 논의해달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부산교계는 불교부산방송 지사장 선임건이 본사에서 이유없이 승인이 나지 않고 특정인을 사장 후보로 추천하고 있는 측에서 공공연하게 류사장 사퇴를 거론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었다.

천미희 기자

예비스님 109명 장기기증 서약

행자교육원서 단체 동참…264명 사미(니)계 수지

15일 직지사에서 회향한 제16기 행자교육원에서는 228명의 예비승들이 사후장기기증, 화장서약 등 생명을 나누는 소중한 인연을 맺었다.

이번 행자교육을 수료한 총 264명(사미 153명, 사미니 111명)의 예비승 가운데 상화 사미니 외 109명이 사후장기기증을, 119명이 사후화장서약에 동참한 것. 이번 생명나눔 캠페인은 행자교육 실시이후 처음 실시됐으며,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이날 회향식에서는 또한 모든 행자들이 출가발원문을 직접 작성해 수료자 대표로 선우 사미니가 자신이 작성한 발원문 낭독, "불법을 호지하며 치열한 수행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발원했다. 교육원은 앞으로 이 발원문을 모아 〈발원문집〉 책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단기 출가 선(禪) 수련회 안내

▶사찰은 무한 능력의 소유자◀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에서는 직장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 출가 선(禪)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1999년도 주말 선 수련회

♣ 내용 : 선(禪) 초심자의 실참실수(室參實修)와 단기 출가자로서 필요한 발우공양, 108배, 삼귀의 · 오계 수계 등 불자예법.
♣ 장소 : 성북동 길상사 설법전 ♣ 인 원 : 선착순 50명
♣ 대상 : 일반인, 직장인 ♣ 수련비 : 2만원

차수	기 간	대 상	회비
제9차	4월24일(토)~25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입재 / 일요일 오후 8시 30분 회향)

※매월 2·4주에는 정기적으로 주말 수련회가 열립니다.

♣ 접수방법

1. 직접 방문시 :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
2. 팩스 이용시 : ①이름 ②생년월일, 성별 ③주소 ④연락처 전화번호 ⑤직업 ⑥수련회 경험유무 ⑦수련회 동참 소견 (꼭 쓰세요)을 적어서 팩스로 접수, 이 경우 수련회비는 외환은행 계좌 301-22-00206-0, 예금주 〈길상사〉로 보내고 신청서와 입금표를 같이 보냅니다.

(수련비는 반환되지 않으나 친지나 본인이 원할 경우 원하는 차수에 언제라도 다시 동참 할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자 동참 : 수련기간 중 보살행으로 수련생을 후원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오전이나, 오후 등 봉사자의 활용 시간대에 맞춰서 편리하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수련회 사전준비, 공양간 찬상정리, 사무실 보조, 뒷 정리 등 자유롭게 동참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우)136-020

전화 (02)3672-5945~6 / 팩스(02)3672-5947

대한불교 무 량 종

창 종 공 고

본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교조로 자각 각타의 행원을 근본 교리로 삼고 수행정진으로 견성성불 전법도생을 종지로 대승불교 사상과 이념을 구현, 자비실천을 모체로서 사회복지 및 봉사정신으로 시대적 사명감과 대원력을 세워 모든중생을 교화하고저 창종을 선포합니다.

불기 2543년 4월 1일 목요일

⊙ 창종대표 : 령 관 (이태순)
파 옹 (전현용)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76-2
(본산 삼각산 무량정사)

전화 : 02) 379-1600

통도사성보박물관 개관에 따른

감사의 말씀

지난 4월 11일 저희
「통도사성보박물관 개관식 행사」
가 성황리에 거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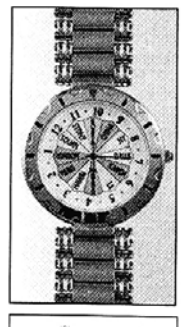
개관식을 빛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靈鷲叢林 通度寺

住持 月把 合掌

GLOBAL WATCH

세계 여행의 필수품 "



세계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GLOBAL WATCH
"

· 해외 교류업체의 시간이 궁금하십니까?
· 모국의 시간이 궁금하십니까?
· 해외가족 거주지역의 시간이 궁금하십니까?
· 자녀의 사고력을 키우고 싶으십니까?

세계 10개국에 실용신안 등록 출원중
출원번호 PCT-KR98-00379



스테인레스 男女 각 ₩115,000

··· GLOBAL WATCH 보는 법

· 시간은 각국(도시)의 표준점이 됩니다.
· 정각이 아닐 경우 각국(도시)의 표준점 우측 시간을 읽습니다.
· 분초는 일반 시계와 마찬가지로 베무리(BEZEL)의 점정선으로 읽습니다.



예1



한 국 1시 13분
캘리스 10시 13분
엡에이 8시 13분
파 리 5시 13분

예2



한 국 1시 43분
괌 덤 4시 43분
하와이 6시 43분
달라스 10시 43분



가죽 男女 각 ₩68,000

♦시침이 돌지 않고 원판이 돌며 ♦시간을 볼 때 모국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숫자로 보며 분침은 일반시계와 같음
♦서머타임 실시국가는 베젤 조정으로 시각 확인이 가능합니다.

GT&T
http: //www.gtnt.co.kr
(404-220)인천시 서구 석남동 457-4
TEL : 032)576-4510, 575-4511
FAX : 032)576-4511

성 명 서

불교부산방송을 아끼는 마음으로

1999년 1월 26일 불교부산방송 운영위원회 제2차 정기총회에서 운영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선출한 불교부산방송 지사장 선임이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됨 **으로써 한국불교의 맥을 잇는 부산불교의 전통과 200만 불자의 명예에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 이에 삼보 호지와 정법수호를 위한 파사현정의 결연한 정신으로 모범적 활동을 해온 신행단체 대표들이 모여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워 정법을 선양하고자 부산불자들의 요구와 결의를 천명한다.**

1. 경남 함안에 소재한 마애사 주지 무진(속명: 신민호)은 조계종 승적이 없는데도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마애사라는 간판을 걸고 창건불사 중에 있다. 불교부산방송 이영구 국장은 무진에게 회유당하여, 교계지도자로서는 상당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불교부산방송 사장으로 선출할 것을 공모하여 결과적으로 불교방송의 신뢰성을 추락시켰고 본사에 보고도 없이 무단으로 태국을 여행하는 등(본사로부터 징계 받음) 불교방송의 기강을 흐트리고 있으니 이영구 국장을 즉시 해임하십시오.

2. 정기총회가 열리기 전, 1월 10일에는 류진수 사장 댁에 전화로, 1월16일에는 이종판 사무국장이 동석한 범일동 대어초밥에서 그 뒤 진례의 류진수 사장 공장을 찾아가서 이영구 국장은 "사장님, 명예롭게 퇴진하십시오. 배종진 회장은 아태재단 부회장이며, 청와대에도 밴츠차로 무상출입하는 대단한 분이며, 불교방송에 20억원을 희사 하신다고 했고, 종금사(파이낸스) 사옥으로 방송국을 옮겨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류진수 사장님이 불교 부산 방송 창립시 8억원을 내셨으므로 10억원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배종진 회장께 말씀드렸더니, 5억원을 류진수 사장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진실인지를 밝히시오.

3. 1월26일 오후 3시경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S스님, 류진수, 배종진 세 분이 만난 자리에서 배종진 회장은 류진수 사장에게 3억원을 드리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류진수 사장은 "3억원이 아니라 30억이라도 나는 받을 수 없고, 주시려거든 부산불교신도회나 범어사에 줘서 거룩한 불사에 쓸수 있도록 하십시오.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류진수 사장이 배종진 회장으로부터 3억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주시오.

4. 배종진 회장이 불교부산방송 사장으로는 결격사유가 있음이 드러나자 이를 알게 된 일부 불교 신행단체 대표들과 운영위원들이 류진수 사장에게 "불교방송을 그런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 사퇴는 무슨 사퇴냐? 만약에 일을 잘못 처리하면 류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비난받을 각오를 해라. 이번만은 류사장이 유임되어야 한다." 라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운영위원들은 배종진 회장의 결격사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오.

5. 3월10일자 대한불교신문의 4단 기사보도에 따르면 자천타천에 의해 신임 사장직를 희망했던 종금파이낸스 배종진 회장이 "전임사장을 명분없이 물러나게 할 수 없으므로 서울 불교방송 이사로 모시고자 이사 출연금 3억원을 후임자의 도리로서 본인이 부담하겠다." 고 제의했다는데, 과연 불교부산방송 사장 직책을 매관매직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사실을 해명하시오.

6. 지난 1월26일 불교부산방송 운영위원회 제2차 정기총회는 부산불교계 신행단체대표(대한불교관음선행회 정금강행,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박성빈, 부산불교 거사림회 서건남, 부산불교신도회 사무국장 이종판, 부산불교신도회 이사 김인대, 대한불청부산지구 청년회장 김수현)들이 참관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 만장일치로 임원과 신임 운영위원들이 선출되었기에 불교방송 사장은 즉각 이를 인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본사 사장은 제2차 정기총회가 마치 이권다툼으로 인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회의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 조작 보고한 이영구 총괄국장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보고시 첨부한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여 진위여부를 판명하여 주십시오.

8. 부산불교의 정신적 지주인 대한불교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범어사 주지이시며 불교부산방송 운영위원장이신 성오 큰스님께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시고 또 회의 내용이 전혀 하자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 뿐만 아니라 자필 소명서를 보내고 공사석에서 당부의 말씀까지도 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승가의 청정 정신을 부정하는 일이며, 부산불자들의 전체 명예를 대단히 훼손하고 있음을 불교방송사장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9. 현재까지도 배종진 종금파이낸스 회장이 마애사 신도로서 불심이 돈독하다고 선전하면서, 불교부산방송 사장이 되어야 한다며 부산불교계를 분탕질하고 다니는 마애사 주지 무진(신민호)은 과연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에게 매수 당한 이영구 총괄국장 등은 정법을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죄를 사대부중 앞에 공개 사죄하라.

10. 부산불교 신행단체의 대표들이 부산불교를 걱정하는 심정으로 이번 사태를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검증을 한 결과, 상기의 사실들이 틀림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앞으로 불교부산방송 사장은 부산불교계에서 오랜 세월동안 신행의 모범을 보인 신심과 덕망이 갖추어진 사부대중으로부터 신망 받는 불자가 선임되어야 함을 불교방송사장님께 아울러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9년 4월 12일

불교부산방송 정상화를 위한 신행단체 연대모임
대 표 정 재 선 (금강행)

부산불교교권수호협의회, 부산불교인권위원회, 부산불교방송국시청자위원회장, 부산불교교수연합회, 부산불교교육대학, 부산불교교육대학 총포교사회, 부산불교거사림, (재)불심홍법원, 부산불교의사회, 부산불교약사회, 부산불교문인협회, 대한불교관음선행회, 한국불교연구원 부산구도회, 부산불교운전기사회, 부산불교산악회, 부산청년불자산악회, 부산실천불교운동본부, 연꽃모임, 보현봉사회, 부산불교보현회, 부산불교교육원, 부산불교정진회, 동국불교정법대학, 불교환경통신원회, 부산불교그린봉사회, 산사선행회, 부산불교녹야회, 보훈관음회, 조계사불교대학 부산동문회, 토향회, 선정회, 대학생불교연합 부산동문회, 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 부산불교스카우트 불자회,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부산지부, 중학생 불교연합 지도위원회 (이상 36개 단체 무순)